

사랑에 굶주리시고
인정에 목마르신
하나님!

Copyright © 2009 by
Everlasting Gospel Publishing Association
Published by
Everlasting Gospel Publishing Association

사랑에 굶주리시고 인정에 목마르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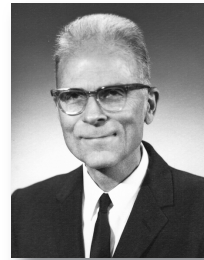
초판 1쇄 인쇄 : 2009년 10월 30일
초판 1쇄 발행 : 2009년 10월 30일

설 교 : W. D. 푸레지
번 역 : 전 충 권

펴낸이 : 조명준 / 펴낸곳 : 에버라스팅가스펠출판사(EVERLASTING GOSPEL)
등록 : 1990.6.20(19-20)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출판문화정보단지 514-2
전화 : 031-955-1293, 1294, 1295(F) / info@egpa.net / www.egpa.net

값 : 15,000원

ISBN 89-89268-96-6
PRINTED IN KOREA



사랑에 굶주리시고 인정에 목마르신 하나님!

Meeting God's Heart Need
Spoken Words by Elder W. D. Frazee

하나님의 마음의 필요를 충족시킴

설교 : W. D. 푸레지 목사 / 번역 : 전 총 권



EVERLASTING GOSPEL PUBLISHING ASSOCIATION

에버라스팅 가스펠 출판사

Dear Readers

독자들에게



푸레지 목사님 내외와 함께

It has been some time since I translated Elder W. D. Frazee's sermon.

역자가 푸레지 목사님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번역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I began to translate his sermons into Korean as I listened to his tapes in the early 80s.

역자가 1980년 초부터 푸레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first book I ever translated was "The last messages from The Book of Revelation" from the cassette tapes.

처음으로 번역한 책은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기별"이라는 테이프를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Elder Frazee was the founder of the Wildwood Medical Missionary Institute in Wildwood, Georgia.

푸레지 목사님은 미국 조지아주 와일드우드 시에 있는 와일드우드 의료 선교사 양성학원의 설립자이십니다.

I was trained under him at the Wildwood Medical Missionary Institute back in 1979 through 1980.

역자는 1979년부터 1980년까지 푸레지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While I was being trained at the Wildwood Medical Missionary Institute,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work at the Wildwood Recording Studio, which housed all of Elder Frazee's spoken sermon on tape.

역자가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 와일드우드 녹음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와일드우드 의료 선교사 양성학원 설립 이래 푸레지 목사님께서 설교한 모든 테이프가 보관된 곳입니다.

I was able to listen to most of his tapes while re-mastering them at the studio.

녹음실에서 일하면서 모든 테이프의 사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거의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His sermons deeply moved me to translate them into the Korean language so that I could share his message with my own people.

목사님의 설교는 내 마음에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기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Not many books were available by elder Frazee then.

푸레지 목사님이 쓰신 책은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Two books were translated into the Korean language by Pastor Shin Hyuncheol and by Pastor Kim Pyungahn.

단지 두 권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신 현철 목사님과 김 평안 목사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I took it as my calling and started to translate some of Elder Frazee's sermons into the Korean language while listening to his tapes.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푸레지 목사님의 설교를 한국어로 번역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고,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Many readers appreciated his messages when these translations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language.

목사님의 설교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책으로 출판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분의 기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To this day, many readers still frequently ask me if there are more translated sermons available.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푸레지 목사님 설교가 더 이상 없느냐고 묻곤 합니다.

I have translated numerous books into the Korean language but this is my first attempt to publish a book in a bi-lingual format.

역자가 여러 권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으나 영어와 한글을 병기해서 번역하여 출판하는 일은 처음 하는 일입니다.

We, especially Koreans, live in a time where English has become a very important language to learn. Many people invest their time, money, and energy to master this language.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어를 배워야만 하는 시대인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재정과 시간을 할애합니다.

I was inspired to publish Elder Frazee's sermons in a bi-lingual format so that people can understand his sermons in its original language, so that the meaning does not get lost in the translation process, as no language can embody a meaning in the same light.

역자는 푸레지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와 한글을 병기하여 출판해야겠다고 하는 감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여 독자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원어로 들고 이해하게 하므로 번역할 때 원래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이라도 원래의 의미를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There are many books available in bi-lingual format.

영어와 한글을 병기하여 번역해서 출판한 책들은 더러 있습니다.

However I did not find any book that translated sentence by sentence to help the reader understand its meaning in a deeper level.

하지만 영어 한 문장, 한글 한 문장씩 번역해서 출판하여 독자로 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번역하여 출판한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Also, this book will give readers a perspective on how to translate sermons.

또한 본서는 독자들에게 설교를 통역하는 기술을 연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I aimed to translate sentences as directly as possible to help the readers understand this process clearly.

역자는 가급적 설교 말씀을 독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역하도록 노력했습니다.

Some sentences needed further explanation on the meaning to clearly portray what the preacher was trying to say.

어떤 문장들은 설교자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경우 의역을 했습니다.

I have also decided to have a CD available for the readers to hear Elder Frazee's sermons in his very own voice.

역자는 또한 푸레지 목사님의 설교가 담긴 CD를 통해서 푸레지 목사님의 육성을 독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One can feel his great love and sincerity through his magnificent tone.

그분의 설교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청취자들은 그분의 육성을 통해서 그분이 지니고 있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진실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His voice is gentle, yet powerful.

그분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His unhurried rhythm and very soothing voice will touch your soul.

그분의 차분한 음성과 평온한 음성은 그대의 영혼에 감명을 줄 것입니다.

It will be a multi-sensory blessing to listen to his voice on CD while reading his sermons.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읽으면서 육성으로 그분의 설교를 듣는 독자들은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Not only one's hearing ability will improve, but also his comprehension ability will be tri-fold, as one is stimulated through multi sensory channels while reading this bi-lingual book and observe the translation process.

영어 청취력만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도 3배 이상 증가될 것인데, 영어와 한글로 병기된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육성으로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통역하는 것을 연습할 때 오감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3중의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This multi-sensory experience will help readers understand his message and the English language profoundly.

오감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해할 때 독자들은 설교 말씀을 더욱 확실히 이해함과 동시에 영어 실력도 놀랍게 증진 될 것입니다.

I want to encourage readers to also read his sermons out loud after hearing the CD.

역자는 독자들에게 CD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육성을 들으면서 번역된 설교문을 소리 내어 읽으라고 권장합니다.

Although experiencing the English language through Elder Frazee's sermons will be quite a progressive educational experience, my wish is to inspire every reader's heart through his messages, which are filled with light.

푸레지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들음으로 영어 실력이 증진됨과 동시에 독자들의 마음에 이 기별을 통해서 진리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역자의 소원입니다.

I am certain that you will want to be Elder Frazee's friend throughout your lifetime, even though he died in 1996.

목사님은 이미 1996년에 작고하셨지만 독자들이 일생을 두고 푸레지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역자는 확신합니다.

I pray that every reader is inspired by his messages to fulfill what Elder Frazee aspired for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역자가 모든 독자들이 목사님의 기별을 통해서 감명을 받으심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목사님의 열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May each of you find a place God has uniquely prepared for you to occupy in the grand plan of salvation.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차지하도록 마련된 특별한 그 자리를 꼭 찾아내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Translator : Daniel Chun

역자 : 전 충 권

Table of Contents

목 차

[Dear Readers_4](#)

독자들에게_4

[1. Jacob's Ladder Is For You_13](#)

야곱의 사닥다리-그대를 위한 것임_13

[2. You Were Made For God_57](#)

하나님을 위해 지은바 된 그대_57

[3. Satisfying Jesus' Thirst_101](#)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함_101

[4. You Can Be Guided By God_144](#)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_144

5. John 17 Is For You_191

그대를 위한 요한복음 17장_191

6. The White Stone_231

흰 돌_231

7. Abraham - God's Friend_279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_279

8. Moses - God's Friend, Too_322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_322





본 설교문은

미국 콜로라도주 이든 벨리 자급 선교원에서

설교한 카세트 테이프를

미국의 한 평신도가 듣고 타자한 원고를

와일드우드에 있는 W. D. 푸레지 목사 유산 관리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역자가 번역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역을 하고자 노력했으나

어떤 구절들은 의역을 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1. Jacob' s Ladder Is For You

1.야곱의 사닥다리-그대를 위한 것임

Study given by W. D. Frazee - April 25, 1972

1972년 4월 25일 W. D. 푸레지 목사 설교

Who was it that saw a ladder? Jacob.

사닥다리를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Now, when Jacob saw this ladder, he wasn't a good boy.

자 - 그런데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보았을 당시 그는 착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He was a bad boy.

나쁜 아이였습니다.

He had a good father and a good grandfather, but Jacob hadn't been very good.

그는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었었지만, 야곱은 그리 좋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You remember he had lied to his father, and stolen from his brother, and he was running away for fear he might be killed.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훔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And he went along feeling badly because of what he had done, and not knowing what was ahead of him, just fleeing, fleeing.

그리고 그는 그가 한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후회하면서, 그 앞에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면서 그냥 도망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Of course, he came at last to the end of the day.

물론 결국에 가서 그는 하루의 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nd he lay down and there was no motel for him to pull into, no home to entertain him.

그래서 그곳에 드러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여관도 없었고 그를 환대해 줄 집도 없었습니다.

He was out where he had to lie down on the ground and he had a stone for a pillow.

그는 땅바닥에 드러 누울 수밖에 없는 곳에 있게 되었고, 베개로 삼을 수 있는 돌이 있었습니다.

But he was so tired that he slept anyway.

그러나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곳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You know, when you are tired enough you can sleep most anywhere, and Jacob was that tired.

여러분이 극도로 피곤할 때는 어떤 곳이든지 개의치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야곱이 그 정도로 피곤했었습니다.

And as he slept, he saw this ladder.

그리고 그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Turn to Genesis 28. There are two words in this verse that I want you to notice, something very interesting. Genesis 28:12:

창세기 28장을 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두 단어를 특별히 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And he dreamed, and behold a ladder set up on the earth, and the top of it reached to heaven: and behol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Genesis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창 28:12

Where was the bottom of the ladder resting? On the earth.

사닥다리의 바닥이 어디에 닿았다고 했습니까? 땅이라고 했습니다.

Where did the top of it reach? To heaven.

사닥다리의 윗부분은 어디에 닿았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닿았습니다.

That was a long ladder, wasn't it?

그것은 꽤나 긴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he point is, the ladder reached where Jacob was; right where he was.

중요한 사항은 그 사닥다리가 야곱이 있는 곳,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He was right down on the earth, and the ladder reached there.

그는 이 땅에 있었고, 그 사닥다리는 그가 있는 그곳에 닿았습니다.

And the top of it reached clear to heaven where God is, because the next verse tell us:

그 다음절에 보면 그 사닥다리의 윗부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And, behold, the LORD stood above it, and said” Genesis 28: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13절)

So at the top of the ladder was who? God.

그런데 사닥다리의 맨 위부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And at the bottom of the ladder was who? Jacob.

그리고 사닥다리의 맨 밑 부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And what do you suppose the ladder was for, then?

그렇다면 사닥다리가 무엇을 위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To connect them.

서로를 연결해주기 위해서이지요.

Who was coming down the ladder? Angels.

누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Who was going up the ladder? Angels.

누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Oh, I am so glad, folks, there is a ladder here tonight, and God is at the top of the ladder, and you and I are either at the bottom of the ladder, or somewhere on it.

아-나는 여러분들이시여, 여기에 사닥다리가 있음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 사닥다리의 맨 윗부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나는 사닥다리의 맨 밑 부분 아니면 사닥다리의 어느 한 지점에 있습니다.

Now, I don't know where you are.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릅니다.

My point is, even if you are at the bottom of the ladder, the ladder reaches where you are.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약 사닥다리의 맨 밑 부분에 있다고 하면 이 사닥다리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If there is somebody here that has never taken a step toward God, you have never made one move toward God, the ladder is right where you are.

혹 오늘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떠지지 않은 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보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사닥다리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But suppose you have been following Christ the best you know.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You are somewhere up this ladder.

이 사닥다리의 어느 한 지점에 있습니다.

Folks, there is another rung of the ladder to climb, there is another step up these shadowy stairs to take.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또 다른 발판이 있습니다. 그림자로 가려진 올라가야 할 또 다른 계단이 있습니다.

And I hope that during these few days we are together we can all

take a few more steps. What do you say, friends?

그리고 내가 바라는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 모두 몇 발판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d remember, this is the thing I want to stress right here in these first five minutes. Remember, the ladder reaches where you are.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앞으로 처음 5분 동안 바로 이 점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이 사다리에는 여러분이 있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me people get discouraged because they can't do what somebody else does.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They can't pray like somebody prays, or talk like somebody talks, or sing like somebody sings.

저들은 어떤 사람처럼 기도할 수 없고, 어떤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처럼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No, that isn't the important thing.

아닙니다. 그것은 중한 것이 아닙니다.

The important thing, dear friends, is to understand that God is interested in you, and that He comes right where you are. He knows all about you.

중한 사실은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대가 있는 바로 그 지점에까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That is what He told Jacob.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see, as I say, Jacob knew that he had a good father, and that God had talked to Isaac.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야곱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삭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He knew that he had a good grandfather, and that God had talked to Abraham.

그는 훌륭한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But Jacob knew that he was a bad boy. He had broken God's law.

그러나 야곱은 그가 나쁜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And here God comes to him and says, "Jacob, I am not only interested in your father and your grandfather, I am interested in you.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I am interested enough in you that out here on these sands, with your head on a pillow, I am giving you this view of Me and My love.

그리고 모래밭에 돌을 베고 있는 너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너에게 와서 내 자신과 나의 사랑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I have come right where you are with this special message of

interest and love.

네가 있는 이곳으로 너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의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왔다고 하십니다.

And listen," God says, "I want you to be with Me. I want to be with you." Why, He says: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I will not leave thee" Genesis 28:15.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15절)

Who is with us this afternoon? God is with us. He is with you.

누가 오늘 오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Let me read you something here from Ministry of Healing, page 229 to put with this:

치료봉사 229페이지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He knows each individual by name, and cares for each as if there were not another upon the earth for whom He gave His beloved Son" Ministry of Healing, page 229.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치료봉사 229

Does God know your name?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Did He know Jacob's name? Yes.

그분이 야곱의 이름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He called him by name.

그분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He knows you, and He cares for you just as if you were the only one in all the world, the only one for whom Jesus died.

그분은 그대를 아십니다. 그분은 그대 자신이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대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대를 돌보십니다.

"Oh," somebody says, "that's too much. I can't comprehend that."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Don't try to comprehend it. Just enjoy it.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I can't comprehend all the air around this planet, but I enjoy what I get eighteen times a minute. Don't you?

나는 이 지구에 있는 공기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분에 18번씩 들여 마시며 즐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Yes. I don't try to comprehend it. I am glad there is a lot more than I need.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있다는 점에 대해 기뻐할 뿐입니다.

There is plenty for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들여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I can't comprehend all the sunshine that shines down.

나는 내려 쏘이는 태양빛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But do you know folks, I get just as much sunshine as if there were nobody else in this world to get it. Don't I?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햇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he sun shines for me as if I were the only one to enjoy its healing rays.

태양은 그의 치료하는 광선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나 혼자인 것처럼 나를 위해 비치고 있습니다.

So when you are dealing with these wonderful things, don't start dividing by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and say, "I am afraid I get a pretty small piece of pie."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가지고 나눔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 조각이 아주 작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The whole pie is for you, my friend. Let me read it again:

파이 전체가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이시여,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He knows each individual by name, and cares for each as if there were not another upon the earth for whom He gave His beloved Son" Ministry of Healing, page 229.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치료봉사 229

Isn't that tremendous?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I wonder if there is anybody here that has five brothers and sisters? May I see your hands? Yes, there are several.

나는 이 자리에 형제자매 다섯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몇 사람이 계시는군요.

I wonder if there is anybody here that has got ten brothers and sisters?

혹 이 자리에 열 사람의 형제자매를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Well, I have seen families with more than that.

글쎄요. 저는 그 보다 더 많은 형제자매를 가진 가정들도 봤습니다.

Now, tell me this. How many of you here this afternoon have at least one brother or sister? May I see your hands?

자, 대답해 주십시오. 이 날 오후에 최소한 형제자매 한 사람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Well, almost everybody.

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렇군요.

Well, you folks that are so unfortunate that there are five or six or eight or ten in the family, you don't get very much love, do you? There isn't very much to go around, is there?

형제자매가 다섯, 여섯, 여덟, 열 명씩 있는 사람들은 꽤나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이군요. 여러분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겠군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나누어 가질 사랑이 그리 충분하지 못했겠군요. 충분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Why, friends, the fathers and mothers I know, if they have any love at all, they love the second not half as much as they gave the first one.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시여!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저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첫째 아이를 사랑한 것의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when the third one comes along, they don't say, "Well, we only have one-third for this one, and the others will have to take it a little lighter now." No, no.

그리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들은 "세 번째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가진 사랑의 1/3만 사랑해야겠군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이제 조금 덜 사랑해야 되겠군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Now, listen. What about the One who made the fathers and made mothers?

이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Do you think that He has to divide up His love among the three and a half billion people in this world? Why, no, He doesn't.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을 35억의 인구로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statement on it. I like this:

또 다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The relations between God and each soul are as distinct and full as though there were not another soul upon the earth to share His watch care" Steps to Christ, page 100.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지구상에 그분의 돌보심을 베풀어야 할 또 다른 영혼이 없는 것처럼 특별하고 완전한 것이다." 정로의 계단 100

My, my. Jordan, is it for you as though you were the only one?

아- 조단 형제여, 그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대를 그렇게 몽땅 사랑하신단 말씀입니까?

Rick, is it for you as if you were the only one? Daniel, is it for you as if you were the only one?

릭 형제여, 그대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요? 다니엘 형제여, 그대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대를 사랑하신다고요?

And you girls, each of you, is it for you as if you were the only one?

여기에 있는 소녀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Is the ladder for you?

사닥다리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Has God put the ladder down where you are, just as if you were the only one to climb it?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여러분 혼자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사닥다리를 세워두셨습니다.

Now, listen, if this isn't so, then we had just as well not have any meetings.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집회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Oh, folks, I would hate to be up here telling you fairy tales.

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만을 한다면 나는 그런 말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No, sir. I know it is true.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First, because God says so. Second, because it works. I see it working.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분의 말씀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요, 나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My heavenly Father is as interested in me as though I were the only one in all the world.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I will tell you a little experience. And this is such a tiny little experience, and yet it meant so much to me.

내가 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경험은 아주 작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Just a few weeks ago I was taking a walk with my wife just before dinner, in the woods.

몇 주 전에 나의 아내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She went on home, and I went a little further in the woods.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숲속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I was carrying my coat and it had two or three things in it.

내가 내 코트를 들고 갔었는데 그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It was getting warm that is why I was carrying the coat.

날씨가 좀 더워져서 코트를 들고 갔었습니다.

And presently, I looked there in the pocket to see if something that was in the pocket had fallen out.

그리고 그 당시 주머니에 있는 것이 혹여나 빠져나가지나 않았나 해서 코트의 주머니를 살펴봤습니다.

Well, it hadn't, but I looked a little more and this little pocket comb had fallen out.

글쎄요. 빠져나간 것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작은 머리빗이 빠져나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Well, I liked the little thing. Of course, it didn't cost a million dollars, but then, I like it.

나는 작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 머리빗이 뭐 백만 달러 나가는 빗은 아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it is just what I want, and it fits in my pocket. It had fallen out in the woods, somewhere.

그리고 그 빗은 내가 꼭 원하는 머리빗이었고, 내 주머니에 딱 들어가는 빗이었습니다. 숲 속 어디엔가 그 머리빗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There I was way out in the woods. Well, what to do?

내가 지금 숲속에 있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ell, my mind went to my Friend, my dear Friend, the Lord.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 마음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요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And I said, "Now, Lord, I am not going to ask you to do this as a test.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I am not going to say, 'Lord, if you love me, please help me find this.' I know you love me, whether you help me find it or not.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로 하여금 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빛을 찾게 해주신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You know whether it is best for me. It might teach me to be a little more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상의 길인지 주님은 아시지요. 혹 좀 더 조심 하라고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But, I said, "Lord, I sure would appreciate it if I could find it."

그러나 나는 "주님이시여, 내가 이 빛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I started to walk. But I was not on a trail.

그리고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숲속에 있는 오솔길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I was just in the woods. So I went along there looking, and presently, there at my feet it was.

나는 숲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걸었는데 바로 그 때 그 빛이 내 발 밑에 있었습니다.

And I was so thankful I knelt down right there on the leaves and thanked the Lord and put it back in my pocket. And there it is. I have it.

그리고 나는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 있는 낙엽 위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렸고, 빛을 다시 내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었고, 여기 그 빛이 있습니다.

Well, folks, as I say, that is a very little thing.

자-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나의 경험이 아주 작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But if God had been busy looking after the affairs of three and a half billion people and all their needs and that kept Him occupied,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notice that, would He?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만약 하나님께서 지구 인구 35억의 사람들의 다반사를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종사하므로 바쁘셨다면, 내가 잃어버린 빛을 찾는데 도움을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No. But He was giving me His attention, you understand, as if He had nothing else to do.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인 것처럼 나에게 그분의 관심을 표명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That is what it means to be infinite, young people. Infinite means there is no limit.

젊은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바로 이것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무한하다는 의미는 제한, 한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There is no limit to the power of God. There is no limit to His wisdom.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There is no limit to His love.

그분의 사랑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Therefore He can give you the whole thing and still have the whole thing for your brother, your sister, your father, your mother, your uncle, your aunt, your cousin, your neighbor, your friend, and the three and a half billion people plus besides.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것 전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여러분의 사촌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 이 땅에 있는 35억의 인구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Isn't that wonderful? Oh, I am so thankful.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나는 이 일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And that is why He came to Jacob and said, "Jacob, listen. I am interested in you."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야곱에 오셔서 “야곱아, 들으라. 나는 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I was interested in your father, still am. I was interested in your grandfather and still am. But Jacob, I am interested in you."

“나는 너의 아버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너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야곱아, 나는 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Jacob said, "Oh, think of all I have done."

야곱은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God said, "That's why I brought the ladder down here. The ladder is to bridge the gulf between earth and heaven."

하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닥다리를 바로 네 앞에 놓았느니라. 이 사닥다리는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이다.

It is to bring God and man together.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사닥다리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Do you know what that ladder is?

여기에 언급된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Turn to John 1 and we will find out.

요한복음 1장을 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봅시다.

Jesus had been calling His first disciples, Andrew, Peter, John, Phillip, Nathaniel. Now He says something to Nathaniel:

예수님께서 그분의 첫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reafter ye shall see heaven open, and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upon the Son of man” John 1: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1:51

What is this ladder? It is Jesus. He is the ladder.

사닥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He is the only way that heaven can reach me, and that I can reach heaven.

그분만이 하늘이 내게 내려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It is through Christ. And the worst sinner in the world can come here, friends.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 해도 이 사닥다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And listen, don't think that there are certain steps you have to

do before you come to Christ.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밟아야 할 어떤 계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The man that is smoking cigarettes does not have to quit cigarettes before he comes to Christ.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The man that has the whiskey habit does not have to quit the whiskey before he comes to Christ.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술을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The person that swears or uses filthy language does not have to quit all that, and then come to Jesus.

각종 험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It matters not what sin is bothering you. You can come to Christ just as you are.

그대를 괴롭히는 어떤 죄를 지니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습니다.

In fact, if you come, that is the only way you can ever come. Christ is the ladder.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온다면 있는 그대로 오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다리입니다.

And the ladder reaches right down to the ground. And the very first step of the ladder is the step of coming to Jesus. See?

사닥다리는 우리가 있는 땅에 닿아 있습니다. 첫 계단을 밟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가는 첫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You don't say, "Oh, I have to work hard and do better, and then, maybe someday, I will come."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나아진 후, 이런 것 저런 것 고친 후에 훗날 언젠가 예수님께 가지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How many people there are that know, for instance, that this message is the true message,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they would like to be Seventh-day Adventists, but they think that they have to quit tobacco first.

그 한 예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기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들이 재림교회에 오기 전에 담배를 끊어야 하고 술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Well, they do need to quit tobacco, friends, but they don't need to quit tobacco before they come to Jesus.

물론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저들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 저들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What a strange thing it would be to see a man that is just so sick. He is in pain. And we say to him, "Why don't you go to the doctor?"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의사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하고 말할 때

He says, "I am going to go just as soon as I can get strong enough."

“제가 조금 나아지고 힘이 조금만 생기면 의사 선생을 보러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되겠습니까?

The weaker he is, the sicker he is, the more - if he has to - he needs to do what the man with the palsy did.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중풍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의원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You remember he had his friends carry him on a litter.

여러분은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He couldn't walk, but he said to his friends, "Men, I have to get to Jesus. I can't walk, but carry me."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에게 "내가 걸을 수 없어도, 예수님께 나가야만 되겠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게."라고 했습니다.

Listen, my dear friends, if you are so weak in sin that you can't even drag yourself to Jesus, get some friends to pray with you and carry you to Jesu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너무 약해져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처지라면, 친구들을 불러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도록 요청하십시오.

And they will do it. They will be glad to help bring you to Jesus, like that poor sick man.

저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병든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And you remember Jesus was so pleased with that fellow coming to him. And He said: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병든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Son, be of good cheer; thy sins be forgiven thee” Matthew 9:2.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2)고 하셨습니다.

And presently He healed him and he walked away rejoicing.

즉시 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걸어갔습니다.

My point is, friends, wherever we are, the ladder, which is Jesus Himself, comes right to where we are.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자신이신 사닥다리가 여러분 앞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Whatever your problem, Jesus is there with you, in the problem: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와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Psalm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 46:1

If you are in trouble, God is right there with you in trouble: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있는 바로 그대 옆에 계십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Psalm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 46:1

You know, I like to think of what He has done to convince us of His interest i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확신시키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 couple of years ago or so, there was a girl living down in Florida, eighteen years old. And she was kidnaped.

여러 해 전에 열여덟 살 난 딸이 아버지와 함께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She was carried up into a neighboring state and hidden so that nobody could find her.

다른 주로 딸을 유괴해 가서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추었습니다.

And the people that kidnaped her sent word to her father and said, "Now, we are going to have to have a half million dollars so that you can get your daughter back."

그 딸아이를 유괴한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50만불(약 6억)이 필요한 데 50만불을 주면 딸을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Well, he was a multi-millionaire. That's why they kidnaped the girl.

물론 그 사람은 백만 장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딸을 유괴한 것입니다.

Do you think that girl thought that her father loved her, or do you think she had some doubts about it?

그 딸이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였을까요?

The father paid off and presently he got his girl back. It cost him a half million dollars.

그녀의 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딸을 되찾았습니다. 50만 불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You, girls, if your daddy, or somebody else that loves you, had paid a half million dollars to get you back, paid the ransom, would you begin to wonder whether or not they were interested in you?

여기에 있는 소년 소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귀한에게서 돌려받기 위해 50만 불의 속전을 지불하고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저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일까 하고 의아해 하시겠습니까?

Why, no, you wouldn't. That would settle it, wouldn't it? If you had any doubts before.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혹여나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구심을 품었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Listen, friends, if you have ever had any doubts that God is interested in you, look at Calvary. Look at the cross.

친구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혹시라도 어떤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면 갈바리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The cross is the ladder. It stretches from heaven to earth.

십자가는 사닥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입니다.

And on that cross Jesus hangs the offering for you. He is the bridge.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제물로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리(교량)가 되셨습니다.

*It is over His wounded body that we travel from earth to heaven.
The point is, friends, He has paid the ransom price for you.*

그분의 상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친구들이시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속전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This is how interested He is in you.

이것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Now, when you look at that, can you doubt His interest in you?
Can you doubt His love? Can you doubt His desire to have you with Him?*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분의 마음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Suppose a week after that girl gets home from being kidnaped she meets some of her young friends, and they say, "Mary, my, it is great to have you back. I know your father must certainly be happy to have you back."

그 딸이 유괴범에게서 풀려난 지 얼마 후에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 너의 부모님이 너를 다시 보게 되어 무척 기쁘시겠구나!”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Suppose she should say, "Well, sometimes I wonder. I just wonder whether or not he wants me around."

혹 그녀가 “글쎄 말이야. 그런데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부모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단 말이야!”라고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Would she say that? Why, of course not. Her father just a week before paid a half million dollars to get her back.

그 딸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얼마 전에 딸을 찾기 위해 50만불(6억원)을 지불했습니다.

Listen, friends, how much has Jesus paid to get you? Did He pay anything? Did it cost Him anything?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의 속전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Why, a million times more than all the money in the world, friends - His life; His infinite life.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보다 몇 백만 배 이상 되는 것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목숨,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So when you look at the cross, you see how much God values you.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You see how anxious He is for you to climb this ladder with Him.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그분과 함께 이 사닥다리를 오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d listen. He doesn't just stand at the top of the ladder and

says, “Come up here and I will be glad to see you.”

잘 들으십시오. 그분은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서서 “올라오너라. 네가 올라오면 내가 기쁘게 너를 영접하리라.”고 하시며 서계시지 않습니까?

No, no. The ladder, which is Christ Himself, comes right down where you are.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Jesus, on the cross, took your sin. He suffered.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취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You may say, “Oh, my, I’m not worthy.”

혹자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Of course you are not.

물론 여러분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You may say, “I don’t deserve anything good.”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요.”라고 할지 모릅니다.

No, you don’t. I don’t either.

물론 그렇지 않지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Friends, I am so glad I don’t have to get what I deserv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응당 받아야 할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I get what He deserves. It is a lot better.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훨씬 좋은 대우이지요.

And think of it. When you and I come to Jesus, no sooner do we approach the mercy seat than we become the clients of the great Advocate.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 예수님의 고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That means He is our lawyer. He is our attorney.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리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He represents us just the moment we come to Him - not after we have done this, that, and the other thing, but just the moment we come to Him.

우리가 그분에게 오는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고치고 온 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분께 나오는 순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I just hope, friends, this very opening meeting, I hope we can get this very simply.

내가 바라기는 이번 집회를 여는 이 첫 시간에 이러한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It isn't after you get to the top of the ladder that you get some blessing.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은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오른 후부터가 아닙니다.

There is all you can hold right here at the bottom of the ladder.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맨 밑에 있습니다.

Of course, with every step we take, our capacity enlarges, we can hold more.

물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커지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If we start with a teaspoon, pretty soon we can hold a cup, and finally a bucket.

처음에는 찻숟가락부터 시작했다면, 이내 한 컵이 되고 마지막에 가서 더욱 큰 그릇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And then it just comes in barrels, friends.

그리고 다시 항아리까지 차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But listen. Right where you are, you start and you can have all the blessings you can hold.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Do you know what I want you to do? Of course, you will have to decide whether or not you do it.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I hope after this meeting, sometime between now and when you close your eyes in sleep tonight, that every one of you will find a little time to be alone with Jesus.

이 집회가 끝난 후 지금부터 잠들기 전 언제든지 여러분과 예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Will you do that? Be all alone with Jesus.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말고 여러분과 예수님 단 둘이서만 말입니다.

Now, some of you have already known that Jesus thought so much of you.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Some of you may be glimpsing it for the first time, that God thinks so much of you.

혹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맛보기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iends.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folks that have known this all your life, listen, it is better than you thought it was.

이러한 사실을 일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He thinks a lot more of you than you knew about.

그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He is more interested in you than you had any idea.

그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보다 그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He has paid a lot more for you than you knew about.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If you thought somebody had paid a thousand dollars to get you out of jail, and later you found out that it had cost them ten thousand dollars instead, you would say, “My, they really did think a lot of me, didn’t they?”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속전으로 1000불(약 120만원)을 주고 빼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10,000불(약 1천2백만원)이나 주고 빼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 정말 나를 위해 엄청난 값을 치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Oh, folks, every time we come to Calvary with open hearts, and try to understand what He did there for us, we know that it was a bigger ransom, a greater price than we had known before.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갈바리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And all that means He thinks more of us than we knew before.

그리고 이 모든 의미는 우리가 전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들에 대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some things you can exaggerate.

여러분들이 과대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This you can’t. There is no way of getting it too big.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과장될 수 없는 일입니다.

God thinks a million times more of you than you have any idea.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관념보다 수 백 만 배 이상으로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Oh, why not get all you can hold?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And let me tell you why. It isn't just so you and I can feel better.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It isn't just so you and I can get rid of sin. It is to make Him happy.

여러분과 나의 죄만을 없애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Listen, don't you know that father was happy when he got his girl back? Don't you know He was?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유괴된 딸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행복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Sure. Why? He liked her. He must have loved her to pay that much. He must have.

물론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만한 돈을 지불할 만큼 그녀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을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And so, friend, when you and I come to Jesus, come right here to the ladder and take that first step with Him, it makes Him so glad.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 나올 때, 사닥다리가 있는 곳에 와서 그분과 함께 그 첫 계단을 밟는 순간 그분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So tonight, don't think so much of making yourself happy.

Think of making Him happy.

그러므로 오늘 저녁 여러분만을 기쁘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Kneel down, as I say, all alone with Him in your room or out somewhere over the campus.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대의 방이나 이곳 캠퍼스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과 예수님 단 둘이만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You boys, maybe in the barn, somewhere. Find a place where you can be alone with God this evening, somewhere after this meeting closes, before you go to bed.

여러분의 방이든 숲 속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소년들은 혹 창고 옆이라도 좋습니다. 이 집회가 마친 후, 잠들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님과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And talk to Jesus and tell him, "Dear Lord, I am so glad you think that much of me. And I am coming to You."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께서서 나를 그토록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하십시오.

And if it is the first step, "Lord help me to take the first step."

혹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처음 하는 일이라면, "첫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고,

If you have already taken several steps, "Lord help me to take another step."

혹 이미 이런 일을 해 오신 분들이라면, "주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You say, "What step shall I take?"

혹 “어떤 계단을 올라야 합니까?”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sk Him, friends. He is the ladder. He knows where you are on it.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I don't and you don't. But if you will ask Him, He will help you to know.

내 자신이나 여러분 자신이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If He has done anything for you, those are the steps He has helped you climb.

혹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떤 일인가를 해주셨다면, 바로 그 계단이야말로 그분께서 그대로 하여금 오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But oh, He has some more.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He wants to bring you closer to His Father above.

그분은 여러분들을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이끌고자 하십니다.

Now, listen, this meeting is called the week of prayer.

잘 들으십시오. 이번 집회를 기도주일 집회라고 부릅니다.

That doesn't mean just a week of meetings.

그 의미는 그저 모임을 갖는 주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I don't think we are going to burden you with meetings.

나는 여러분들이 집회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We are going to have some meetings, as Brother Jensen has said, but oh, I want you to have an experience in prayer with God.

젠슨 형제가 언급한 것처럼 집회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경험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Because listen, God can do something for you that I can't do for you.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part of what He wants to do for you will never be done in a meeting like this.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If all the blessing you get this week is from the meetings, well, of course, you will get some.

여러분들이 집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신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But if you really want the thing to work, - I was about to say, will you do as I say?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역사하는 어떤 일을 원한다면, 내가 지금 곧 말하고자 하는 일을 해보겠습니까?

You will allow me to put it that way - in other words, will you follow the recipe?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하라는 레시피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Will you follow the directions?

내가 하라고 하는 지시를 따라 해보겠습니까?

Girls, when you are cooking, quite often you have a cookbook.

소녀들이 요리를 할 때 흔히 여러분이 요리책을 이용합니다.

And it tells you to take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is in certain amounts and put them together, doesn't it? Yes.

요리책을 보면 이것은 얼마큼, 저것은 얼마큼을 넣으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Or do you just throw the book away and guess at it?

아니면 요리책을 내던져 버리고 적당히 추측하며 해봅니까?

And you fellows, is there a recipe when you mix concrete?

그리고 여기 있는 소년 여러분, 시멘트를 섞어서 반죽을 할 때 사용하는 레시피가 있습니까?

Does it make any difference whether or not you put any sand in it? Yes.

모래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Some of you boys were pounding concrete the other day, weren't you?

며칠 전에 몇 소년들이 콘크리트를 깨는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Somebody told me that what had happened was it wasn't the right mixture when it was put in. Is that right? Well, there you see.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던데, 콘크리트를 했을 때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The point is, recipes are to follow.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리법(레시피)은 따라서 하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Directions are to follow.

지시사항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And if you want an experience with God that will make you happy, and most of all, make Him happy, follow the directions.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경험을 하나님과 가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지시사항을 따라 하십시오.

Go to God, and by faith see that ladder let down from heaven for you, and thank God.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늘에서 그대 앞에 내려놓은 사닥다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Tell Him personally.

개인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Open your lips and talk to Him.

그대의 입술을 열어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You may whisper if other people are too close around.

혹 그대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이십시오.

But don't just think it, talk it.

그러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말을 하십시오.

When Jacob awoke from this dream where he had seen that wonderful ladder, he started talking to God.

야곱이 놀라운 사닥다리를 보는 꿈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I want you to talk to God. If you have already been doing it, tell Him again.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게 해 왔다면 다시 그렇게 하십시오.

If you haven't, start tonight.

아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저녁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Kneel down, open your lips, talk to God.

무릎 꿇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해보십시오.

And ask God to do something for you that will make Him happy.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He delights to give.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He just loves to fill your heart with victory over sin.

하나님께서 그대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If you are having some problem, talk to Him about it.

혹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But while you talk to Him about your problem, will you talk to Him about His problem?

그대가 그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Did you know God had a problem?

여러분은 하나님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Well, God's problem, friends, is getting sin out of the lives of people, so they can know how much He loves them.

글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And so, if you will talk to God about His problem and say, "Lord, I understand you love me more than I knew you did.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 주님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Will you please reveal that love to me?

그러한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Will you please help me to know and feel that love?

그러한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Not just for my sake, but for Your sake.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Will you do that?" He will.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정녕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Then when we meet together tomorrow we will have another

wonderful time.

그렇게 한 후 내일 다시 만날 때 또 다른 놀라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Shall we kneel together in prayer.

무릎 꿇고 기도하실까요?

Heavenly Father, we are so glad for the ladder let down from heaven to earth.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 땅에까지 맞닿은 사닥다리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We could never climb there or fly there.

우리 스스로 그곳에 올라갈 수도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There is no way we could get there.

우리가 그곳에 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곤 없습니다.

The ladder must be let dow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And oh, we thank Thee that that ladder is Jesus.

그리고 오- 하나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And as we see His cross uplifted, we know He has shown us how much He thinks of us, to pay our ransom, to die for our sins, to give His life that we might be forgiven and cleansed.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자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And now bless each one of us kneeling here as we come to Thee,

either for the first time or the hundredth time, Lord.

이제 여기 당신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사닥다리 앞에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수 없이 많이 왔던 사람이든지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Just now we are coming to the ladder.

이제서야 우리가 사닥다리 앞에 왔습니다.

Just now we are asking Thee to help us take that next step, whether it is the first step or the tenth step or the hundredth step.

이제서야 다음 계단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첫 계단이든지 아니면 열 번째 또는 백 번째 계단이든지 다음 계단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We want to take another step with Thee this week.

우리는 이번 주에 주님과 함께 다른 계단을 밟아 올라가고자 합니다.

We want to take another step tonight, Lord.

주님이시여, 오늘 밤에 또 다른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We pray you will help everyone of us in the quiet time we are going to have with Thee this evening.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And we thank Thee.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Now, just now, where we are kneeling, if you would like to let Jesus know that you appreciate His love and that you want to

take another step with Him on the ladder, would you just raise your hand where you are kneeling? Will you do that, friends? Thank the Lord. He sees.

이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다음 계단을 밟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심을 표시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보고 계십니다.

Dear Lord, I know you see all these hands and You grasp our hand and You help us to climb up the ladder, and we thank Thee in Jesus' wonderful name. Amen.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이 저들의 손을 보시며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사닥다리를 올라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나는 그 낡고 거치른 십자가를 사랑하렵니다.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나의 승리의 면류관을 내려놓을 때까지.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나는 낡고 거치른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And exchange it some day for a crown. Amen.

그리고 언젠가 십자가와 면류관과 막 바꾸겠습니다. 아멘

Be seated. Just before we dismiss, I want to say a word to all, visitors, students, faculty, all of us.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장소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방문자이든, 학

생들이든 아니면 이곳 직원이든 간에 몇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Watch for the chances to be alone with God these next few days.
Watch for the chances.

앞으로 몇 날 동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회들을 찾으십시오.

I have mentioned finding a time between now and when you go to bed tonight.

오늘 이 시간 후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ut tomorrow watch for the chances.

그러나 내일도 이러한 기회를 찾으십시오.

If He does, watch for that chance to be alone. The Lord may wake you up a little extra early in the morning.

그분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분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혹 주님께서 조금 일찍 일어나도록 하실지도 모릅니다.

Talk with Him. Through the day, any chance you get to be alone with Him, watch for that chance and talk to Him and let Him talk to you.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낮 시간 동안에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You are dismissed. God bless you.

이제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 You Were Made For God

2.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음

Study given by W. D. Frazee - April 25, 1972

1972년 4월 25일 W. D. 프레이지 목사 설교

When I went to worship and breakfast with your principal, I found this little plaything.

내가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 댁에 가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는 중에 작은 장난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Of course, he has a couple of little boys besides a big one, and apparently the little ones enjoy this, but it took my eye.

교장 선생님 집에 큰아들 말고 작은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내 시선을 끌었습니다.

It is something like a sphere, hollow.

그것은 마치 원과 같은 모양으로 속이 빈 것이었습니다.

Inside are all manner of geometric objects.

그 안에 여러 모양으로 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The thing that attracted my attention was the puzzle part of finding one of them and putting it in, like that. That one is in.

내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여러 모양들을 한데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각기 제자리를 찾아 끼어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Well, here is a star. Let's see.

여기 별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It won't go in there. It won't go in there. It won't go in there, but here, notice how it fits, just like that.

이 별 모양은 이곳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으니 딱 맞습니다.

Do you know why it fits? Why? It was planned that way. It was made to fit.

여러분은 왜 이 별 모양이 여기에 맞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맞도록 고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Well, let's see, here is a five sided thing.

자- 여기 보니 오각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Now, there is a six sided one here someplace, four sided, three sided.

또 여기에 육각형,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Now this won't fit any of those, can't get it in. There it is. See, and it goes like that.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네요. 여기가 맞군요, 보십시오. 이렇게 맞습니다.

And here is a triangle.

자- 여기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Well, it is a fact it won't go in a single one of these others. But look, see how nice it goes in there?

그런데 이 모든 그림들이 다른 곳에는 맞지 않고 꼭 제자리에 들어가야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저렇게 꼭 맞는지 보십시오.

And so with the square. Let's see, where is the square? I know it's here, somewhere.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줄 아는데요.

Ah, yes. Here it is. See, there it goes. So it is with this fellow there. He goes in like that.

아-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십시오. 딱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이것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And look at this one, this little cross.

자- 여기 이것을 좀 보십시오. 작은 십자가입니다.

We would call it a red cross if it were red.

그 색상이 붉다면 붉은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See, just like that.

보십시오. 꼭 그렇게 됩니다.

Why does it go in? It fits.

왜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딱 맞습니다.

And why does it fit? It was made to fit.

왜 그렇게 딱 맞습니까? 딱 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Look at that one. And here is a six sided one. Where are you?

여기 이것을 보십시오. 육면체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There we are. There, it is in.

여기 있군요. 여기에 딱 맞습니다.

The only one left is the circle.

마지막 남은 것은 원형으로 된 것입니다.

And there is not a one of these wholes it can go in except the one it was made for. There it is.

여기에 있는 구멍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것 외에는 말입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And as I looked at that before breakfast this morning, I thought, "I want that." So, I asked to borrow it.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 먹기 전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필요한 것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Well, I am not going to take it home, although I may get me one, sometime.

물론 우리 집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언젠가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Can you imagine what I want with that? Oh, I want everybody here tonight to realize that there is one place that you fit.

여러분은 내가 왜 이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느 자리엔가 꼭 맞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And that is the only place that you can really fit. And nobody in all this world can fit that place, but you.

여러분만이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오로지 당신이 앉아야만,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You notice that everyone of these ten objects has just one place it can get in.

우리가 조금 전에 맞추어 봤던 열 개의 각기 다른 모양의 그림들이 꼭 제자리에 놓아야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And there isn't a one of the other nine that can get in there.

아홉개 중에 어느 것이나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The fellow that put this together had no idea what I was going to do with it.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은 내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But this is the greatest use that little sphere was ever put to, right here, tonight.

그러나 여기 작은 원 모양을 한 퍼즐이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Somebody here tonight, is going to get a view of yourself and God, such as you never had before.

오늘 저녁 어떤 분은 하나님과 그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It could be you. You see, to most people, friends, religion is largely a matter of how God and the Bible and all these things affect

them.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귀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책이 저들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들만을 생각합니다.

That's very natural. We tend to view things in that way.

그것은 물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요 견해입니다.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봅니다.

For example, suppose I am planning to make a garden, or go on a picnic, or do something else that needs sunny weather or at least the rain would interfere with.

그 한 예로 내가 밭에 무엇인가를 심으려고 한다든지, 소풍을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상황에 알맞은 날씨를 기대하게 됩니다. 최소한 비가 와서 일이 망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And if it rains, then what? How do I feel? I say, "Oh, my, isn't that too bad?"

만약 비가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억세게 재수가 없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But you know, if I had my garden planted and I need rain badly, and then it rains, what do I say? "Oh, isn't that wonderful? That is a providence."

그러나 만약 밭에 이미 씨를 뿌린 후라면 “얼마나 기막힌 날인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할 것입니다.

Now, it is the same rain. But it is just a question of how it affects me. You see?

그런데 내린 비는 똑같은 비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And so it is with much of life.

이것이 어찌면 우리의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So when it comes to religion, most people are interested in how religion will affect them.

종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가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Well, you say, "Sure, isn't that what it is supposed to do?"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하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Well, I want to give you a different view of it, tonight, friends.

그러나 오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나는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want you to think of how it affects God.

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You see, there are two parts to this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에 있어서 쌍방 관계가 있습니다.

One is you, and the other is God.

그 하나는 여러분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How it affects you is one thing.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그 한 국면입니다.

I want you to think of how it affects God.

나는 오늘 이 저녁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Let's go to Isaiah 43:21 and we will see something interesting there. You will see what you were made for: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지음 받았는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This people have I formed for myself” Isaiah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사 43:21

Everyone of these little objects that went into the little hollow sphere was formed, and each one different.

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원형으로 된 이 퍼즐에 있는 한 자리에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Now, God formed you. Did He make you different? Did He?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르게 지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Did you ever see anybody just like you? Did you?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I have a couple of sisters, they are twins, identical twins. But, I can always tell them apart. They are not the same.

저에게 누이들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매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They are very much alike, and yet quite different. Maybe you know some twins like that.

어떤 면으로 아주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

는 어떤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그럴 것입니다.

My point is, friends, there are no duplicate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저들이 복사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nd why is that? Well, I will tell you why, friends.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지요.

You were formed to fit a certain need, to fill a certain need.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필요를 위해, 어떤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지은바 되었습니다.

And God only needed one like you.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딱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That is all He needed, so that is why He only made one.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그 전부였고, 그 목적을 위해 그대를 지으셨습니다.

If He had needed two like you, He would have made somebody identical, your duplicate.

혹 당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면 당신과 똑같은 복사판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But He only needed one.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 한 사람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But now, if He did need one, and you are the only one that fills that need, do you see that you become quite valuable?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고, 그대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대의 가치야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I have a pencil here in my pocket. I have had it for several years.

내 주머니에 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간직해 온 연필입니다.

I value it just because it is an old friend.

오래된 연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But I want to tell you if I would lose it tonight, I wouldn't cry about it.

그러나 혹 오늘 저녁에 이 연필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Why? Well, I can go downtown and buy another one. Can't I? Yes.

왜냐고요? 가게에 가서 또 하나 사면 되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There are duplicates of this pencil. It isn't a rare object.

이 연필과 똑같은 연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연필이 그리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You are. You are rare. God never made anybody else like you.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대 한 사람은 아주 특별히 귀한 존재요, 이 세상에 그대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시다.

Sometimes when I tell people that, they say, "Yes. It is a good thing." Well, it is a good thing.

내가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런 사실에 대해 말하면, "아- 그렇군요. 좋은 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것 참 좋은 일이라구요.

Your value would shrink at once.

여러분의 가치가 한 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You see, if there were two people the same, then your value would be only half of what it is.

만약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면 그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If there were three, it would be only a third.

만약 세 사람이 있다면 그 가치는 1/3로 줄어듭니다.

If there were a hundred, you can see you could be lost and ninety-nine other people could step up and take your place.

만약 당신과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당신은 잃어버린바 될 수 있고 나머지 99명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당신이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But, my dear friend, there is nobody that can fill your place.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련해 놓은 그 자리를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And that means, you see, that there is a special place that you were made to fill.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시여,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Do you remember that oft quoted statement from Christ's Object Lessons? It is in Messages to Young People, too:

실물교훈에서 인용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청년들에게 보내는 기별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Not more surely is there a place prepared for us in the heavenly mansions than is the special place designated on earth where we are to work for God” Christ's Object Lessons, page 327.

“하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실물 327

This leads us away from all imagination.

이 말씀은 모든 상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It isn't a matter of discussing whether all of us are supposed to be preachers or we are all supposed to be nurses or doctors or farmers or bookkeepers, foreign missionaries or home missionaries, or conference workers or self-supporting workers, or teachers, or you name it. No, no.

우리 모두가 전도자들이 되거나 의사, 간호사, 농부, 회계사, 외방 선교사나 국내 선교사, 기관 사역자나 아니면 자급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my dear friends: There is a special place God has planned for you to fill.

가장 중요한 사실은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어떤 곳에서 종사하든지 그대 자신이 차지해야 할 아주 특별한 장소, 그대만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In fact, He made you to fill it.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금 그 자리를 채우도록 그대를 지으셨습니다.

And what other people are to do, and what other people do, that isn't the point at all.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If all your classmates are going in a certain direction, that doesn't mean that that is the direction for you to go.

그대와 함께 공부하던 모든 친구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간다고 해서 그대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Joseph was the only one of his brothers to become prime minister of Egypt.

요셉의 형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Esther was the only one of her family to become a queen.

에스더의 가정에서 에스더만 왕후가 되었습니다.

John the Baptist was the only one of a long line, who was to be the messenger to prepare the people for the Messiah.

침례 요한의 길고 긴 가계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지만 주의 오심을 전파하는 기별자가 된 사람은 침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He was born for that job, a special boy to do a special work.

그는 그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아주 특별히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You have been born for a special work.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But my subject tonight is not so much the work that you are to do here on earth.

내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That is interesting and that is wonderful, and we could spend an hour on that. We might, before we get through with this series.

그것 또한 흥미 있는 일이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 집회 기간이 마치기 전에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But tonight, I have something far more wonderful than that.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기별입니다.

You not only are planned to do a special work here on earth, you were made to fill a special place in the heart of God.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도록 지은바 된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지은바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ou were planned by God to fill a certain need in His heart, His mind, His soul.

하나님의 마음과 영과 혼속에 있는 그분의 필요(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Oh,” you say, “I don’t understand what you are talking about.”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Well, let me study it with you a little.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The Bible presents God under various names and various illustrations - the love of a father, the love of a mother.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등등으로 묘사합니다.

He tells us, “When ye pray say,” what? “Our Father.”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였고,

And he compares His love to the love of a mother: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As one whom his mother comforteth, so will I comfort you”
Isaiah 66:13.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사 66:13)

He speaks of Himself as our brother.

또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형제로 소개하십니다.

And again:

다시 성경은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Isaiah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사 9:6)

In these various relationships He is seeking to teach us not merely what He is to us, but what we are to Him.

우리가 본 여러 성경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It is hard, probably, for us to realize that God might actually need us, but He does, friends. He needs us.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What would God need me for?”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실까요?”

Well, I will tell you what He needs me for, friends.

지금부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친구들이시여!

He needs me for fellowship with Him.

그분은 친교를 나누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He doesn't need me to feed Him bread, but He does need me to feed Him love, sympathy, understanding. He needs me to talk with Him.

밥상을 차려오라고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요, 그분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이해하게 하는데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 위한 말벗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Oh," you say, "He has lots of people to talk with."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Yes, but He needs me. He likes to have me around.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He likes to counsel with me. He is interested in what I think about things.

하나님은 나와 상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He likes to know, as I see the flowers and the birds and the trees and the rocks and the mountains, whether or not I like them; whether they appeal to me.

내가 꽃과 새와 나무와 바위와 산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저들

이 나에게 어떤 기별을 전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십니다.

You see, He made them for that purpose.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All these things that He has made of beauty and wonder, are all for the purpose of interesting me, and He hopes that I will respond and talk to Him about them.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신비스럽게 만드시고, 나에게 흥미거리가 되게하시려고 만드셨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When I read the Bible, He is interested in knowing what I think about it.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며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He is interested in knowing whether I understand what He has written.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If I have some questions, He is interested in those questions.

내가 혹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십니다.

He sends angels, He sends the Holy Spirit to try to help me to understand, because He loves me.

그분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시는 데, 이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Oh,” somebody says, “Yes, I know God loves us, but not that way, surely.”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Yes, that way.

예, 그렇습니다.

You see, many people’s idea, friends, of the love of God, is something like thi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Here is a dog out here that got hurt and I feel sorry for it.

여기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픕니다.

And so, I pick it up and try to do something for it, and that is the way God is with people here in this world.

내가 그 개를 보는 순간 측은한 맘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내가 개를 측은히 여기고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는 측은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Well, we would call that pity, wouldn’t we? Yes, God is pitiful. That is not what I am talking about.

우리는 이런 것을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동정적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Jesus told a story about a good Samaritan that found a man wounded by the wayside.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길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He took pity on him, picked him up, bound up his wounds, carried him on his animal to the inn, took care of him, and left money for further care.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부추겨 일으켜 상처를 싸매주고 그의 짐승에 태워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고, 그를 계속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주막집 주인에게 돈까지 남겨두고 간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But, friends, that man never saw him again.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 사람은 그를 도와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He was kind to him.

그는 그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He was merciful.

그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He was pitiful, but there was not some great friendship developed.

그는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친구 관계는 계발되지 못했습니다.

And, like the man beaten and wounded by the wayside, you and I have needed God's mercy, coming to us and picking us up and binding us up and doing something for us.

길에서 얻어맞아 상처 난 그 사람처럼, 여러분과 내 자신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이 필요합니다.

But that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story.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It is more than pity that moves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동정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It is more than mercy and that kind of love.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친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God wants you and me to be with Him now and forever.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물론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you to be His friend.

하나님은 그대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Oh," you say "He has lots of friends."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친구가 많지 않습니까?" 하실지 모릅니다.

But nobody like you.

그러나 그대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I was trying to help some children to understand this, and I said something to them.

내가 몇 어린아이들에게 이 점에 대해 이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Maybe I can ask these children here tonight.

여기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I see several children. How many of you, boys and girls here

tonight, have some pets at home, one or more?

여기 몇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애완동물 한 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May I see your hands? Oh, look at that! All the pets.

여기에 있는 어린 친구들 가운데 손을 들어보실래요? 아- 저 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many of you have a doggy? May I see your hands?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Look at that!

저 손들을 좀 보십시오.

How many of you have a kitty? May I see your hands? Look at that!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아- 저것 좀 보십시오.

Now, how many of you have a doggy and a kitty both? Let me see. My, my!

강아지와 고양이 둘 다 키우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손들어 보실래요? 와 - 대단하군요.

Now, my question.

자- 질문을 드립니다.

How many doggies would you have to have before you would just a soon not have any kitty?

불원한 장래에 고양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고양이 대신 강아지 몇 마리를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Would you be willing to give up the kitty if you could have another doggy?

강아지 한 마리를 더 가질 수 있다면 고양이를 포기하겠습니까?

How about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You mean you want a doggy and a kitty? They are quite different, aren't they?

아니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가지기를 원합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는 똑 같은 동물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Now, tell me something. If one little boy or one little girl in this world has room enough in the heart for a doggy and a kitty, and neither one can take the place of the other, what about the infinite God?

자-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어린 소녀나 소년이 저들의 마음속에 강아지도 고양이도 애완동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고양이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강아지가, 강아지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고양이가 차지할 수 없다면, 무한하신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Do you begin to catch an idea that He might have a lot of friends and still want you?

하나님이 이미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가 갑니까?

Now, listen. Let's come to the heart of it.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해 봅시다.

If this isn't so, what I am studying with you, Calvary is all a big mistake.

만약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갈바리는 커다란 실수의 소산일 것입니다.

What did He die for? Just to get a planet? No, friends,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 땅덩어리를 구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친구들이시여!

He could make another one, just like that.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땅덩어리 하나 다시 만드시는 것 간단합니다.

Just to get a certain number of intelligent beings? Why, no, friends, He can create angels, other worlds, people.

아니면 똑똑한 사람 몇 사람만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He wanted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And He tells us that He would have come and gone through all the agony of Calvary just to get you. Is that right?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Well, if it is so, friends,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that He wanted very much about you.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를 그토록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If it isn't so, what did He waste His life for?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Why did He die that cruel death?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잔인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He didn't have to come.

이 땅에 꼭 오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And when He came, He could have gone back to the Father at any time.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든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Oh, why did He do it?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I say, friends, the reason He came for you is because He needed you in His mind and heart and soul.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He wanted you, and nobody could take your place.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시며, 그 자리를 다른 어떤 사람이 대신 채울 수 없습니다.

There is nobody else that can fill that particular spot in His mind and heart, that you were made to fill.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특별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우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This isn't just something to write poetry about, or sing a song about, although it is worthy of the grandest poem and the most beautiful song ever written, friends.

이러한 사실은 시로 또는 노랫말로 적고 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친

구 여러분들이시여,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시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주제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This is the grandest theme of the ages.

또한 이 주제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We will be entering into it a million, million years from now, more and more fully.

우리가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지금부터 수백만 년을 보내게 될 것이요, 더욱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This is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This is what makes life too precious to fritter away or to throw away.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팽개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Oh, think of it!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The God that made these mountains and hung the stars in space wants me for His friend.

산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우주에 매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친구로 삼고 싶어하십니다.

He wants me for fellowship with Him.

그분은 나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me with Him in eternity. He wants me now.

하나님은 나와 영원을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Do you know what friends like to do? They like to talk.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무엇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Oh, I don't mean just chatter. They like to commune.

그냥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They like to share.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어 가지고자 합니다.

Sometimes real close friends can just sit together for awhile without saying a word, but there is communication. They are sharing.

어떤 때는 진정한 친구라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있기만 해도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은 함께 나눕니다.

This is the way God wants to be with you.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고자 하십니다.

You need it.

여러분도 그런 친구 관계가 필요합니다.

But, He needs it.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친구 관계를 필요로 하십니다.

He needs it? Yes, He needs it.

하나님이 그런 친구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With you? Exactly.

여러분하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And no matter how much He gets from others, there is a hunger in His heart for you.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하고 어떠한 친교의 정을 나누셨든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대와의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갈망이 남아있습니다.

There is a thirst in His soul for your love, your sympathy, your understanding.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대의 사랑과 동정과 이해를 갈망하는 허기와 갈증이 있습니다.

Oh, my friends, if a man once understands this, nothing else matters.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사람이 만약 이러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matters: How can I please the One that needs me that way?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그토록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How can I fill that need? How can I please Him?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You see, this lifts us clear above the necessity of trying to keep up with others in anything.

여러분들이시여,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갈망을 초월하도록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We don't have to look like somebody else, or sing like somebody else, or act like somebody else, or pray like somebody else, or preach like somebody else, or do anything like somebody else.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어떤 사람처럼 노래를 하려고, 누구처럼 기도하려고, 누구처럼 설교하려고, 누구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Why? Why, dear friends, there is only one like you.

사랑하는 친구들이시여, 왜 그러냐구요? 당신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nd that place in God's heart that you were made to fill, will you fill it?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채우도록 만들어진 그대, 그 자리를 채워드리겠습니까?

Now, it is true sometimes we have gotten out of shape.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We need to be trued up.

우리는 똑바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be pruned or planed or polished, something, in order that we may fit.

그 자리에 꼭 맞게 하기 위해 결가지가 잘리고, 면들이 편편하게 되어야 하고, 번쩍거리도록 광을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God never makes a single change in your life, if you let Him run your life, except what brings you back to your true self.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맡긴다면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하신 일 외에는 결코 그 어떤 부분도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May I repeat that? God never makes a change in your life in any point, except to bring you back to your true self.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당신 모습 그대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어떤 구조변경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May I illustrate? Down at Wildwood where I spend much of my time, we have a sanitarium.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까요? 내가 이곳 와일드우드라는 곳에 있는 요양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We have a health conditioning program.

여기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ome there for various purposes.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ut I am thinking just now of people who are overweight.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만증으로 와일드우드 요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e had a gentlemen come down from a distant state some months ago, and he weighed two hundred and sixty pounds.

얼마 전에 상당히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사람이 비만증으로 인해 이곳을 찾아 오게 되었는데 260 파운드(118kg) 나가는 사람입니다.

He had some trouble in his chest, heart or lungs.

가슴에 문제가 있었는데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It just made him puff to walk up just a little hill.

약간만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도 숨이 모자라 헐떡거리게 했습니다.

Well, that is quite a load to carry, two hundred sixty pounds.

118kg의 체중을 움직이는데 그것은 상당한 무게였습니다.

Well, the doctor put him on a health conditioning program, and after a number of weeks of walking out on the trails with the nature guides, and the treatments and the diet and the lectures, and all the rest, he went home feeling so much better.

의사가 그 분을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했고, 산책을 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음식을 조절하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집에 왔습니다.

He had decided that he wouldn't go home until he got under two hundred pounds.

그는 체중이 200파운드(90kg)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집에 결코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So he got under two hundred, and he went home to keep on the program and he will come down in weight.

그가 원하는 대로 200파운드 밑으로 내려갔고, 집에 가서도 동일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하므로 체중은 낮아질 것이었습니다.

My point is this. Some changes were made in his profile, but they were not changes made to make him like somebody else.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삶의 어떤 부분은 변화되었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바꾸고 모양을 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They were just changes made to help bring him to the pattern

that he was made for, and made by.

그러한 변화들은 그가 만들어진 원형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변화였습니다.

Do you see what I mean? Now, it is true he will look more like some other people when he gets to normal, but don't miss the point.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가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되바뀌면 혹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That is not the reason for it.

그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It is to get him back to his proper pattern, for him.

그를 위해 그의 적절한 원형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He feels so much better already.

이미 그는 더 나아진 것을 느낍니다.

Wouldn't you feel better, sixty-two pounds gone? Wouldn't you, if you were that heavy?

여러분이 이미 60파운드(27kg)나 줄었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과체중이었다면 말입니다.

Some people, when they come, need to have some pounds added.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체중이 좀 늘어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Not so their friends will say, "Well, you look more like us now." No, no.

그의 친구들이 "살이 좀 붙으니까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는구나!"라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But so they get to be the pattern they were made by and made for.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의도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Do you see? And I have used that physical illustration just as an illustration.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몸에 대해 예를 들었습니다.

So with everything about you. You know, friends, we think differently about things.

여러분의 몸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The work of the devil is to try to destroy individual identity.

마귀는 우리의 개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He is getting the whole world ready for the mark of the what? The beast.

그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어떤 표를 받게 하려고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He is trying to make everybody think alike. And if he can't make them think alike, he is going to put it in their hand and say, "You have to act alike, whether or not you think alike."

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생각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사람들의 손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써

놓을 것입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iends. Don't miss this!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If in your heart and mind there is the least tendency to try to make other people like ourselves, we are just heading for the mark of the beast. That's all.

여러분들의 마음 어디엔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God has made you for Himself.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And because He is infinite, He has made each one by a different pattern.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We are all to be like Him.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But since He is infinite, that means without end of patterns, He can make each one by a different pattern and yet each one be like Him. Isn't that wonderful?

그분께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실 수 있는 형태에 끝이 없으며,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분처럼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When you see Jesus, you see Him from a little different angle

than I do.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You are to reflect what you se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본 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And don't worry if somebody else sees Him from a little different angle. Leave it to God.

혹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안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He will work it out, all right. It will come out all right, no problem at all.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될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But oh, remember, you have the joy of satisfying the heart of God by being the man, the woman, the boy, or the girl that He made you to be.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모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여러분이 여러분 원래의 모습대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By His precious blood He will take your sins away, which only hinder the matter.

그분의 고귀한 보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의 죄악을 없이하실 것입니다.

By His Holy Spirit He will work in you His precious life, and give you the power to be the man you were meant to be, the woman

you were created to be.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고귀한 삶을 이루실 것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남자와 여자로 변화되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Yes, He will.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He will do it, and in so doing, you will fill a wonderful place in the heart of God.

그 일을 이루실 것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I was telling you last night about that girl that was kidnaped down in Florida.

지난밤에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한 딸이 유괴되었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 few months ago, down in Venezuela, a boy was kidnaped, thirteen years old.

몇 개월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13살 난 소년이 유괴되었습니다.

His father paid nine hundred thousand dollars to get him back.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되찾기 위해 90만 불(약 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That is higher than the ransom I told about last night, isn't it?

그 돈은 어제 밤에 이야기 한 소녀의 속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Nearly a million dollars to get a boy back, a thirteen year old boy.

13살 난 아이를 되찾는데 100만 불(12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습니다.

I was talking to our county judge about it down there.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사는 판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I said, "Judge, do you think he was worth it? Nine hundred thousand dollars for a thirteen year old boy?"

내가 "판사님, 그 아이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까? 13살 난 아이의 몸값이 90만 불이라!"하고 물었습니다.

The judge said, "Well, I suppose he was, to his father."

판사가 말하기를 "최소한 그 아버지에게는 그만큼 가치가 있었겠지요!" 하였습니다.

"Yes," I said, "Judge, you know the ransom that was paid for you, don't you? The ransom of the life of Christ upon the cross."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판사님을 위해 어떤 속전이 지불되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I said, "Judge, were you worth it?"

"판사님,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He bowed his head. He said, "I am afraid not."

머리를 숙이면서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했습니다.

"Oh," I said, "Wait a minute! Does He know values?"

잠깐만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고 계실까요?

Does God know what you are worth?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신단 말입니까?

If He paid that much for you, did He get cheated?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전으로 것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면 어딘가 좀 속은 것이 아닙니까?

If you are not worth what He paid for you, did He make a bad bargain?"

그대가 지닌 가치가 하나님께서 치른 값만큼의 가치가 못 된다면, 거래를 잘못하신 것 아닐까요?

A friend of mine, the other day, was telling me about a car he bought.

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최근에 산 그의 차에 대해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I've forgotten how much he paid for it.

정확하게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I imagine around four thousand dollars.

아마 4천불(약 500만원-그 당시 상당히 많은 액수임) 정도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He didn't think it was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He was about ready to take it back.

다시 물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n fact, he told the people that he got it from the dealer that if they couldn't do better than that, they had better take it back and give him his old one.

실제로 그는 그 자동차를 산 매매상사 사람들에게, 만약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의 옛날 현 차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He didn't think he had gotten his money's worth.

그 차가 그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Oh, my friends, did Jesus make a bad bargain when He paid for you?

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대를 위해 예수님께서 속전을 치르셨을 때 거래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Are you worth what Jesus paid for?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속전을 치르신 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He says you are.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What for?

무엇을 위해서요?

To fill that place in His heart.

예수님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Does He know what He needs?

그분께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을까요?

Why not let Him have what He paid such the price for?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면, 우리 자신을 그분이 소유하도록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I can tell you, my dear friends, there is nobody in all this universe, who would pay for you what He paid for you.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주 가운데 아무도 그대를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만큼 대가를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There is nobody in all this universe, who needs you as bad as He needs you, that wants you as much as He wants you.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대를 원하는 만큼 그대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Nobody, nobody in heaven or earth or hell - nobody that needs you and wants you the way He does.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에서라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And may I tell you, friends, oh, let me tell you this little secret, this big secret.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작은 비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only way that you can be fully satisfied.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Because, listen.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The One that made you to fill a place in His heart that nobody but you can fill, made you with a place in your heart that nobody but He can fill.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대를 만드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대가 그 자리를 채우도록 하신 분께서 그대의 마음속에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채울 수 없는 한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This thing works both ways.

이 원리는 쌍방 모두에게 작용합니다.

And just as He needs you to make Him happy, you need Him to make you happy.

예수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복 하시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The lungs were made for air, and nothing else can satisfy them.

폐는 공기를 흡입하도록 지은바 되었으며, 공기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The stomach was made for food. Nothing else can satisfy it.

위장은 음식을 위해 지은바 되었습니다. 음식 외에 그 어떤 것도 위장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There is a place in your heart that was made for Jesus, and nothing but this fellowship I am studying with you tonight, can satisfy that place i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 어디엔가 한 구석이 있는데 그 자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지은바 된 것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는 주제인 그분과의 친교가 아니고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를 채워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a place in His heart which hungers for you, whether or not you know it.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그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갈망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There is a place in your heart that hungers for Him.

그대의 마음속에도 그분을 갈망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And when the two of you meet in that precious fellowship, oh, friends, then your heart finds what it was made for, and His

heart finds the thing which you were made to fill and satisfy.

여러분과 예수님 둘이 함께 만나 친교를 나눌 때,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어!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진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위해 만들어진 그대를 발견하여 그 자리에 채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love. This is the meaning of Calvary.

이것이 사랑의 정의요, 이것이 갈바리의 의미입니다.

Oh, let's make Him happy by letting Him have what He paid such a great price for.

엄청난 값을 치르고 속전을 치르신 것을 그분이 소유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행복하게 합시다.

What do you say,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Will you do it? Oh, will you do i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When we go from this meeting tonight, go out under the stars, or in your room, or somewhere, and alone with God say, "Oh, my Master, my Creator, my Friend, is this really true?"

오늘 저녁 이 집회장소를 떠나 나가실 때 별빛 아래거나, 여러분의 방 은밀한 골방이나,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과만 있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Am I this important to You? With all those angels up there, would you have left all that?

내가 당신에게 그토록 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천사들을 떠나오실 만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Did you leave all that just to get me? What do you see in me, anyway?"

나를 구하시기 위해 하늘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까? 내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Ah, let Him begin to tell you, friends.

친구들이시여, 그분으로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It will take eternity to tell it, what you mean to Him. It is really true.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데는 어쩌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Did you ever have a wonderful dream at night and wake up and when you were waking up the dream was so good you almost hated to wake up?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흥미진진한 꿈을 꾸다가 깨어났는데 그 꿈이 너무 황홀한 것이어서 깨어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This is just like that, except for one thing. It isn't a dream. It is true. That is right.

한 가지만 빼고서는 아마도 그런 경험과 같을 것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And oh, thank God, it can be more and more, more and more and more.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속되고 계속될 것이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You say, "How can I get into this?"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실

지 모릅니다.

Just tell Him you want to. Tell Him if this is so, nothing else matters.

예수님께 그런 친교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Tell Him if this is so, you are glad and willing to give Him everything.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것 모두를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Tell Him you are willing to be shaped up so you fit for what you were really made for.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에 꼭 들어맞기 위해 다듬고 깎이는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Tell Him you are willing to make the changes in your life that will please Him, because that will be your real self.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고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Tell Him you want to make Him happy. And just you telling Him that, will make Him happy and glad.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만 하는 것 자체로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Shall we kneel together tonight.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Before I pray, we will just take a couple of minutes and each of you, if you would like to, just pray quietly to Him.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시 동안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Forget all about these other people.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의식하지 마십시오.

And just talk to the One that gave His life because He wanted you for His friend.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예수님과만 이야기 하십시오.



3. Satisfying Jesus' Thirst

3. 갈한 예수님의 목을 축여드림

Study given by W. D. Frazee - April 27, 1972

1972년 4월 27일 W. D. 푸레지 목사 설교

“The woman saith unto him,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John 4: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요 4:11

Jesus was seated there at the well, before the woman came.

여인이 우물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서 우물 가까이 앉아계셨습니다.

He was hungry. He was thirsty.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목도 마르셨습니다.

His disciples had gone into the village to buy some food.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And as He sat there by Himself, hungry, weary, for He had been

walking since early morning, thirsty, His thirst was increased by the thought of the cool water there in the well, near and yet inaccessible to Him.

그곳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이른 아침부터 걸어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타습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으나 물을 떠올릴 수 없었기에 더더욱 갈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He who made the great ocean and the springs of water sat there thirsty.

대양을 만드시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서 샘물 곁에 있으시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And then when this woman came and He asked her for a drink, the conversation ensued which led to her accepting the living water that He had come to give.

바로 그런 때에 이 여인이 우물곁에 오자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말미로 시작하며 그녀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셨기에 그녀로 하여금 생수를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But I would like to have us note, this evening, something that concerns our relationship to our God.

그러나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대해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The woman spoke truer than she knew:

그 여인은 그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John 4: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요 4:11

The well that I would like to have you think of, is your heart and mine.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우물은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속에 있는 우물입니다.

The living water that He longs for, is our love, our sympathy, our understanding, our fellowship.

그분이 원하는 생수는 우리의 사랑과 동정과 이해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정입니다.

“Sir, thou hast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John 4: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요 4:11

You mean there are some things that God can't get, unless we give them to Him? That's right.

아니, 우리가 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가져갈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Some years back, I saw an add, around Christmas time.

몇 해 전 일입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 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I have forgotten what it was advertising, but the wording stuck in my mind: “A gift for the man who has everything.”

무엇을 팔기 위해 광고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광고 문구는 제 마음에 신선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을 위한 선물!”

You get the picture?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You are going over your Christmas list, and here is Uncle George.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사서 주어야 할까 하고 고민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큰 아버지 조지(George)가 있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give him?

큰 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Well, he is a multi-millionaire. Anything you could give him he could buy. He already has it.

큰 아버지로 말씀드리자면 억 만 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큰 아버지는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Give him a tie? He has forty already.

넥타이를 사드릴까요? 아마 40개 이상의 타이가 있을 것입니다.

A picture? The walls are just full of pictures.

어떤 풍경화 그림을 사드릴까요? 벽 전체를 값나가는 그림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And so you go on up and down the list. If you were so rich you wanted to give him an automobile, maybe he has six already.

그래서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하고 고민을 해 봅니다. 혹 돈이 많다면 자동차 한 대를 사드릴까 하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최소한 대여섯 대의 자동차가 차고에 있을지 모릅니다.

What will you give Uncle George, anyway? A present for the man who has everything.

억 만 장자이신 큰 아버지에게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선물!”

Well, what will you give Jesus? He has ten million, million times more than Uncle George.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큰 아버지보다 몇 백 만 몇 천 만 배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He owns the universe. Any money you would give Him is such a tiny bit.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 해도 해변 가의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He paves His streets with gold. What can you give Him?

그 분이 사시는 성의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Well, there is one thing you can give Him, friends, and He would rather have it than all the gold, all the silver.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 산의 금은보화보다 바로 이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It is just your love. That is this water.

그것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샘물입니다.

And as cold water is to a thirsty soul, so love is to the thirsty heart.

갈한 영혼에게 냉수 한 그릇이 갈증을 해소해 주듯이 마음이 갈한 영혼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I want to read you a Spirit of Prophecy statement in this chapter, on this encounter at Jacob's well. You will find it in Desire of Ages:

“야곱의 우물가”에서 라는 장에 언급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 191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Our Redeemer thirsts for recognition” Desire of Ages, page 191.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 소망 191
(우리 구주께서는 인정에 굶주려있다.-직역)

He thirsts for what? Recognition.

예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정에 굶주려 있다고요.”

“He hungers for the sympathy and love of those whom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The Desire of Ages, page 191.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주리고 계시다.” 소망 191

Can Jesus be hungry? Oh, yes. He is hungry. Can He be thirsty? Yes. He thirsts.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He hungers for the sympathy and love of those whom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The Desire of Ages, page 191.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주리고 계시다.” 소망 191

You mean that you and I have something that would satisfy His hunger? Indeed.

아니,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That is what this is all about. Jesus is hungry, and you can feed

Him.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프 배를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Jesus is thirsty, and you can give him a drink.

예수님이 목말라하십니다. 여러분이 시원한 냉수를 드려 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But He can't get it, unless you give it to Him.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 한 가질 수 없습니다.

He has nothing to draw with, and the well is deep, deep down in your heart.

예수님에게는 물을 길어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샘은 깊고 깊습니다.

And if He ever gets that water, it will be because you give it to Him.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이 그 물을 드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Will you do i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Will you give Him your love, your sympathy, your understanding?

여러분의 사랑과 동정과 이해를 그분께 드리시겠습니까?

You see, so many people think of coming to Jesus as satisfying their hunger and thirst.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고픈 배와 갈한 목을 축이기 위해 예수님께 오려고 합니다.

And indeed it does. It should. God wants it that way. He says:

또한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him that heareth say, Come. And let him that is athirst come. And whosoever will, let him take the water of life freely” Revelation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 22:17

“Ho, every one that thirsteth, come ye to the waters” Isaiah 55:1.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사 55:1

Yes, friend, coming to Jesus certainly satisfies our hunger and thirst.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허기가 채워지고 갈증이 해결됩니다.

But that is not my subject tonight.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I am talking about satisfying His hunger and thirst.

예수님의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고 해소시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nd would you agree with me that that is more important? Isn't it?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와 동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Isn't it more important to satisfy His hungry heart than just to make you feel good?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보다 예수님의 허기를 채워주고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Oh, He deserves everything, and we deserve nothing.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But the beauty of it is that when you feed Him, He feeds you. When you give Him to drink, He satisfies your thirsty heart.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는 이 주제의 가장 매력적인 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잡수시도록 드리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시원한 냉수를 드리어 마시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Not that it is just a bargain.

어떤 값싼 흥정 거래가 아닙니다.

You do this for me, and I will do this for you.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That isn't the point.

그런 거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This is the only thing that can satisfy, really satisfy your hunger, my friends, to feed Him.

여러분의 허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허기를 채워주고 그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길입니다.

As I indicated last night, we have in our hearts the need to be needed.

어제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God made us that way because He needs us - not to run errands for Him, but to just love Him, to understand Him, to have fellowship with Him, to talk to Him and listen while He talks, to counsel with Him, to comment on what He does.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심부름이나 보내고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의논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에 대해 적절한 평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He likes to know how we like it.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And when we tell Him we love Him, oh, that makes Him so happy.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You see, He has given us so many experiences in this world, to try to help us to understand that.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므로 바로 이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You, parents, aren't you glad when your children tell you they love you? Aren't you? Why, sure. Yes.

부모님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기쁘고말고요.

Of course, you could put it on a tape recorder and play it over.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말을 녹음해 두었다가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hungry for some of that, you could just turn on the tape recorder and hear somebody say, “I love you,” and that would take care of it, wouldn’t it?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 말을 녹음해 둔 테이프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됩니까?

No, it just wouldn’t be quite the same, would it? No. It wouldn’t be the same at all.

글쎄요. 그러나 육성으로 직접 듣는 것과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The response of a loving heart that does not have to respond, the love of a human soul that can choose whether or not it will give love, that, friends, is the priceless gift.

반응을 꼭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반응, 사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들을 선택하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은 친구들이시여,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선물입니다.

This is of such value to God, that life to Him is not worth it, unless He has that.

이런 것이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한 그분에게 그 생명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Calvary.

이것이 갈바리의 의미입니다.

He will risk His life rather than lose your love forever.

여러분들의 사랑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구하려고 하셨습니다.

He will give His life that He may not only pay your debt, cancel your sins, but win back your love.

여러분들의 빚을 갚아주고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하기 위해서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Oh, yes, friends, He has nothing to draw with in your heart.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He can't make you love Him. Love can't be forced.

예수님은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Only by love is love awakened.

사랑은 사랑에 의해 일깨움을 받습니다.

And as He sits there by the well of your heart, thirsty, will you give Him to drink?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물결에서 목말라 하시며 앉아 계시는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드리시겠습니까?

Will you tell Him, "Oh, yes Lord, I do love you.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If this is what You want, to come all the way from heaven to Sychar's well, yes, Jesus, here is some water.

이것을 원하셔서, 하늘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수가에 있는 샘까지 오셨다면, 물론이지요. 주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Here is some love.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Here is some sympathy.

여기 동정도 있습니다.

Here is some appreciation. Here is some understanding. Here is some fellowship.

여기 감사하는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기 우정도 있습니다.

If this is what you want, Lord, here is all I have."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여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Let's take another picture of it. Revelation 3:20.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또 다른 그림을 살펴봅시다.

You remember that in Revelation two and three there are seven messages to the seven churches.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당시 있었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문이 있습니다.

The last one is for Laodicea. That is you and me, the remnant church.

그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나요, 남은 무리입니다.

Now, let's see what His message is to you and me, down here in

the last generation:

여러분과 나 그리고 이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별을 보냈는지 살펴봅시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Revelation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 3:20.

What?

무엇을 하신다고요?

“Knock” Revelation 3:20.

“문을 두드리노니.”(계 3:20)

Who is it? Jesus.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Where is He? At the door.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앞에요.

What does He want? Well, what do you want when you knock at a door?

무엇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릴 때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드립니다까?

You want to come in, don't you? That's what He wants.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Why doesn't He come on in? Isn't He strong enough?”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올 만큼 힘이 없으신가요?

Oh, yes. But that isn't what He wants.

물론 힘이 세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Revelation 3:20.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 3:20)

How easy it is to look out the window and see Jesus there at the door, and say, "I wonder what He has for me, anyway?"

창문을 통해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I wonder if it is worthwhile having Him come in?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셔 들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I am afraid if He came in, He might want to make some changes, and I am not sure that I want Him too. What is in it for me, anyway?"

만약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것저것 바꾸라고, 고치라고 하지는 않으실까? 예수님을 정말 모셔 들이는 일을 내가 정말 원하고 있을까? 하여튼 "왜 들어오시려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But friends, tonight, let's put all that aside, and let's see what He is coming for.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저녁 그런 생각일랑 다 접어두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들어오시려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He is coming for supper. Isn't that what He says?

저녁을 먹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Revelation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What?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Sup with him” Revelation 3:20.

“그로 더불어 먹고.”(계3:20)

What does sup mean? Well, it means to drink, to eat. In other words, we are going to have a meal.

여기에 “더불어 먹고” 라는 말을 영어로 “sup”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먹고 마시는” 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If I were to come to your house and you decided to invite me in for supper, who would furnish the supper?

혹 내가 여러분 집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나를 식사나 함께 하자고 초청을 했다면, 누가 먹을 음식을 제공합니까?

Would I furnish it, or would you furnish it?

내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제공합니까?

Come now, tell me?

나에게 대답 좀 해보십시오.

Who would furnish it? Would you? Would you feed me? I

believe you would, friends.

누가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제공합니까? 나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겠습니까?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나를 먹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And Jesus has come to Laodicea. He has come to your heart, and He is hungry.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배고파하십니다.

He knocks at the door. He says, "Would you open the door and let Me come in, and let's have supper together?"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을 좀 열어 주겠니?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겠니?”하고 말씀하십니다.

Have you enough to feed Him, friends, or is it all you can do to take care of your own problem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의 허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 드릴 어떤 음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십니까?

Have you enough love to give Him any, or are you using it all up just on yourself?

예수님께 드릴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 자신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까?

You remember that widow who the Lord sent Elijah to?

엘리야를 보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The water had run dry over there in the brook Cherith in Gilead.

길르앗 지방에 있는 그릇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And the dear Lord said, “Elijah, I have another plan to take care of you now.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The ravens have been feeding you, but I am going to send you over to Zarephath.

“그 동안 까마귀가 너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는데, 내가 너를 이제 사르밧에 보내겠노라.

There is a widow over there with her son.

그곳에 가면 한 아들과 살아가는 과부 한 사람이 있느니라.

They are going to take care of you.

저들이 너를 돌봐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He got over there and found the woman out there by the city gate, hunting for a few sticks of wood to build a fire.

그 성에 도착하니 성문 곁에서 땔 나무를 줍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And she had just enough meal and oil left to do what?

그녀에게 음식과 기름이 무엇할만큼 있다고 말했습니까?

Make one cake. Just one little pancake.

떡 쪼가리 한 덩이 만들만큼의 기름과 밀가루! 전병 하나 만들 만큼의 분량!

And who was going to eat that? Who was going to eat that?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을 것이었습니까? 누가 먹을 것이라고요?

She and her son, and then she said what was going to happen

next? Going to die.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할 것이었습니까? 죽을 것이라고요.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친구 여러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If you take all your love and use it just for yourself, you will die, too.

그대가 가진 모든 사랑을 그대 자신만을 위해 써 버린다면 그대도 죽을 것입니다.

You will starve to death.

사랑에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There isn't enough. There isn't enough to keep you alive.

충분한 분량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버틸 만큼의 분량이 없습니다.

And there is many a starving heart that is thinking, "Poor me. Oh, I wish I had somebody to love me. Poor me, poor me.

마음으로 굶주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한 나! 누가 나 좀 사랑해 주지 않는가? 나처럼 불쌍한 인간이 어디 또 어디 있겠나?"하고 생각합니다.

I wish I had somebody to love me.

나 좀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가?

Just enough to feed myself, and then I am going to starve and die."

나 혼자 먹을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 먹고 이제 죽을 판입니다!"

And what did Elijah say?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In the name of the God of Israel, I am telling you something. Go ahead and make the cake, but make me one first."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서 떡을 만들되 내게로 가져와 나로 먼저 먹게 하라!”

You know, some people wouldn't understand that at all.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They would say, "That selfish preacher.

세상에 것처럼 이기적인 전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There he is, taking the very bread out of a widow's mouth."

아니 세상에 과부의 입에서 떡을 뺏아가다니!

But Elijah knew what he was doing, for God had told him to do it.

그러나 엘리야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And God knew what He was doing.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셨습니다.

He was seeking to teach this great lesson, that our first job is not to take care of ourselves.

하나님은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문제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It is to take care of Him. That is what we were created for.

그분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And friends, don't worry. If we will take care of His problems, He would take care of our problem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드리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But if we insist on taking care of our problems, all God can do is let us do it.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려고 고집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We always make a botch job of it, don't we? There isn't enough to go around, whatever it is.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Oh, friends, I am so glad the widow did what the prophet said.

그러나 여러 친구들이시여, 나는 과부가 선지자의 요청을 그대로 순종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What do you say?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Yes, she fed the man of God first.

예, 그렇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And every day there was enough for her and her son and for the man of God.

그 날 이후 기름통과 밀가루 통에는 그녀와 아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만큼의 충분한 기름과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They kept eating out of that barrel and out of that cruse.

저들은 그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서 매일 매일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A miracle!” you say.

“기적이라고요!” 말씀하시겠지요?

Yes, it was a miracle.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And friends, the greatest miracle is lov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가장 큰 기적은 사랑입니다.

That is the greatest miracle.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And if you will take what little love you have (Don't miss it!) and give it to Jesus, He and you and your house will eat many days, oh, until He comes again.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작은 분량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다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날 이후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사랑이 공급될 것입니다.

But if you insist on taking your love and just bestowing it on yourself and on those around you, and leave Jesus out, ah, friends, you will starve to death in the famine.

그러나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사랑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하고 예수님을 제쳐 놓는다면, 다가오는 기근의 때에 사랑에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Oh, yes. There is not enough. There is only one way to have enough. And that is to feed Jesus first.

그렇습니다. 사랑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길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잡수시도록 드리는 일입니다.

All right, we are back to our text, Revelation 3:20:

다시 요한 계시록 3:20절로 돌아갑시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Revelation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Let's invite Him in to supper. What do you say, friends? What do you say?

예수님을 우리 식탁에 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Even if it takes all we have in the house to put on His plate, let's do it.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예수님의 밥그릇에 몽땅 드려야 한다 해도 그렇게 합시다.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nd, and with all thy strength” Mark 12: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막 12:30)

Let's give Him everything we have.

우리가 가진 것 모두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Let's feed Him.

그분께 음식을 드리십시오.

What do you say?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Nothing less can satisfy.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less can fill the vacancy in His heart that you were made on purpose to fill.

여러분과 내가 차지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자리는 우리가 가진 것 모두를 다 드리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And remember, as I took time last night to explain to you and to prove to you, there is nobody like you.

어제 밤에 여러분과 똑 같은 사람이 이 우주 어디를 가나 찾아 볼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You are the only one that can fill the need.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If everybody in this chapel tonight, feeds Jesus, and if you don't, there is a hunger in His heart that nothing that the rest do can satisfy.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저들의 자리를 다 채워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당신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자리는 그 어떤 사람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You, and you, and you, and you, and you, can satisfy a hunger in the heart of Jesus, but He has another hunger.

그대, 그대, 그대 바로 그대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또 다른 허기가 남아있습니다.

There is a boy over here, who is the only one who can satisfy that hunger.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바로 이 소년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That is right. It is true.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And you have heard me say if that isn't true, then Calvary just makes no sense at all.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갈바리의 의미가 없습니다.

But if this is true, then it was worthwhile for Christ to go to the cross to get you.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갈바리에 가서 괴로운 죽음을 죽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He loves you. He wants your love. He wants you to feed His hungry heart.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허기를 채워주시기를 바라십니다.

You remember in Isaiah 58 we are told to deal our bread to the hungry. You remember that?

여러분은 이사야 58장에 우리에게 있는 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Somebody says, “Sure, that is Dorcas and welfare work.” Yes, it is.

혹 어떤 분이, “그 일은 도르가회에서, 지역 봉사회에서 하는 일이지요.”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That is good. That means to take care of those millions that are facing famine over in that new country, above India. Yes, that is right.

아주 훌륭한 일들을 저들이 합니다. 인도 부근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기근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But I want to tell you, friends, the hungriest soul in this world is not in India or China.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허기를 느끼며 배고파하는 사람은 인도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The hungriest heart in this world is the heart of Jesus.

이 세상에서 가장 배고파 참지 못하고 허기에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He is longing for something that will satisfy the hunger of His heart.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허기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고 계십니다.

I think I ought to read you that again, because it is such a stupendous statement.

제가 이미 소개했던 예언의 신의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 wouldn't want you to think that you have to take my word for any of this.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Just let me read it again: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Our Redeemer thirsts for recognition” Desire of Ages, page 191.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소망 191)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우리의 구속 주께서는 인정받기를 목말라 갈급해 하신다.”

Oh, how good it is when you knock at somebody’s door, to have them come and open wide the door and say, “Why, come in. I am so glad you came.” Isn’t it?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활짝 열어주며 “어서 들어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That is recognition.

이것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If you have ever done any colporteur work, you know what it is to get the opposite, sometimes.

혹 여러분 가운데 문서 전도 사업을 해 본 분이 있으시다면 때때로 이와 정반대의 대우를 받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People that will just open the door a little crack and close it again as soon as they can.

사람들이 문을 실눈만큼 아주 조금 열고 살짝 보고는 저들이 할 수 있는 한 재빠르게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Or maybe they look out the window and won’t even come to the door.

혹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살짝 본 후 아예 문 가까이도 오지 않습니다.

Let's not treat Jesus that way. What do you say?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Our Redeemer thirsts for recognition. He hungers for the sympathy and love of those whom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Desire of Ages, page 191.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주리고 계시다." (소망 191)

You know, friends, when He began to get hungry?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배고파 하셨습니까?

I will tell you.

제가 말씀드리지요.

You go back to the first three chapters of the Bible.

창세기 처음 3장으로 돌아가십시오.

In the first chapter we see God creating this world.

제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Oh, what a beautiful planet it was.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까?

Finally, when He had everything all ready, the Father and the Son talked it over and said, "Now, let's make man in Our image.

창조 사업이 마쳐진 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Let's make somebody just like Us, that can talk to Us and We can talk to, that can love Us and We can love; somebody who We can counsel with and that will counsel with Us; somebody who We can visit with that will visit with Us.

“우리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함께 이야기 하고 함께 사랑하게하자.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저들과 상의하고 저들을 방문하고 저들이 우리를 찾아와 함께 대화할 수 있게 하자.

Let's make somebody that will think and reason and choose and love.” So God made man.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What a story there in Genesis one and two.

창세기 1장과 2장에 언급된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Think of it, friends, as described there in Genesis 2, He took the clay, the earth, and He formed it in His own image.

친구들이시여, 상상만 해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광경을 말입니다.

The great Creator made something which looked like Him.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그분과 같은 무엇을 만드셨습니다.

Then He breathed into the nostrils the breath of life.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And that hitherto lifeless form, became a living soul.

그러자 생기 없던 형태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The eyes opened and saw.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The ears began to hear.

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The heart was beating, the lungs breathing, the mind was thinking.

심장의 박동이 뛰기 시작했고, 폐는 호흡을 시작했고,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oh, friends, there was not only intelligence, there was love.

지성만 겸비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었습니다.

There was response.

무엇인가 반응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How the heart of God must have thrilled as that being He had made began to appreciate Him and to love Him, and to give Him the heart's adoration.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그분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Oh, friends, how happy He wa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Then He made Eve likewise, and heaven rejoiced in that fellowship between Adam and Eve, and between earth and heaven.

그런 후에 그분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늘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늘과 땅이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And from day to day, do you know that the dear Lord came down and visited that garden home?

바로 그날부터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동산에 있던 가정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Think of it. Yes.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He would come down and walk with Adam and Eve in the garden.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Why? Well, He loved them, and He was hungry for their love.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고, 저들의 사랑에 굶주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And they always fed Him, too.

그리고 저들은 늘 그분에게 무엇인가 잡수시도록 드렸습니다.

They told Him they loved Him.

저들은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were continually showing Him some new, wonderful thing they had found in the garden.

그리고 저들은 계속해서 동산에서 저들이 발견한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그분께 보여주었습니다.

Did any of you ever go on an Easter egg hunt? Let me see. Isn't it a thrill, especially if you are just about such an age, to find those colored eggs?

혹 여러분 가운데 부활절 달걀을 구하려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어렸을 때 예쁜 색깔로 물들여진 부활절 달걀을 찾으러 나갔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격적인 일이 아니었습니까?

But do you know why you find them? Somebody put them there.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부활절 달걀을 찾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색깔을 칠한 달걀을 그곳에 숨겨두었습니다.

Don't forget it. Somebody took the time and the pain to get the eggs and fix them all up, and then hide them just where you would find them.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누군가가 시간과 정력을 바쳐 달걀을 아름답게 장식한 후 그곳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을 만한 곳에 두었습니다.

So it was with Adam and Eve. Every day they were discovering something wonderful there in the garden; some new object to call forth praise and adoration.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저들은 동산에서 매일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는 새로운 물체들을 발견했습니다.

And when God came, they were ready to run to meet Him and say, "Oh, look what I found today."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오셨을 때 저들은 달려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오늘 내가 발견한 것을 보십시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And of course, God knew they would find it. That's why He put it there. It made Him so happy.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할 것에 대해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행복하게 했

습니다.

And then one day He came, and they weren't there at the gate to meet Him.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셨는데 그 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러 동산 어구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He walked on into the garden. Nobody in sight.

그분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And He began to call, "Oh, Adam, Adam where art thou? Where are you, Adam?" What had happened?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Sin had entered. And finally, Adam and Eve came out, trembling, ashamed.

죄가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수치심에 가득 찬 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Adam said, "I was afraid." Afraid of God?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대니요!

The One who had done everything precious and lovely and sweet for them? Afraid of Him.

저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드셨는데 그런 분을 무서워하대니요?

What had put that fear in their hearts, my friends? Sin had.

무엇이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까? 친구들이시

여,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And to this day, most of the people on this planet are afraid of God.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They don't understand Him.

저들은 그분에 대해 이해를 못합니다.

They hide.

저들은 숨습니다.

They do anything to get away.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온갖 일들을 다합니다.

And oh, how that hurt God back then, and how it hurts Him today.

그 때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오늘날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Ah, friends, I am so glad that there is a way to end that separation, and restore the joy of fellowship between man and God: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러한 분단된 생애가 끝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래의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And there, that afternoon as the first lamb was slain, God Himself explained to Adam and Eve the plan of salvation, the plan to get man and God back together again.

바로 그 날 오후에 창조 이래 처음으로 첫 번째 양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계획,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And something of the fearful cost of it all was made plain to them, as for the first time they saw life taken, as for the first time they saw something die.

첫 번째로 생명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가 죽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면서, 두려운 대가가 치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설명되었습니다.

As they saw the blood flow and the lamb expire, they began to get some idea of what a terrible thing had taken place when they broke God's law and broke His heart - when they chose to turn from Him and listen to His worst enemy and their worst enemy.

어린양에게서 피가 흘러내리며 살았던 양이 죽임을 당해 그 양에게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분을 떠나 그분의 원수, 그들 자신들의 원수의 말을 들은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Isn't it a shame, friends, to take the love which God put in hearts so they could love Him, and use it to love the devil? Isn't that a sham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여하신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는데 써버렸으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But oh, through Calvary that can be reversed.

아- 그러나 갈바리의 희생을 통해서 사태가 역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 we behold the cross, we discern something of the love that will never let us go, that will seek us in our sins, in our disobedience, in our separation, that will breach the gulf and come where we are, and pick us up and take us home.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는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수렁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 곁에 오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본향 집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And you remember when Jesus was here on earth, He told a story.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You can read it in Luke 15, and Matthew 18.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He told a story to help you and me understand that this is for one person, and that is you, and that is me.

여러분과 내가 보다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언급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You remember He told the story to a large number of people, among whom were shepherds.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He said, "Which of you having an hundred sheep if you loose one will not leave the ninety and nine and go into the wilderness until he find him?"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양 일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

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광야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Oh, yes. The same God that was seeking Adam in Eden came to this world, in human form, that He might seek the lost sheep.

그렇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섰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And what did Jesus say, as He told the story? “Oh,” He says, “When the shepherd out there in the mountain, in the desert, finds that sheep, he puts it on his shoulder rejoicing.”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목자가 산으로, 들로 나가서 양을 찾을 때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He doesn’t drive it before him and say, “Now, look at all the trouble you have caused me. Now, get home. Get in the fold.”

그는 양을 몰고 오지 않았으며, 양에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빨리 집으로 가지 못하겠느냐? 빨리 집으로 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혼 줄을 내지 않았습니다.

Oh, no.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아-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왔다고 했습니다.

And when he gets home, he calls together the friends and neighbors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sheep which was lost.”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 친구들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겁시다. 내가 잃었던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How many sheep? One.

몇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까? 한 마리였습니다.

And what is He telling us? Why, my friends, He is telling us that one is worth the trip.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나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그런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One is worth the price. One is worth the sacrifice. And that is you. And that is me.

한 마리를 위해 그런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그런 희생을 치를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바로 그대와 나 자신입니다.

It was not thought of any gold
That hundredth sheep might bring
That sent the Keeper of the fold
Out into weariness and cold
When home was beckoning

바로 눈앞에 집이 보이는데
양을 돌보는 목자를 피곤한 발로
차가운 광야로 가도록 보낸 것은
백 마리의 양이 어떤 보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His love that could not think
Of that poor, wilful one
Unmindful by the canyon's brink
Or in despair about to sink
With hope and courage gone.

어디엔가 홀로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양

좌절하여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는 양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It was not any grace of mine
That drew my Lord to me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 것은
내게 어떤 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In heaven spotless angels shine
That views to do His will divine

죄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And here was Calvary
It was His love that could not bear
To think of my distress

여기 갈바리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차마 볼 수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He knew the pride of life would wear away
And leave me bleating there
In utter wretchedness

내 마음에 있는 자만심으로
삶은 망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불행 가운데 있을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Oh, if He had not come for me
Forever I would roam
Alone and lost in misery

주님께서 만약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바 되어
말할 수 없는 불행 가운데
홀로 헤매이었을 것입니다.

But up and over Calvary
The Shepherd bears me home.

그러나 갈바리 산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Oh, friends, I love Him tonight.

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시여, 나는 오늘 저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Him because I know it is all for me.

이 모든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And it is all for you. For each one.

또한 그대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Let's feed Him.

예수님의 허기를 채워드리십시다.

What do you say?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et's satisfy His thirsty heart.

목말라하시는 그분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립니다.

Let's give Him the one gift which nobody else can give Him,
your personal life.

그 어떤 사람도 대신 드릴 수 없는 선물, 바로 그대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He wants it so much that He would have come all the way just
to get you.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유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취하려고 여러분 곁에까지 오셨습니다.

Will you give Him your love, friends?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그분께 바치시겠습니까?

Will you? Oh, will you do i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How many of us mean business about this, and will we?

몇 분이나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raise your hand just now, friends? Will you do that?

친구 여러분, 손을 들어 표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Thank the Lord. Oh, how happy He is. How thankful He is.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감사하실까요?

This is what He wants. This is all He wants.

그분이 바로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만 주님이 원하십니다.

When He has that, He is perfectly satisfied.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만 소유하시면 완전한 만족을 누리실 것입니다.

Let's keep giving it to Him. What do you say? All right.

계속해서 주님께 드립시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Now, do you know what I wish? It is early.

이제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십니까?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I haven't given you a long study tonight.

오늘 긴 시간 설교하지 않았습시다.

I wish somebody who God did something for tonight, would just come up here, and in a few words say so. It will bring joy to His heart.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명을 주셨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나와서 여러분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He says: "Whosoever therefore shall confess me before men, him will I confess also before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Matthew 10: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 10:32)라고 하셨습니다.

We stand for Him here, He stands for us up there.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증거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담대하게 변호하실 것입니다.

We speak for Him here, He speaks for us up there.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 항변을 하면, 위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것입니다.

So if you would like to bring that joy to His heart, just come up here.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러한 기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면 그냥 이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We can have several coming at once.

몇 몇 사람들이 함께 나오실 수 있습니다.

You wouldn't mind standing for a few minutes while somebody else speaks, would you?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는 동안 잠시 서 있는 것 괜찮으시겠지요? 그렇습니까?

So, just leave your seat where you are, if you would like to speak for Jesus tonight, and just come right up here.

그러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자리를 떠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It will bring joy to our Lord's heart.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You Can Be Guided By God

4. 그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

Study given by W. D. Frazee - April 27, 1972

1972년 4월 27일 W. D. 푸레지 목사 설교문

In the thirty-second Psalm, the eighth verse, we have a wonderful promise:

시편 32편 8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I will instruct thee and teach thee in the way which thou shalt go: I will guide thee with mine eye” Psalm 32: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 32:8)

This evening I would like to study with you, not only the fact that God is able to guide each one of us, and willing to guide each one of us.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기꺼이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I want to study with you this wonderful truth, that the reason He wants to do that, is that He craves our fellowship.

오늘 저녁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누는 사귀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And every time we seek Him for His guidance, it is a new opportunity to satisfy His heart's longing to be with us and share with us and let us share with Him.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구할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In the Signs of the Times of April 22, 1903, we read this.

영문 시조 1903년 4월 22일자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And if you are taking notes (and I hope you are), I will give you opportunity to copy this:

여러분들이 설교집을 작성하신다면(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e were brought into existence because we were needed” Signs of the Times, April 22, 1903.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ST 1903. 4. 22)

That is right. Let me repeat it: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We were brought into existence because we were needed” Signs of the Times, April 22, 1903.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ST 1903. 4. 22)

Somebody may say, “Well, I don’t think I am very important. I don’t know just who needs me.”

혹 여러분 가운데 “글쎄요.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데요.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God needs you, friends. That is the point. God needs you.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We were brought into existence because we were needed” Signs of the Times, April 22, 1903.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ST 1903. 4. 22)

Let’s fill the need. What do you say?

하나님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n order that we might fill that need in God’s heart, He has arranged many occasions, many experiences in which we feel our need of guidance and direction.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과 경험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But the great purpose of that (And don’t miss this!) is not just so that we can get the answer.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이 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게 하고자 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It is so that God can get us close to Him in fellowship.

그렇게 하신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오기를 바라셔서 그렇습니다.

And if it were possible for us to get the answer without going to God, it would defeat the purpose.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어떤 응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is bears on some very practical things, both in getting counsel and in giving counsel.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데 권면을 받기도 하고 권면을 주기도 하는 쌍방적인 일이 됩니다.

Whenever we encourage ourselves or others to look to men to solve human problems, we defeat the purpose of God in letting us have problems.

인간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찾도록 권고한다면,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God in letting us have problems is to draw us to Him, drive us to Him, if you please, and in love and mercy, He often cuts off every other avenue, and we mourn or we are in perplexity because every place we go seems closed - a disappointment here, a misunderstanding there, a lack of comprehension yonder.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고자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막아버리시고, 여기를 가도 실망이요, 저기를

가도 오해뿐이요, 어디를 가나 이해가 부족한 형편에 처하게 하십니다.

And what does it all mean?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Why, it simply means, my friends, that God is seeking to have us come to Him.

그 대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You know, sometimes, when a person is sick and we hear that special prayer has been called for.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때때로 사람들이 아프면 아주 특별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The tendency is for us to think, "Oh, is he that bad? Is he that bad? Is he about to die?"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어? 영 안 된 모양이지? 곧 죽게 되었나 보지?”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In other words, we have tried everything else, now we will try God.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We do this, sometimes, in seeking for wisdom, for guidance.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ut God intends that as the flower turns to the sun, so we should naturally turn to Him in every question, every situation.

그러나 하나님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This text that you are looking at, here in Psalms, what is His promise? Will you read it with me?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까?

“I will instruct thee and teach thee in the way which thou shalt go: I will guide thee with mine eye” Psalm 32: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 32:8)

You students of English and grammar, tell me, what person is that first word in that verse?

영어와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이 성경절에 처음 언급된 사람이 몇 인칭입니까?

What person is it? What is it? I couldn't hear you? First person.

몇 인칭이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일인칭이지요?

Thank you. All right. What number is it? What is it?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무엇이지요?

Well, what do the rest of you think? All together, what number is it? [Singular.]

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가 무엇이라고요? 단수입니다.

Well, what does that mean? How many? One.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급되었습니까? 한 사람이지요.

“I will instruct thee” Psalm 32: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시 32:8)

What person is “thee?”

“너”라고 한 너는 몇 인칭입니까?

Second person. What number is it? Singular.

2인칭이지요. 여기에 나온 수는 또 무엇입니까? 단수입니다.

Why do I spend all that time on that? It isn't to teach grammar.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룹니까? 문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I want you to get the thought. God, one person, is talking to you, one person.

나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하나님께서 그대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He is not talking just to the congregation, not just to the world:

그분께서 회중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I will instruct thee ... in the way which thou shalt go” Psalm 32:8.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 32:8)

Say, if He would do that, wouldn't it be wonderful?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Wouldn't it be wonderful to be guided by God in all the details of your life?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Well, that is what He promises.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And if He keeps His word, that is what He will do.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Of course, we will have to look to Him.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Now, turn to Proverbs 3:6. You see, most people in this world, friends, are in one of two classes.

이제 잠언 3장 6절을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They are either so sure that they know what they want to do, that they haven't time to go to God for guidance.

그 두 부류란 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Or else they are just in perplexity and don't know how to get guidance from God.

아니면 곤경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께 도움을 어떻게 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So they are either certain or uncertain.

이 두 부류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든지 아니면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And either way, they fail to get this guidance directly from God.

저들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God won't undertake to teach the person who already knows all the answers.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Why should He? How could He? No: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The meek will he guide in judgement: and the meek will he teach his way" Psalm 25:9.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 25:9)

If you already know all about what you want to do, if you have set your mark to be president of United States, or chairman of the board of General Motors, and nothing is going to stop you, you don't need to go to God at all.

그대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미국 제너럴 모터 자동차 회사 사장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결심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You already have your answer.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If you intend to be one of the men that land on Mars a few years

or decades from now, you have your career all planned out, if you are planning how to make your first million, or how to be this or that or the other, no, you may not need the Lord.

여러분들이 달이나 화성에 갈 우주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미 여러분의 직업과 일생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ut the person who knows he doesn't know, but wants God's will carried out, that person, God is anxious and willing, glad and able to teach: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능히 가르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direct thy paths"
Proverbs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6)

Will He?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You know, it is an interesting thing, many times older people when they get acquainted with some child, third grade, fourth grade, sixth grade, they will say, "Well, Johnny, what would you like to be when you grow up?" "Mary, what would you like to be?"

재미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나이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특별히 3학년, 4학년 또는 6학년 아이들을 만나면 "철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영자야,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고 묻곤 합니다.

Did any of you ever have that question asked? What would you like to be?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As if that ough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it, friends.

친구들이시여,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기폭제라도 되는 것처럼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In the first place,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like to be.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무엇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I remember when I was eight or nine years old. I was having just a little problem in my mind deciding what I wanted to be when I grew up - an artist or a soldier in the United States army. Well, it turned out, I wasn't either one.

내가 여덟 살인지 아홉 살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군인이 될 것인지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화가도 미국 군인도 되지 않았습니다.

But the greatest reason why that question is fundamentally wrong and a mistake, is this, friends: our great desire should be that God's plan in our life will be carried out:

이렇게 질문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It doth not yet appear what we shall be" 1 John 3:2.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요일 3:2) 라고 했습니다.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counts to the person that knows God.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It is,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그것은 "주님이시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입니다.

And God usually unrolls that scroll a little at a time.

하나님께서서는 생애의 지도를 한 번에 한 장씩만 펼치십니다.

But oh, for this, oh, to know the joy, my dear friends, of going to God for our orders and letting Him plan our lives! What do you say?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즐거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I have mentioned the fact that God often cuts us off from other avenues, in order that we may be drawn to Him, driven to Him for advise, for counsel, for guidance. Notice that fifth verse. What does it say?

제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모든 길목을 막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도와 권고를 구하게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5절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and" Proverbs 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잠 3:5)

What?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Proverbs 3:5.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 3:5)고 하셨습니다.

Well, I wonder why not.

글쎄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Why not lean unto your own understanding?

왜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될까요?

Don't even lean that way.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Balaam went to God for guidance, but he leaned hard to his own understanding, didn't he?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께 지도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긴 했지만, 그 자신의 명철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Did he finally get his way? Yes, he got it.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습니까? 예 그랬었지요.

Did he get to go over there, to Balak? Yes.

그가 발락에게 갔습니까? 예, 그랬지요.

And did he finally get in with the king in an endeavor to curse Israel?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왕과 함께 했었나요?

Oh, yes.

물론 그랬었지요.

If you don't know how he succeeded, read that chapter in Patriarchs and Prophets called "Apostasy at the Jordan."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른다면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요단에서의 배도”라는 장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My point is, friends, people who dare to go to God for guidance and yet lean unto their own understanding, are only asking for more problem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러 가면서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That is all. To successfully get guidance from God means that we simply lay aside ourselves and look to Him: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뜻이나 생각은 다 제쳐 놓고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and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Proverbs 3:5, 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Well, someone says, "Sure, I know I don't know much, but then I know some people who know a lot.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I think I will go to them."

내가 그런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겠다.”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Well, turn over to Jeremiah 17. We will see what it says about that:

자- 함께 예레미야 17장을 봅시다. 이 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Thus saith the LORD; Cursed be the man that trusteth in man” Jeremiah 17:5.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5)

“Cursed be the man that trusteth in man, and maketh flesh his arm, and whose heart departeth from the LORD” Jeremiah 17:5.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5)

Now, don't misunderstand me, friends. There is a place for asking counsel.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And oh, don't miss this!)

그러나 저는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Older people as well as young people, listen.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 모두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Whenever any man you ask for counsel leads you to look to him as an authority instead of God, you are better off without him.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상의하고 저들의 의견을 묻든지 간에 만약 여러분들에게 저들의 의견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따르도록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And I don't care what realm it is in:

그것이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습니다.

“Man's words, if of any value, echo the words of God” Counsels to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page 423.

“가치를 인정할 만한 인간의 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메아리일 뿐이다.”(부모 423)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일 때 그렇다.)

The best human counselor you can find is one that will simply direct you to a “thus saith the Lord.”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상담자는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You see, on any question that you may have in your mind, God has either spoken or He hasn't.

그대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든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거나 아니면 아예 말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If God has spoken, how foolish it is for some human being to tell you something else.

만약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가운데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He is of value only as he points you to what God has said, and then it is God that is speaking, not the counselor. Do you see?

그의 말이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해답을 찾도록 인도할 때에만 가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And let me tell you, young and old, be careful about giving counsel.

여기에 계신 나이가 든 분이나 젊은 사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누구와 상담을 하며 어떤 권면을 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t is surprising how many young people are moved by what their young friends advise them to do.

젊은 사람들이 저들의 동년배들과 상의하고 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Boys will sit and they will discuss about this or that. This one will give his opinion, and that one his opinion.

십대 소년 소녀들이 둘러 앉아 문제를 내놓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저들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말합니다.

I suppose it looks like a sign of maturity to express what we think somebody ought to do.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저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혹 성숙된 증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I am sorry to say that that is because as young people, we hear older people ventilating their views.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안된 일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저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ut it isn't a sign of maturity to smoke, even though some adult people smoke.

나이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성숙되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Isn't that right?

그렇지 않습니까?

And it is not a sign of maturity, friends, to just express what we think everybody ought to do.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시여,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숙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That is a sign of immaturity.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Now, if God has spoken on a subject, the important thing is to find out what God has said.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And if God hasn't spoken on a subject, it is one of two things, usually.

만약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It is either something that doesn't make that much difference, or else it is something (And don't miss this!) that God has reserved to Himself to guide you individually, and He wants you to listen to Him.

그 첫 번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한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해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감추어 놓으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He has something to tell you in the secret place of prayer.

은밀한 기도의 시간에 그대에게만 말씀하실 비밀 사항으로 간직하고 계신 것
일 수 있습니다.

You will find in Volume 5, some instruction for people who
need to be guided by the Lord.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고의 말씀이 교회증
언 5권에 있습니다.

It says to go to your closet and there, alone, commune with
God:

그곳에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
다.

“Plain, simple duties that must not be neglected will open before
you”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5, page 163.

“등한히 해서는 안 될 평범하고 단순한 의무들이 그대들 앞에 펼쳐질 것이
다.”(5T 163)

Alone with God in prayer? Yes.

기도로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라고요? 그렇습니다.

God will teach you. God will lead you.

하나님께서 그대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And so I repeat, human counsel is of value in helping you find
out what God says, and suggesting to you how you can get more
wisdom from God.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권고는 그대로 하
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도록 도울 때, 하나님으로
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돕는 말을 할 때
에 가치가 있습니다.

But it is not to be a substitute for Jesus as your personal counselor and friend.

그러나 예수님을 그대의 개인적인 상담자요 친구로 삼는 그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Cursed be the man that trusteth in man, and maketh flesh his arm, and whose heart departeth from the LORD” Jeremiah 17:5.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5)

So, we are not to trust in our own wisdom.

우리는 자신들의 총명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That is foolishness.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We are not to trust in the wisdom of man apart from God.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지혜를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That is foolishness.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The wisdom of this world is foolishness with God.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What is the purpose of getting counsel from God? Friends, it is to please Him.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If we have any other purpose, we will probably not get what we

are after.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If I am asking the Lord for wisdom so I will know how to play the stock market and be a millionaire, I may not get much wisdom.

만약 우리가 증권을 살 때 어떤 것을 사서 빠른 시간 내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If I am asking the Lord to help me work out my career and plans according to my ideas, He may not help me.

우리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The great purpose of seeking counsel is that we may please Him; that we may fill that need in His heart.

우리가 하나님께 권면을 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묻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 want to give you another little sentence to copy in your notes. The reference is Ephesians 5:10, but it is the Twentieth Century translation: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기를 바라는 성경절 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세기 번역판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Always be trying to find out what best pleases the Lord”
Ephesians 5:10, Twentieth Century translation.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개역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항상 힘쓰라!”
 (21세기 역에서 직역)

Isn't that beautiful?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Someone gave me that when I was just a teenager, and I have
 loved it ever since:

내가 십대 소년이었을 때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 주셨는데 그 후로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Always be trying to find out what best pleases the Lord”
 Ephesians 5:10, Twentieth Century translation.

“주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항상 힘쓰라!”
 (21세기 역에서 직역)

It was my dear friend, Elder Luther Warren, that I learned that
 from.

이 말씀을 내가 처음으로 배운 분은 바로 루터 워런(Luther Warren) 목사
 님입니다.

He used to have an expression when young people would ask
 him for advice -

그분에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할 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I ought to do about this?”

“이 문제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I ought to do about that?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I ought to wear my hair?

목사님은 내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What do you think I ought to do about something else?"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등입니다.

Do you know what he would say? He would say, "If you will go to God, and if you will just play fair with God, He will guide you."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나가서 공평하게 게임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Do you know what he meant, to play fair with God?

하나님과 공평하게 게임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Why, he meant to go to God honestly and openly and sincerely and say,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가 정직하게, 터놓고, 진실되게 말하는 말입니다.

"Lord, there is just one thing I want. I want to please You."

"주님이시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And then do what you think will please Him. That's what will please Him.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Oh," you say, "but I do that and I am not quite sure."

혹 여러분 가운데 "글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Well, if you are not sure, just do what you think will please Him.

만약 그대가 확실히 모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That is all.

그렇게 하면 됩니다.

Sometimes people give me a birthday present.

때때로 사람들이 내 생일에 선물을 가져옵니다.

They don't come around always and ask beforehand what I want, but they give me what they think will please me.

저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늘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 생각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Well, if they are trying to please me, it pleases me.

만약 저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Why? Because they are trying to please me. Don't you see? It is that simple.

왜 그러냐구요? 저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And so if you are seeking to please your Lord, you do please Him.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 같이 생각되는 일을 하십시오.

What pleases Him is your desire to please Him, your choice to please Him.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대의 소원 자체입니다.

Let me illustrate that. Are there some people this week that will be keeping Sunday, thinking it is the Sabbath.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Will they keep Sunday trying to please the Master? Does it please Him?

일요일을 지킴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Why, sure it pleases Him.

물론 그렇지요.

Now, someday they will find out about the true Sabbath, and then what will they do?

언젠가 참 안식일을 발견하게 되면 저들이 어떻게 할까요?

Well, they will keep it. Why?

저들이 발견한 참 안식일을 지키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요?

Because they have been wanting to please the Lord.

저들은 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And as soon as they find out that what He said was the seventh

day instead of the first, Saturday instead of Sunday, they will change over, and it won't take them a long time to do it, because all the while they have been trying to what? Please Him.

저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안식일이 첫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깨닫는 즉시 그 날을 지키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저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A friend of mine, a minister, was starting a series of meetings, and some people were coming and they were so happy with what they were hearing.

나의 친구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They wanted to show the minister how much they appreciated it.

저들은 목사님에게 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So they brought him a great big ham, a ham. Well, did it please him?

그래서 그들이 돼지고기를 사왔습니다. 돼지고기를 사온 것이 목사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습니까?

Sure it pleased him. He didn't eat it, of course, but it pleased him.

물론 목사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먹지는 않았지만 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감사했습니다.

Why? Because the people appreciated him.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저들이 목사님의 기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By and by they found out that wasn't the thing to do, and then of course, they didn't bring him any more hams.

시간이 가면서 저들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돼지고기를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

Do you see what I am getting at,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들이시여,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The thing that pleases God is not the precise thing you do in dress or diet or music or reading or education or Sabbath keeping, or any other subject.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특정한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노래를 해야 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며, 꼭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고 또는 다른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No, no, friends. The thing that pleases your Lord is that you want to please Him.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But when you have that attitude, you don't settle back and say, "Oh well, if that is it, I don't need to study any. I don't need to learn any more."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됐지 뭐.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지 뭐.”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No, no.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 more you love Him and the more you want to please Him, the more you want to study in the books to find out what best pleases Him.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But you won't be on pins and needles thinking that you can't please Him until you know it all.

그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모조리 다 찾아내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You will know that you please Him tonight just because you tell Him you love Him and want to please Him.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이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Oh, friends, I am so glad about that. Aren't you?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나는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You know, brother, I hear some music sometimes, and maybe you do too, that you wouldn't choose, some kinds of religious music.

여러분 형제들이여, 언젠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었을 것이지만, 여러분이라면 그런 노래를 종교적인 음악으로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그런 노래였습니다.

And some, I think, to borrow a phrase, is 'way out'. And I mean

is ‘way out’.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빌리자면 ‘격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iends, and don’t miss it.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If a person is singing that music, and that is the best they know to praise God, I say the dear Lord sifts out a lot of discord, and He hears what the heart is singing.

만약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러한 불협화음의 노래 가운데서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르는 노래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nd do you know He has to do that with the music we sing?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Or did you know that?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Or did you think we already sang like angels?

아니면 우리가 이미 천사들처럼 청아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Ah, friends, you know the reason I sing?

아-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찬미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I like to sing, especially when I am by myself or with one or two

friends.

나도 찬미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나 혼자 있거나 아니면 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찬미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But sometimes when I am driving all by myself I just sing to the Lord.

그러나 때때로 내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주님께만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And He likes it.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나의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I know He does.

나는 주님께서 그런 노래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You might not like it.

혹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You might say, "Why doesn't he keep still and let somebody who can sing, sing."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좀 조용히 있으시고, 노래를 할 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But oh, my Lord loves to hear me sing.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Do you know why? Because I love Him.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That song you were singing tonight,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내 주 되신 예수 참 사랑하고.”라는 찬미를 불렀습니다.

I have sung that hundreds of times.

내가 그 노래를 수 백 번 이상 불렀습니다.

And friends, I mean it - If ever I loved Thee, my Jesus 'tis now.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그 노랫말과 같은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I love Him. He loves me. And I know He likes my love.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I know He likes for me to talk to Him and sing to Him.

나는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분께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friends, one of the reasons that He lets me come to problems - and I have had my share through these sixty-six years - is this, He wants to get me in close fellowship with Him, a special interview.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 지난 66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 주님께서 나와 특별히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시고 특별한 면담을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You know, one time several years ago, we were having a problem down at Wildwood, about the railroad wanting to come through our property.

여러분 여러 해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와일드우드 기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도 회사에서 우리의 땅을 관통해서 기차길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And we were referred to a certain attorney that might give us some wise counsel.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에게 어떤 현명한 해결책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The manager and I went down, it was a long trip, over a hundred miles, to see this man.

총무님과 내 자신이 그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백 마일(160km) 이상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And we talked to him one evening for a little while, and when we got through we paid him.

우리가 저녁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을 마친 후 나오면서 돈을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Do you know what it cost us to talk to him about an hour?

여러분들이시여, 한 시간 정도 이야기 한 대가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Fifty dollars.

50불(약 6만 원 정도)을 지불했습니다.

Well, now, I assure you we would not have done it unless we had felt a special need of counsel.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그 당시 시간당 50불은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 역자)

Listen, friends, God sometimes let's us come to great problems that we may come to Him.

때때로 우리가 커다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Of course, He is glad to have us come with little things, too.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고 사소한 문제들도 가지고 나와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Let me read something here from Steps to Christ. I think this is wonderful:

정로의 계단에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읽겠습니다.

“Keep your wants, your joys, your sorrows, your cares, and your fears, before God. You cannot burden Him; you cannot weary Him. ... Take to Him everything that perplexes the mind” Steps to Christ, page 100.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을 곤고케 하는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가라.”(정로 100)

If you have a problem in math, can you take it to the Lord? Can you? Yes.

혹 여러분에게 수학 공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Some of us older ones, our problem in math is knowing how to spread the income over the expenses.

나이 든 사람들이 꼭 풀어야 할 수학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입에 지출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Can we take that to God? Oh, yes:

우리가 그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Take to Him everything that perplexes the mind.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Nothing is too great for Him to bear, for He holds up worlds, He rules over all the affairs of the universe.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過大)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Nothing that in any way concerns our peace is too small for Him to notice” Steps to Christ, page 100.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정로 100)

I told you the other day about losing my little comb, and the dear Lord helped me find it.

며칠 전에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빗을 잊어버렸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빗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That is about as little a thing that I can think of, but He took care of that.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일 중에 작고 사소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Nothing is too big for Him, nothing is too small for Him.

주님께서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고 너무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And remember (And don't miss it!), it isn't just that He wants to help us, He wants to get us in there with Him where He can enjoy fellowship.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서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밀접한 친교의 정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He just delights to have us come in to visit Him.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And if the only way He can get us to visit, is for us to have a problem, He will let us have a problem.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문제에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Not just so we can get the solution, but so He can get us in there with Him.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Do you see what I am trying to say, friends? He hungers, as I read last night, for our love, for our sympathy, our understanding.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밤에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사랑과 동정과 이해를 받고자 갈망하신다고 했습니다.

Oh, let's come to Him and make Him happy by looking to Him for advice, and then doing what we think will please Him. What do you say, friends?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나와 주님께 상의하고 그분의 권고를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므로 주님을 행복하게 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Now I will tell you one problem we run into when we do this.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oses ran into this problem.

모세가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Perhaps we will turn to Acts 7:25, and you will see what the problem is.

사도행전 7장 25절을 펴봅시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We suppose that if we get the right guidance from God, and try to do it, that everybody, at least all the good people, will pat us on the back and cheer us on.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지도를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면, 최소한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잘 해보라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But, friends,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Sometimes, when sincerely we go to God and try to get His wisdom and advice for us on education, on diet, on dress, on music, on reading, on anything, and the best we know, the thing for us to do is this and we start to do it, somebody comes along and says, "What, don't do that! I wouldn't do that! Why are you doing it?"

때때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교육문제, 음식물 문제, 의복에 관한 문제, 음악에 관한 문제, 독서에 관한 문제 등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 시정하고 고쳐보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라고 할 것입니다.

All right, now let's see what happened to Moses:

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For he supposed his brethren would have understood how that God by his hand would deliver them: but they understood not” Acts 7:25.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행 7:25)

What did Moses suppose? That his brethren would understand.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의 동족들이 그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ad God called Moses to deliver Israel? And he supposed what? That his brethren would understand. Did they understand?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라고 부르셨나요?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저들이 이해했었나요?

It says, they understood not.

성경은 저들이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Well, poor Moses? No. Not poor Moses.

모세가 참 안 되었지요? 아니지요. 가련한 모세가 아닙니다.

You know what that made it necessary for Moses to do? To look to God.

모세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되었습니다.

Did God understand? Yes, God understood. And so Moses had to look to God.

하나님이 사태를 이해하셨나요? 물론이지요. 하나님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Go over to Hebrews 11 and you will see what I mean:

히브리 11장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By faith he forsook Egypt, not fearing the wrath of the king: for he endured” Hebrews 11: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히 11:27)

What does the rest of the verse say?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Hebrews 11:27.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히 11:27)

“He endured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Hebrews 11:27.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히 11:27)

Who is that? God. And Moses endured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했습니다.

In other words, as human beings misunderstood him, Moses turned to the One that did understand him, and that gave him a wonderful fellowship with God.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간들이 모세를 이해해 주지 않자 모세는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았으며, 그분과 놀라운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Turn to Exodus 33:11. Oh,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won-

derful verses in all the Bible.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did God call Moses, according to the third line of this verse? His friend.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세 번째 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Wouldn't you be happy to know that God called you His friend? You know that God is your friend.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But did you know you are God's friend? He wants you to be. And notice the experience Moses had: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모세의 경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eth unto his friend” Exodus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출 33:11)

Would God do that for you? Oh, yes. He wants to.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by His providences, and by His Holy Spirit.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As you kneel down in simple faith and commit your way to the Lord, He wants to guide you, He wants to talk to you.

단순한 믿음으로 무릎을 연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분의 지도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를 인도하고자 하시고, 그대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Notice this stupendous statement in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에 있는 놀라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We are not to place the responsibility of our duty upon others, and wait for them to tell us what to do.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는지 우리에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We cannot depend for counsel upon humanity.

우리는 사람의 권고에 의지할 수 없다.

The Lord will teach us our duty just as willingly as He will teach somebody else.

주님께서는 다른 어느 사람을 기꺼이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If we come to Him in faith, He will speak His mysteries to us personally.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면, 그분께서 그분의 신비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Our hearts will often burn within us as One draws nigh to com-

mune with us as He did with Enoch.

주님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교통하려고 가까이 오시는 때에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서 때때로 불타게 될 것이다.

Those who decide to do nothing in any line that will displease God, will know, after presenting their case before Him, just what course to pursue” The Desire of Ages, page 668.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뢴 때에 바로 어떤 노선으로 나아가야 할른지를 알게 될 것이다.”(소망 668)

“Well,” somebody says, “I am glad you read that, Brother Frazee. My problem is, so many other people are telling me what to do.”

혹 여러분 가운데 “푸레지 목사님, 그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고 합니다.”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There are some things, dear friends, that no amount of getting guidance from God is going to take the place of.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해도 문제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No matter how much guidance I get from God, the policeman down at the corner can stop me and ask to see my operator’s license. Is that right?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해도 경찰이 내 차를 세우고 나의 운전면허증을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And I can’t go whizzing by and say, “I have got guidance from God. You have no business interfering with me.” Can I?

만약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가는 사람인데 왜 운전면허증을 보자는 것

입니까?” 하며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That wouldn't be faith.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That would be what? Presumption.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추정이라고 합니다.

And we all have duties and obligations to civil government, to church government, the home government, and school government.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We don't have to look to God for guidance, friends, for the things that other people decide.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We can pray God will help the policeman not to stop us, if we haven't time to stop. We can do that.

혹 우리가 도중에 검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경찰이 우리 차를 멈추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ut if the policeman stops us, we accept that as God's guidance.

그러나 경찰이 우리 차를 세울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수락하면 됩니다.

And so in the home and in the school. We can pray, if our parents have a decision to make for us, that they will make a wise decision.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If the faculty have a decision to make, that involves us, we can pray that God will help them. And so in the church.

혹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정이 우리가 관계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listen, friends, there are ten thousand things that you have to decide. You, young people, every day, are making decisions.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 여러분들은 매일 수많은 결심을 하고 결정들을 합니다.

You say, "I don't know. There doesn't seem much left for us to decide."

혹 여러분 가운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Let me ask you something. Do any of you decide when you get up in the morning? Well, you can.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if you wait long enough, somebody else may decide it for you. But you can make a decision as to when you will get up, can't you?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잘 것 같으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 스

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Do you know what I do, sometimes? Oh, it is a precious experience.

여러분들은 내가 때때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I may have to go to bed late because of many things that I can't control.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저녁에 침대에 아주 늦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And sometimes I just say to the Lord, "Now, Lord, You know it is late and I am getting to bed late. Please wake me up in the morning when You see I need to wake up."

때때로 나는 주님께 “주님, 내가 늦게 자는 것 아시지요?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될지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깨워주십시오.”

You have something to say to me. Will you wake me up?"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지요. 깨워주시겠습니까?

And friends, again and again I see Him do it.

나는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나를 깨워주신 경험을 했습니다.

And you know, some of the most precious thoughts God ever gives me, are in the early morning, when I wake up, even before I get out of bed - just when I am half asleep and half awake, like the dawn coming up. I love that.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을 주셨던 때는 대부분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 아직 눈을 감고 있을 때, 절반은 자고 절반은 깨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Oh, I know friends, every individual has an experience of his own.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Yours will be different from mine, and mine from yours. My point is, do not let the decisions that other people make, keep you from going to God for wisdom on the decisions you have to make.

여러분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다를 수 있고, 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결정을 하게 하므로 그대가 해야 할 결정을 위해 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That is what I am talking about.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Thank the Lord, we do not have to make all the decisions that affect us.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들을 우리 스스로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Thank the Lord, a lot of them are made for us by the Lord, through others.

우리가 해야 할 결정들을 이미 주님께 의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해놓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But oh, the decisions that fall for us to make - the books we read in our leisure hours, the time we get up and the time we go to

bed, how much food we eat, whether we eat this particular food or other one, who we chose for our friends, who we write to and what we write, a thousand other things.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결정들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 무엇을 쓰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등은 우리가 결정하도록 남겨두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I say, folks, we have plenty of laboratory material on which to work in this matter of seeking God for guidance, and finding experimentally that He will teach us His way.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실험해 볼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을 실험적으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And remember, the great purpose of it is to get us in with Him, so He can have fellowship with us.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님께 이끌고자 하는 것이요, 우리와 함께 친교의 정을 나누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We were brought into existence why? Because we were needed.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필요 되었기 때 문입니다.

You need God's guidance. He needs your fellowship.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귀는 친교를 원하십니다.

You need His wisdom. He needs your love.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So press in. Get down on your knees and say,

주님께 나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Dear Lord, I am coming to You for guidance, but I am coming to You because I know You want me.”

“주님,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주 앞에 나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5. John 17 Is For You

5. 요한복음 17장은 그대를 위한 것임

Study given by W. D. Frazee - April 25, 1972

1972년 4월 25일 설교 : W. D. 푸레지 목사

John 17. We are told by inspiration that this chapter comprehends more than any other chapter in the New Testament.

요한복음 17장. 영감의 글에 의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신약 성경의 그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The text we are going to look at this morning is John 17:24. And that which, with God's help,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morning strikes me this way, friend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If what I'm going to share with you isn't so, nothing matters.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If it is so, nothing else matters.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ee if you agree with me as we proceed.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과 여러분 스스로 동의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s, you remember, is Christ's prayer when He stood in the shadows of Gethsemane.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을 때는 겟세마네의 두려움 바로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He had eaten the last supper with His disciples in the upper room.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였습니다.

He had passed with them across the brook.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작은 강을 건넜습니다.

He had given them those wonderful teachings concerning the vine, recorded in John 15, and on in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sixteenth chapter.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언급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Now He pauses at the edge of the garden and pours out His heart in prayer, as He is surrounded by that band of disciples.

이제 동산의 끝에 가까이 이르러 오셔서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Now, before I read the text, I want to read an interesting state-

ment.

성경 말씀을 읽기 이전에 재미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The reason I want to read this is that we may see this text is very personal.

이 말씀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매우 개인적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Christ was thinking of you when He prayed this prayer: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신 기도입니다.

“Jesus pleaded not for one only, but for all His disciples:

“예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모든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셨다.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His eye pierced the dark veil of the future and read the life history of every son and daughter of Adam”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4, page 529.

“그분의 눈은 미래의 어두운 휘장을 뚫고 모든 아담의 자녀들의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4T 529)

We have several sons and daughters of Adam here this morning, don't we?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상당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Your life history was read by the eye of Jesus that evening hour,
as He knelt there.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You say, “Oh, that is impossible. Think of all the millions and billions that have lived in this world.”

혹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수 백 억의 사람들을 어떻게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하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Yes, friends, but to infinity that is not a problem.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And Christ, though tabernacled in human flesh, was God, the Son of God.

비록 인간의 몸을 쓰신 상태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His eye pierced the dark veil of the future and read the life history of every son and daughter of Adam.

“그분의 눈은 미래의 어두운 휘장을 뚫고 모든 아담의 자녀들의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He felt the burdens and sorrows of every tempest-tossed soul, and that earnest prayer included with His living disciples all His followers to the close of tim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4, pages 529, 530.

그분은 심한 폭풍 중에 있는 모든 영혼의 짐과 슬픔을 느끼셨고, 그 열렬한 기도예 당신의 살아 있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까지 있을 당신의 모든 추종

자들을 포함시키셨다.”(4T 529,530)

You will find that here in the Bible, which you have open before you, in the twentieth verse:

여러분이 펴고 있는 이 성경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Neither pray I for these alon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4, page 53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4T 530)

That is the little band that was around Him.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But for them also which shall believe on Me through their word’ Yes, that prayer of Christ embraces even us”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4, page 530.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다.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4T 530)

Thank God, friends! So as we read our text this morning, I just want you to know you are included: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which thou hast given me: for thou lovedst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John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

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You notice that here, Christ reaches the climax of His prayer.

여러분들은 이 성경절이 그리스도께서 드린 기도의 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If you will study the whole chapter, you will see that.

여러분들이 이 장 전체를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is the great mountain peak, the outpouring of His greatest longing.

이것은 이 장에 나타난 기도의 산봉우리의 최정상이요, 그분의 가장 커다란 소망(갈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What is it? That you and I shall be with Him. This is the object of the whole plan of salvation.

그것이 무엇이나구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구속의 목표입니다.

Man was created for fellowship with God.

사람은 하나님과 친교의 정을 나누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We were brought into existence because we were needed.

우리가 필요 되었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There was a longing in the heart of God that only Adam and Eve, and the various ones down through the ages of the human family, could fill.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인류 역사의 시대를 통해 그의 자녀들이 차지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But this is not a mass proposition.

이것은 누구나 와서 차지하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This is an individual matter.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This is why you and I were made individually.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자신이 똑같지 않고 다르게 창조된 것입니다.

If it were simply a mass, God could turn out a lot of creatures, just like General Motors turns out Chevrolets, up in Michigan.

만약 아무나 그 자리를 차지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었다면 여러 피조물들을 마치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제너럴 모터 자동차 회사에서 똑같은 모델로 자동차를 만들듯이 만들어 그 자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But no, there was nobody ever made like you. And there never will be another person like you. And Jesus came for you: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 여러분 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The relations between God and each soul are as distinct and full as though there were not another soul upon the earth” Steps to Christ, page 100.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정로 100)

Christ showed this when He gave the story of the lost sheep.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

습니다.

How many lost sheep? One.

얼마나 많은 양이 잃어버림을 당했습니까? 한 마리였습니다.

Oh, I am so glad, friends, as I hear that story falling from the lips of Jesus, I know He was thinking about m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나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나를 두고 하신 이야기라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If I had been the only one for whom the Saviour died, it would have been worth it to Him, friends, just to get me.

구세주께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죽으셨을 것이라면, 나 혼자만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 자신이 그분에게 커다란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Well, somebody may say, "Brother Frazee, you think you are pretty important."

혹 여러분 가운데 "푸레지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Yes, friends, I do. Yes, I do.

예, 그렇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예, 그렇습니다.

Because I read from the inspired pen that He desires me to value myself according to the price He has paid for me.

영감의 글을 보니까 그분께서 지불하신 대가대로 내가 나의 가치를 판단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I well know that without Him I can do nothing.

그분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well know that apart from Him my value is zero, and less than nothing.

그분을 떠나서 나의 가치란 아무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But oh, because of what He made me, because of His ransom to bring me back, because of His transforming grace, because of His plans for me through the infinite ages of eternity in the future - yes, friends, I am of value, infinite value, and I know it is for me.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그분께서 나를 만드시고 엄청난 속전을 치르셨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은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영원을 두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यो, 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nd I know it is just as much for you, personally, individually, for each one.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So He says: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John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요 17:24)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What was it He came for? To ransom u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요.

Why? Because He loved us.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What does love seek? Love seeks to be with the one it loves, doesn't it? Why, surely.

사랑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And the more you love somebody, the more you want to be with that one.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I thank the Lord, friends, we human beings can learn a little about it through human experience.

나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의 경험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You know, a few years, ago my wife and I were on an evangelistic trip here in the west.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와 내 아내가 이곳 서부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And when we were in California, it seemed wise for my wife to undergo a series of tests, medical examinations.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종합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And as the result of those tests and examinations, it was the doctor's decision that my wife should stay in California for a time, for a number of months.

여러 검사를 한 결과 내 아내가 몇 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의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Appointments that I had at camp meetings and otherwise, took me East again, and so the morning came when we had to say goodbye.

다른 여러 곳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집회 약속과 야영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동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아침이 왔습니다.

Well, my wife and I had been married nearly forty years and had never been apart very many days at a time.

나와 내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한지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토록 긴 기간 서로 떨어져 산 적이 없었습니다.

And you know, as we separated, not knowing how long it might be, and as I drove across the continent all by myself, day after day, something happened in my soul, friends.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별 인사를 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넓은 미국을 나 홀로 가로질러 운전해 가면서 밤이 되고 낮이 지나는 동안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I learned, better than I had ever known before, how much Jesus wanted me to be with Him. Do you see?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Oh, yes. As I thought about how much I wanted to be with Helen, and I knew she wanted to be with me, and I didn't know how long it was going to be, I said in my soul,

내가 내 아내 헬렌과 함께 있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것처럼, 내 아내 헬렌 역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아내도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Oh, Dear Lord, do You really want me to be with You, as much as I want to be with Helen?” And, of course, back came the answer, “Yes, and a lot more.”

“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은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은가요?” 물론 대답이 왔습니다. “그렇다. 그보다 더 하단다.”

Is it really true, friends?

이것이 사실입니까, 친구 여러분?

Does Jesus want you to be with Him, more than you want to be with anybody in this world?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 보다 더 큰 갈망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Oh, yes. And as I said at the beginning, if this is not true, nothing matters. If this is true, nothing else matters.

그렇습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별것 아니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This is it. This is the purpose of the whole plan of salvation.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계획의 목적입니다.

And this is His prayer there in the shadows of Gethsemane.

이것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짓누르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Oh Father, the great longing of My heart is that My church may be with Me in glory, forever to share My throne, forever to be with Me.”

“오, 하늘 아버지시여,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커다란 갈망은 나의 교회(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보좌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So He went on into Gethsemane, and there agonized in that bloody, fierce struggle, and on through the judgment hall and out to Calvary, where they nailed Him to the tree and hung Him up between heaven and earth, to suffer for my sake, that I might be redeemed.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고뇌의 기도를 드리시고, 말할 수 없는 두려운 투쟁을 경험하시고, 심판정의 모진 학대를 참으시고, 갈바리까지 가서 나무 위에 못 박히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요.

You know, as He hung there, friends, an awful struggle went on.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말할 수 없는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The heavens gathered blackness, the Father withdrew the beams of light and glory that had rested upon His Son.

하늘은 어두웠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위에 머물렀던 그분의 영광의 빛줄기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He was paying my penalty, dying my death, the second death, the awful death of separation from the Father - God's abandonment.

그분은 나의 죽음, 두 번째 사망-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운 사망,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는 않으시나 하는 두려운 경험을 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죄 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As He went down into that pit of woe and separation. It wrung His soul.

두려움과 분리의 고뇌의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And Satan pressed his temptations hard upon Him. He said, "Jesus, if You take that plunge, You will never live again. You will never see Your Father's face again."

그리고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네가 만약 이러한 무모한 위험을 감행한다면 네가 결코 다시 살 수 없다. 너의 아버지를 결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Bright hope did not present to Him His coming forth from the tomb. All was dark.

그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의 빛줄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But oh, friends, there was something that wasn't dark.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캄캄하지 않은 무엇이 있었습니다.

It was the light of love in His soul.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He loved me.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And He knew, friends, that if He took the plunge and died, whether He would ever live again, I could live and be in that glorious fellowship with God that He had enjoyed since the days of eternity.

그러나 친구들이시여, 영원히 다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험을 감행하면서 죽는다면, 내가 살 것이요, 내가 영원을 두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구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And He loved me so much that He was willing to give it all up, so I could have it.

그분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Do you agree with me, friends, that if this is not so, nothing matters, but if this is so,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else matters.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저와 동의하십니까?

He finally bowed His head and died.

결국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They took Him down and put Him in the tomb.

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지냈습니다.

And early in the mor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mightiest of angels flew on rapid wings from the celestial courts.

그리고 주일 중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천사 중에 가장 힘 센 천사들이 하늘 궁전에서 신속하게 내려왔습니다.

That stone was rolled away as if it were but a pebble, and Gabriel cried, "Son of God, come forth; Thy Father calls Thee."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마치 조약돌을 굴리듯 굴러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큰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There was a stir in the tomb, and Jesus arose and came forth.

무덤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The angels prostrated themselves before Him.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You remember as John tells the story in his gospel, that Christ lingered to comfort a poor, dear soul, Mary, who had been known as a sinner.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알려진 불쌍한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 무덤에 잠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But she had been forgiven. And there, with her tears blinding her, she was wondering what had happened to the body of the Lord.

물론 그녀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지요. 그곳 무덤 앞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눈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And you remember how, as the moment of recognition came, when He said, “Mary,” she sprang to fall at His feet, to embrace those feet that had been nailed to the wooden tree for her; those feet that she had bathed with her tears in Simon’s house just a week before.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이신 줄 알자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못 박혔던 발, 바로 얼마(1주일) 전에 시몬의 집에서 그녀의 눈물과 향유와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발이었습니다.

But what did Jesus say? “Touch Me not, for I a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but go to My brethren and tell them I ascend to my Father and to your Father, and to My God and your God.”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

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 다 하라.”(요 20:17)고 하셨습니다.

Jesus going to heaven that morning, the resurrection morning?
Oh, yes.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아침에 하늘에 가신다고요? 그렇습니다.

What for? Ah, friends, there is something on His heart.

무엇 때문에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의 마음에 한 가지 사무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May I read it to you, in some wonderful words, penned by the Lord's messenger, back in 1878, found in this old book, which was just reprinted a few months ago.

1878년에 주의 종이 기록한 놀라운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 예언의 영이라는 작은 책자에 있는 말씀으로 얼마 전에 재판된 책입니다.

You can get it at the Book and Bible House, old Spirit of Prophecy. This is Volume 3. Listen to this. Oh, this is wonderful:

서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라는 책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Jesus refused to receive the homage of his people until he knew that his sacrifice had been accepted by the Father, and until he had received the assurance from God himself that his atonement for the sins of his people had been full and ample, that through his blood they might gain eternal life.

“예수께서는 그의 희생이 아버지에 의해 수락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속량이 온전히 충족되고, 그의 보혈을 통해서 저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보증을 받기 까지는 저들의 경배 받는 것을 거절하셨다.

Jesus immediately ascended to Heaven” Spirit of Prophecy, Volume 3, page 202.

예수님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셨다.”(SP Vol.3. 202)

This is the resurrection morning.

이날은 부활하신 날 아침이었습니다.

“And presented himself before the throne of God, showing the marks of shame and cruelty upon his brow, his hands and feet.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서 그의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표를 보이셨다.

But he refused to receive the coronet of glory, and the royal robe, and he also refused the adoration of the angels as he had refused the homage of Mary, until the Father signified that his offering was accepted” Spirit of Prophecy, Volume 3, page 202.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의 제물을 수락하셨다고 승인하시기까지는 마리아의 경배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신 것처럼 영광의 관을 쓰시거나, 왕복을 입으시거나 천사들의 찬양 받기를 거절하셨다.”(SP Vol. 3. 202)

Now, listen, see why He holds back: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 also had a request to prefer concerning his chosen ones upon earth. He wished to have the relation clearly defined that his redeemed should hereafter sustain to Heaven, and to his Father. His church must be justified and accepted before he could accept heavenly honor” Spirit of Prophecy, Volume 3, page 202.

“그분은 또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요청을 하셨다. 그

분은 그분이 구속한 사람들이 그 때로부터 하늘에 올 수 있고 그분의 아버지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존경과 찬양을 받기 이전에 그분의 교회가 의롭다고 인정되고 수락되어야만 했다.” (SP Vol. 3, 202)

Oh, think of it, friends. There is the Father. There are all the angels waiting to welcome Him.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생각만 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갖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ut no, He cannot accept the adoration of the angels. He cannot even run to receive the clasp of those arms of His Father, until it is settled that you and I can be there with Him and have everything He has. Listen:

그러나 그분은 아직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팔조차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His church must be justified and accepted before he could accept heavenly honor.

“그분이 하늘의 존경과 찬양을 받기 이전에 그분의 교회가 의롭다고 인정되고 수락되어야만 했다.

He declared it to be his will that where he was, there his church should be; if he was to have glory, his people must share it with him.

그분은 그분이 있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면 그분의 백성들도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했다.

They who suffer with him on earth must finally reign with him in his kingdom. ...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의 보좌를 함께 나누어야 했다. ...

“God’s answer to this appeal goes forth in the proclamation: ‘Let all the angels of God worship him.’

“이러한 아들의 요청을 수락하시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선언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라!’

Every angelic commander obeys the royal mandate. ... The request of Christ is granted; the church is justified through him, its representative and head” Spirit of Prophecy, Volume 3, pages 202, 203.

모든 천사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 그리스도의 요청이 수락되었다. 교회는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그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요 머리가 되셨다고 했다.”(SP Vol.3. 203)

Friends, we are going to be ther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He got that settled before He would accept the embrace of His Father.

그분이 아버지의 포옹을 받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Oh, I think that is wonderful, don’t you, friends?

친구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고 가슴 벅차게 하는 일 아닙니까?

And you know the Father loves us just as much as the Son.

여러분들이시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The Father was oh, so glad, to see that His dear Son wanted us

there with Him, because that is the way the He feels, too.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아들처럼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Jesus came back that same day. And you remember later He allowed His disciples to worship Him, indicating that He had received this power and authority from His Father, and that everything was settled.

예수님께서 같은 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경배하도록 용납하셨고, 이는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고 모든 것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He spent those forty days with them in Galilee and Judea, talking with them and communing with them concerning the things of God.

갈릴리와 유대에서 저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셨으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But the day came when he left this earth and returned to heaven, to enter upon His priestly ministry.

그러나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이 왔습니다.

You remember the scripture says that with the eleven He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여러분은 성경에서 열 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There, as He reached the summit, He gave them His parting

words of instruction.

그곳 감람산에 오르셔서 저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기별을 말씀하셨습니다.

He stretched out His hands in blessing, and was slowly taken from them up into heaven.

그분은 양 팔을 벌리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천천히 저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You remember as Luke tells the story in Acts 1, that as the disciples, looking upward for the last glimpse of their ascending Lord, heard voices. They turned. There were two angels saying: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가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기록한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저들이 돌아봤습니다. 두 천사가 말하기를,

“This same Jesus, which i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shall so come in like manner as ye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Acts 1:11.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Oh, thank God that same Jesus that they knew, that loved them, has gone to heaven, and He is coming back.

저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 저들을 사랑하던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But now, watch, listen, as I read to you what took place that day in heaven, the ascension day. I am reading from Desire of Ages, pages 833, 834.

그러나 이제 잘 들으십시오.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읽어드렸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833-834페이지에 있는 말

씀을 읽습니다.

Here, you remember, are quoted those beautiful words from Psalm 24, as the angels at the gate raised the challenge,

여기에 시편 24편이 인용되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천사들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Who is the King of glory?” And the escorting angels sang, “The Lord of hosts; He is the King of glory.”

“영광의 왕이 뉘시뇨?”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인도하는 천사들이 “만군의 주시요,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화답합니다.

And so Jesus, with that angelic escort, enters the gates of pearl, and comes in before the Father.

예수님은 호위하는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진주 문들을 통과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도착합니다.

And here, friends, the representatives of the entire universe are gathered on this occasion:

여기 이 때 온 우주를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였습니다.

“There is the throne and around it the rainbow of promise.

“그 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다.

There are cherubim and seraphim. The commanders of the angel hosts, the sons of God,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fallen worlds are assembled. ...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죄 없는 우주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 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

All are there to welcome the Redeemer. They are eager to celebrate His triumph and to glorify their King.

저들 모두는 그곳에서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다. 저들은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고 저들의 왕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다.

“But He waves them back. Not yet; He cannot now receive the coronet of glory and the royal robe.

“그러나 그분은 그것들을 거절하신다. 아직은 그분이 영광의 관과 왕복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He enters into the presence of His Father. He points to His wounded head, the pierced side, the marred feet; He lifts His hands, bearing the print of nails. ...

“그분은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찢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시며, 못 자국 있는 손을 드신다. ...

Now He declares: Father, it is finished. I have done Thy will, O My God.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I have completed the work of redemption.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If Thy justice is satisfied,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The Desire of Ages, pages 833, 834.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요 19:30; 17:24).-소망 833-834

What is it that is in His heart?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Once again, this longing desire, that you and I shall be there with Him.

다시 한 번 여러분과 내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그 소원을 아뢴 것입니다.

And He must hear again, and the universe must hear, assembled through its representatives, the solemn pledge of the Father that the sacrifice of the Son is sufficient, and that Christ is guaranteed that He can bring with Him to that throne, every one of His children down here in this world.

그는 이러한 확약을 다시 한 번 들으셔야 했고, 온 우주가 분명히 들어야 했고, 온 우주를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죄인을 구속하기에 충분했고, 그분의 자녀들 된 사람 모두를 하늘에 데리고 와서 그분의 보좌를 함께 나누어도 된다는 타당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And Christ would not accept it until it was settled before all the universe, that you and I could be there with Him.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확약이 온 우주 앞에 공포되기 전에는, 여러분과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을 받기 전에는 저들의 경배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That is love, isn't it friends? That is love.

이것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Well, He entered upon His priestly work, and He has been there now nineteen hundred years and more.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날 이후 대제사장으로 1900년이 넘도록 봉사하고 계십니다.

The Bible tells us in Hebrews that He ever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us.

성경은 히브리서 가운데 그분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what Jesus prays up there in the sanctuary?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e says?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까?

Would you like to know?

알고 싶으십니까?

I will give you a little glimpse, friend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내용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지 맛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In the Spirit of Prophecy comments, as given us in the SDA Bible Commentary, is this wonderful statement:

이 말씀은 본 교회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으로 영감의 펜이 기록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This chapter”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Volume 5, page 1145.

(This seventeenth of John. That is what we are studying this morning, John 17:24.)

(본 교회 성경 주석 5권 1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영감의 글입니다.)

“This chapter contains the intercessory prayer offered by Christ to His Father just before His trial and crucifixion.

“이 장(요 17장)은 그리스도의 시련과 십자가 바로 전에 그의 아버지께 드린 중보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This prayer is a lesson regarding the intercession that the Saviour would carry on within the veil when His great sacrifice in behalf of men, the offering of Himself, should have been completed”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Volume 5, page 1145.

이 기도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커다란 희생 제물이 수납된 후 휘장 안에서 계속 이행하시게 될 중보에 대한 한 교훈이다.” (SDABC Vol. 5, 1145)

What is this prayer in John 17?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This is a sample prayer of the intercession of Christ within the veil.

휘장 안에서 계속하게 될 기도의 한 맛보기요, 샘플입니다.

If you want to hear what Christ is praying there at the mercy seat this morning, read this seventeenth chapter of John.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시은좌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실까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You will hear. And oh, as we have seen, the climax of it all is what?

여러분들은 그분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그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John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 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He is still talking about that. This is still His desire every day.
This is what He is praying for.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한 간구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매일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갈망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Ah, this is love, friends. This is love. He wants us with Him.

이것이 사랑입니다, 친구들이시여!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The heavenly Bridegroom is longing for His bride.

하늘에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From heaven He came and sought her to be His holy bride.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녀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찾으셨습니다.

With His own life, with His own blood He bought her, and for her life He died.

그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보혈을 주고 신부를 샀으며, 신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Now, listen friends, you and I know that we are in the closing hour of human history.

이제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The sanctuary is about to close.

성소 봉사가 이제 거의 마쳐지려고 합니다.

He that is righteous will be righteous still, and he that is filthy will be filthy still.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And then Jesus is going to come.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But you and I know that in between that close of probation and His actual coming, there is going to be a little period known as the time of trouble.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지점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 사이에 환난의 때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You know that we are to be tested.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We are to go through Jacob's trouble.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And then, right at the moment when it seems that the powers of earth,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ragon and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try to kill all God's people in one night, God speaks from heaven.

이 땅의 세력과 마귀의 앞잡이들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루 저녁에 몰살하려고 할 것이고, 바로 그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We look up through the open space in Orion.

그 때 우리는 오리온성좌의 열린 공간을 통해 위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We see the city of God, and Jesus, standing there before the Father.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d we hear Him.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We are down here in this world, still in the flesh, but we look up through that glorious opening, and see Jesus and we hear Him.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있을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열린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Do you know what we are going to hear Him say?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것인데 그 때 어떤 말씀을 하실 지 아십니까?

Oh, friends, listen while I read it to you from Great Controversy, page 636: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By the people of God a voice, clear and melodious, is heard, saying, ‘Look up,’ and lifting their eyes to the heavens, they behold the bow of promise.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The black, angry clouds that covered the firmament are parted,

and like Stephen they look up steadfastly into heaven and see the glory of God and the Son of man seated upon His throne.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In His divine form they discern the marks of His humiliation; and from His lips they hear the request presented before His Father and the holy angels: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Great Controversy, page 636.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 ... 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라고 간구하시는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듣는다.(쟁투 636)

Oh, yes. There it is, friends.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He prayed for us in Gethsemane, that we might be with Him.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He prayed for us on the resurrection morning, that we might be with Him.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

He prayed for us ascension day, as He was welcomed in heaven, that we might be with Him.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하셨습니다.

He has been praying that prayer all the time in this intercession within the veil.

그 후 휘장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And now, with the sanctuary closed and the day of re-union so near, there in Jacob's trouble, as He prays to His Father for you and me, He says,

그리고 이제 성소 봉사가 마쳐지고, 그분과 다시 연합하여 함께 살 시간이 아주 가까운 시기인 야곱의 환난의 기간을 통과할 때, 역시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기도하셨던 것과 동일한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Oh Father, I want that re-union day.

오- 아버지, 나는 저들과 다시 연합하는 날을 원합니다.

I want the hour to come when I can go and get My bride and bring her home.

내가 가서 나의 신부를 데리고 올 시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I want My people with Me.”

나는 나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Ah, thank God, friends, that prayer will be answered.

아- 친구 여러분들이시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All this is why He came to earth.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This is why He died.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This is why He rose and went back to heaven.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And this is why He is coming again.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You remember He said in John 14:2, 3: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 I go” John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 14:2)

What for?

무엇 때문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To prepare a place for you” John 14:2.

“너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14:32)라고 하셨습니다.

The whole thing is for us, friend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e may be also” John 14: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See what He wants? Oh, listen.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While He is getting the place ready for us, He is getting us ready for the place.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장소를 차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Aren't you glad? I would hate to go up there dirty, filthy, perverted, twisted, wouldn't you?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기쁘지 않습니까? 나는 더럽고 누추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몸으로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 혐오할 것입니다.

Thank God for His glorious gospel which washes from sin, changes the perverted, twisted character, and makes it like the original creation, only closer to Him in fellowship.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왜곡되고 뒤틀린 품성을 고치셔서 창조 당시처럼 변화시키시고 오직 그분과 더 가까운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Because through eternal ages we shall know the fellowship of One who joined the divine nature and the human nature in Himself, who died for us, and who could not be reconciled to life, unless we could share it with Him.

이는 우리는 영원을 두고 거룩한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쓰신 분, 우리와 다시 화목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없다면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던 그분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This is how much He loves you, my friend. This is how much He loves you.

나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The choir is going to sing a message for us now.

찬양대가 이제 특별한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내가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할 때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그 십자가 위에서 영광의 왕께서 죽으셨네.

My richest gain I count but loss,

나의 소중한 부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네.

And pour contempt on all my pride.

나의 모든 자만심을 버리네.

See, from His head, His hands, His feet,

그의 머리부터 손발을 볼 때에

Sorrow and love flow mingled down;

슬픔과 사랑이 섞여서 흘러내리네.

Did e'er such love and sorrow meet?

이와 같은 사랑과 슬픔이 함께 만난 적이 있었던가?

Or thorns compose so rich a crown?

아니면 그렇게 많은 가시가 면류관을 만든 적이 있었던가?

Since I, who was undone and lost,

미완성이요, 잃어버린바 된 나였지만,

Have pardon thro' His name and word;

그분의 이름과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네.

Forbid it, then, that I should boast,

그렇다면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금하소서.

Save in the cross of Christ, my Lord.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말게 하소서.

Were the whole realm of nature mine,

온 세상이 내 것이 된다 해도,

That were a tribute far too small;

그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리라.

Love so amazing, so divine,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이로다.

Demands my life, my soul, my all.

사랑은 내 목숨과 내 혼과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구나.

Let all the congregation say, Amen.

모든 회중들로 아멘하게 할지니라.

Love so amazing, so divine,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이로다.

Demands my life, my soul, my all.

사랑은 내 목숨과 내 혼과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구나.

Do you know, friends, what we can give Him this morning?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We can give Him what He paid all this for, our love, our fellowship, our friendship.

우리는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 우리의 사랑, 주님께서 원하시는 친교와 우정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If we mean business on this, let's stand in full surrender just now.

진심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신다면 자리에서 지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And now, before we have our closing prayer of dedication and response to this wonderful love, I want to give an opportunity to somebody here that recognizes that this decision this morning is for you a special one.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감사를 표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오늘의 기별이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기별이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결심을 표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I mean this, friends. I cannot read your heart.

친구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I am sure there are many here this morning, that your standing means that you're pressing on the upward way, surely with the determination to quicken your pace, to move faster.

오늘 이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그 의미는 위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의 발길을 더욱 재촉해 더 빨리 하늘에 가고자 하는 결심이라는 것

을 확신합니다.

But there is somebody here this morning, friends, for whom this decision means, not merely to move more rapidly, but to turn clear around from the direction you have been going.

그러나 친구들이시여, 오늘 이 아침의 결심이 더욱 신속하게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결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던 길에서 180도 회전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ere is a difference, you know? It is one thing to quicken our pace on the upward road. It is another thing to turn clear around, when we are on the downward road, and turn our faces heavenward.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하늘을 향해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됩니다. 가던 길에서 완전히 되돌아 방향 전환을 하는 것, 밑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하늘을 향해 가는 것과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Is there somebody here this morning, you may not be a member of the church, but you hear Christ's call to give your life fully to the One who has shown such love for you?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Or you may be a member of the church. Your name may be on the books, but you realize that you have been walking apart from God, that the world has come between your soul and His.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분이요,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녹명책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세

상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You realize this morning that to walk with Jesus means to turn clear around and start in a different directions.

오늘 아침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If there is somebody like that here, would you just come forward right now?

그런 결심을 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I want to pray for you in a special way as we close this service.

이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Somebody that knows that this is for you, life can never again be the same, you realize that a new direction must be given to your life, a new goal established, that your life must be different, entirely different from what it has been.

오늘 이 아침 드린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별이라면, 여러분의 생애는 이전의 생애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이요, 그대 자신의 삶을 위해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요, 새로운 목적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이 생애 자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삶과 판이하게 다른 삶이 되어야 할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Church member or non-church member, come this morning, if you know that this service has been for you, that Christ's call just now is for you.

본 교회 교인이든지 아니시든지,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Oh, you come friends. Put your hand in His and make His heart glad with that joy, the joy of seeing the one for whom He died with Him.

오- 친구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영혼이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만끽하시는 그분께 손을 내밀어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6. The White Stone

6. 흰 돌

Study given by W. D. Frazee - April 25, 1972

1972년 4월 25일 W. D. 프래지 목사 설교

A friend of mine found this beautiful white stone, out on a walk, and I borrowed it, because I wanted it for my text tonight. You will find it in Revelation 2:17, the white stone:

내 친구 한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흰 돌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렸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드릴 성경절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흰 돌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e that hath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ith unto the churches;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ive to eat of the hidden manna, and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eth saving he that receiveth it” Revelation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

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According to this text, and I believe God's promise, when I get up to heaven, one of the wonderful things which is going to happen is that Jesus is going to give me a white stone.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하늘에 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길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In the stone there will be a name written.

그 흰 돌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It's a new name.

새로운 이름입니다.

And nobody else ever had it, and nobody else will ever have it.

그 누구도 그런 이름을 가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It is a special name. It is Jesus' pet name for me.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지어주시는 특별한 애칭입니다.

And nobody else will know it. Nobody else will understand it.

다른 아무 사람도 그 애칭을 모를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I suppose some of you, when you were youngsters, had a pet name that father or mother or brother or sister called you. Am I right? Yes. You knew what it meant.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 형제자매들이 불렀던 애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

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 것입니다.

Daddy and mother knew.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뜻을 압니다.

It might sound strange if I would tell you the pet name my mother had for me. You would be amused.

여러분들에게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불렀던 애칭을 말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웃으실 것입니다.

And you wouldn't understand it either, but she did, and I did.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Jesus is going to give me a white stone, and in that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body else knows, except the one who receives it.

예수님께서 나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 있을 것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 돌을 받은 사람과 예수님만 알 것입니다.

You see, in the Bible, a name stands for character, or nature.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품성이나 어떤 특성을 의미합니다.

Names in the Bible were special things.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Hannah called her little boy Samuel, which means, asked of God.

한나는 그의 어린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The angel said to Joseph, concerning the birth of Jesus to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새로 태어나게 될 아이에 대해 이름을 알려줬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고 했습니다.

It means Saviour. And so with many of the other Bible names.

그 이름의 뜻은 구세주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o, when Jesus gives you your name, the reason it will be a name that nobody else knows, is that nobody else has your character.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다른 아무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의 품성이 다른 어떤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You will be unique in heaven as you have been on earth.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주 특별하고 독특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할 것입니다.

Through eternal ages you will be a special treasure; something very valuable because there is nobody else like you; a rare gem, more precious than any ruby or emerald or amethyst or diamond, more precious than gold, for it is written:

영원을 두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보화처럼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주 희귀한 보석처럼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루비, 에머랄드나 자수정, 또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보다 더 귀한 존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I will make a man more precious than fine gold; even a man
than the golden wedge of Ophir” Isaiah 13:12.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사
13:12)

I love that little song the children sing:

나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When He cometh, when He cometh

To make up His jewels,

그의 보석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All His jewels, precious jewels,

His loved and His own;

그분의 모든 보석들, 소중한 보석들,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 자신의 것들,

Like the stars of the morning,

아침의 별들처럼

His bright crown adorning,

그분의 밝은 면류관을 장식하는 보석들,

They shall shine in their beauty,

저들의 아름다움을 비추리라.

Bright gems for His crown.

그분의 면류관을 위한 빛나는 보석들!

Little children, little children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

Who love their Redeemer,

구세주를 사랑하는 아이들!

Are the jewels, precious jewels,

His loved and His own;

저들은 보석들이요, 소중한 보석들이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분의 것이라.

Like the stars of the morning,

아침의 별들처럼

His bright crown adorning,

그분의 밝은 면류관을 장식하는 보석들.

They shall shine in their beauty,

그들의 아름다움을 비추리라.

Bright gems for His crown.

그분의 면류관을 위한 빛나는 보석들.

(찬미가에 번역된 노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늘 비치겠네.

And concerning the stars that light the dome of heaven, it is written:

하늘 궁전을 비추이게 될 별들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One star differeth from another star in glory” 1 Corinthians 15:41.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고전 15:41)

Search the heavens with your eye or with the aid of a telescope, and you will never find two alike.

여러분들의 눈으로 또는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해도 두 별이 똑 같은 별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Each has its peculiar hue and degree of light.

별마다 각기 크기와 밝기가 다릅니다.

Each one is unique.

별마다 독특하고 다릅니다.

Our God is infinite, and He delights in making everything He makes by a new and separate and distinct pattern.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요, 그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새롭고 서로 같지 않게 그리고 독특한 모양으로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If this is true of the star and the snowflake, oh, how much more

it is true of the being that He has created for fellowship with Him!

별들이 다르고 내리는 눈발이 다 다르다면 그분과 함께 친교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만드신 사람들이야 말로 얼마나 각기 다 다르겠습니까?

Through eternal ages the fellowship which He will enjoy with You will be unique.

영원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될 친교 역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Nobody else will share that inner joy, that sweetest fellowship which belongs to you and Him alone:

그대와 예수님께만 속한 달콤한 친교의 기쁨은 그 누구와도 함께 누릴 수 없는 내적 기쁨입니다.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ive to eat of the hidden manna, and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eth saving he that receiveth it” Revelation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Oh, friends, what will your new name be? I don't know. You don't know yet.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는 여러분의 새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모릅니다.

Jesus is going to present it to you. And friends, that is only the beginning.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실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것은 하늘에서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That is only the beginning of an eternal, personal, close, intimate, exclusive fellowship which you and Jesus are going to enjoy all through eternity.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원을 두고 예수님과 사귀게 될 개인적인 친교, 다른 어떤 사람하고 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것에 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we are going to enjoy with Jesus there, is that He is going to explain all the perplexities of this life; all the disappointments that we could not understand.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즐길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생애의 모든 난문제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실망스러웠던 일들을 설명해 주심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He said to Peter there at the supper in the upper room: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hat I do thou knowest not now; but thou shalt know hereafter” John 13: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요 13:7)

And He says that to each of us.

그리고 그분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Are there some things that you wish you could understand?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이해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Are there some things you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Ah, He is saving them up to explain them to you when they will bring the greatest joy and mean the most.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커다란 기쁨을 가져오고 그 의미가 극도에 달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감추어 두고 계십니다.

Under those spreading branches of the tree of life down by the river, Jesus will walk with you and explain everything that has ever perplexed you.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지 밑에서 예수님이 그대와 함께 걸을 것이며, 그대를 당혹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Read the closing pages of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9. Catch the thrill of the picture, as Jesus unrolls the scroll, unravels everything, makes plain everything.

교회증언 9권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두루마리를 펼칠 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joy, unspeakable joy, will fill our hearts.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There is another thing that Jesus is going to do for us on those walks, that He is going to give us, personally.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 우리들 개인들에게 해 주실 것들이 또 있습니다.

And friends, don't ask me how He is going to walk with a million, million people and give each one individual attention.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나에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개인적

으로 함께 걸으며 어떻게 친교의 정을 나누면서 사귄 것인지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I don't trouble my head about the logistics of that at all.

나는 나의 머리로 그런 문제를 이해하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bother me.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 know if I am ever going to get any attention at all, it will be because He is not diverted or distracted by anybody else.

혹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That is what He has promised, to give me His individual attention in heaven, as on earth, just as though I were the only one in the universe.

이것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그분의 개인적인 관심을 나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마치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대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He is able to do that because He is infinite.

그분은 그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it. I know it, because that is the kind of attention He is giving me now.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는 지금도 그런 관심과 배려를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So, on some of those walks, do you know what He is going to do?

하늘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십니까?

He is going to give me lessons from nature.

주님께서 자연계에서 나에게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Wouldn't it be wonderful to have Jesus point out this flower, that bird, yonder tree, and bring some wonderful spiritual lesson that He put into the plant, or the creature?

예수님 자신이 지으신 꽃, 나무들을 지적하시면서 저들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나무들과 피조물 속에 감추어 두셨던 영적 교훈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습니까?

Wouldn't it be wonderful to take a nature walk with Jesus, with Him as the guide? He is going to do that for me.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로 삼고 우주의 천연계를 함께 걷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 일을 해 두실 것입니다.

He is going to do it for you.

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But then there is something else, and I must read this to you.

그런데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This is from Adventist Home.

이것은 재림신도의 가정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See how this fits together with what we have been studying this week, and what we studied this morning.

우리가 이번 주에 연구한 것과 오늘 아침 시간에 연구하는 것들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살펴봅시다.

Listen: “Do you think we shall not learn anything there: We have not the slightest idea of what will then be opened before us. With Christ we shall walk beside the living waters” Adventist Home, page 547.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그때에 우리 앞에 무엇이 공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 곁을 곁을 것이다.”(가정 547)

The men sang just now:

조금 전에 몇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My Lord and I, we have such sweet communion,
We walk and talk along life's busy pathway.
We are going to walk with Him there:

나의 주님과 달콤한 대화를 했네.
분주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함께 걸으며 대화하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리.

“With Christ we shall walk beside the living waters. He will unfold to us the beauty and glory of nature. He will reveal what He is to us and what we are to Him” Adventist Home, page 547.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 곁을 곁을 것이다. 우리에게 천연의 아름다 움과 영광을 공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대해서 당신께선 어떠한 존재이시며 우리는 당신께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 주실 것이다.”(가정 547)

Oh, when my wife showed me that a few days ago I was just thrilled.

며칠 전에 내 아내가 이 말씀을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She knows I like things like this, and so when she finds them,

she picks them just like flowers, and has them ready for me.

내 아내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가운데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꽃들과 나무 기타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And isn't this wonderful? Yes.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He will reveal what He is to us and what we are to Him"
Adventist Home, page 547.

"... 우리에게 대해서 당신께서 어떠한 존재이시며 우리는 당신께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 주실 것이다."(가정 547)

Why, friends, no matter how much we revel in what I have been sharing with you this week, of how much we mean to God, there is going to be bushels and bushels and bushels more, when we get home, and Jesus can really walk with us and tell us what He is to us and what we are to Him.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 본향 집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May I tell you friends, there is something in every human heart that longs to mean something special to somebody.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이 다 있습니다.

And here is where you can have it - I was going to say to the limit - on beyond the limit.

여기 바로 이 순간 그러한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한계를 초월한 관계!

There is no limit.

한계가 없습니다.

You have no idea what you mean to Jesus, and He is going to tell you about it Himself.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Say, wouldn't it be a shame to miss it, friends? Wouldn't it be a shame to miss it, to hear from Jesus, Himself, what you mean to Him?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안 된 일이겠습니까?

Not merely because of what you would miss, but think what it would mean for Him to miss telling you what you mean to Him.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설명하실 때 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신다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If there is somebody that means something special to you, don't you like to tell them?

혹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실을 저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Why, of course.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Jesus wants to tell you. He tells us something here, but oh, as this says: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Truth we cannot know now because of finite limitations, we shall know hereafter” Adventist Home, page 547.

“지금은 유한한 제약 때문에 알 수 없는 진리를 오는 세상에서는 알게 될 것이다.”(재림신도의 가정 547)

This is so beautiful, I am going to try to read it through this time without interrupting it. Listen: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Do you think we shall not learn anything there: We have not the slightest idea of what will then be opened before us.

“그대는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에 우리 앞에 무엇이 공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With Christ we shall walk beside the living waters.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 곁을 걸을 것이다.

He will unfold to us the beauty and glory of nature. He will reveal what He is to us and what we are to Him.

우리에게 천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공개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대해서 당신께서 어떠한 존재이시며 우리는 당신께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 주실 것이다.

Truth we cannot know now because of finite limitations, we shall know hereafter” Adventist Home, page 547.

지금은 유한한 제약 때문에 알 수 없는 진리를 오는 세상에서는 알게 될 것이다.”(가정 547)

Let’s be sure to be there and make Him happy. What do you say, friend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다같이 그곳에 가서 그분을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That was in the second chapter of Revelation.

지금까지 함께 연구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Let’s go to the third chapter of Revelation.

이제 3장에 있는 몇 말씀을 읽읍시다.

We were looking at this twentieth verse in an earlier lesson, but now I want to look at the twenty-first verse.

이미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하겠습니다.

But we will read the twentieth verse with it, because they belong together. Jesus says:

그러나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even as I also overcame, and am set down with my Father in his throne” Revelation 3:20, 2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0,21)

Here is another promise to the overcomer.

여기에 이기는 자들을 위한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Jesus is not only going to give you and me a white stone with that special name in it, that nobody else knows or understands - just a personal name between Jesus and us - He is going to - wonder of wonders - invite us, you, me, to sit where with Him?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특별한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것이며, 그 어떤 사람도 그 이름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름, 예수님과 그 사람과만 알고 지낼 특별한 개인적인 이름을 주실 것뿐만 아니라, 놀랍고 신비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여 그분과 함께 어디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In His throne. Now,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iends.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요. 친구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more I have looked at this, the more I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important thing both to me and to Him is not the throne.

내가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나와 예수님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t is to be with Him. You notice He says:

그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Revelation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Why, yes, if Jesus is on the throne, I would like to be on the throne so I can be with Him. And if Jesus is on the throne, He would like me to be there on the throne, so I can be with Him.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가서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보좌에 함께 앉자고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Do you see?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But the important thing, I repeat, is not sitting on the throne.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You remember when Christ was here, as He drew near to the end of His ministry, one day James and John came to Him and what did they ask? “Oh,” they said, “Will You do something for us?” Just like children, they said, “Will you give us anything we ask?”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상사명을 마치시려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하듯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Jesus said, “Now, what is it you want.”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Oh,” they said, “we want to sit right next to you in your kingdom, one on your right hand and one on the left.”

저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Jesus said,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Are you able to drink of the cup that I drink of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that I am baptized with?”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겠느냐?”고 하셨습니다.

They said, “Yes we are. We are able.”

“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Jesus said, “You will drink of My cup, and you will be baptized with My baptism, but to decide who is going to sit on My right hand and on My left is with My Father.”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지언정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라.”고 하셨습니다.

You see, one of those young men that asked that question is the one that many, many years later wrote down these words we are studying tonight.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그러한 질문을 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랜 후에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He learned the lesson. He got the point.

그는 그가 배워야 할 교훈, 그 핵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Oh, friends, and even in that early day, when James and John asked for that special favor, Christ knew that underneath the

obvious selfishness was a longing to be with Him, and He appreciated it.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초창기 시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특별한 요청을 했을 당시에 저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또한 저들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음을 아셨으며, 예수님은 저들의 요청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young men and women, and older ones too, if at times you are discouraged with your own selfishness, remember Jesus looks deep down, and He knows you want to be with Him, and He appreciates that.

여기에 있는 남녀노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이기심 때문에 때때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He looks deeper than other human beings can.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보다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You know, sometimes even when we are trying to testify or to sing or to speak for God, somebody may say in their hearts or they may even tell us, "It looks to me like you are just trying to show off, just trying to get attention, or this or that."

때때로 우리가 간증을 하고 특별 찬양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또는 저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Or our own hearts may condemn us.

혹 우리 자신들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Dear ones, I want to tell you. Anything we do for God the way we are at present, is marred with our humanity.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It is weak and inefficient. It is incomplete.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한 것이 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And thank God, Jesus is in the business of adding the incense of His merits all the while.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공로로 지금까지 우리의 부족을 위해 채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You remember in the ancient sanctuary, as the people prayed and as the priest interceded, the incense ascended.

성소 봉사가 진행되던 옛날에 사람들이 기도하면 제사장이 저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면 분향단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And oh, I am so glad that Christ is in the business of making my prayers acceptable.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He makes them smell sweet. He perfumes them. Aren't you glad for that, friends?

우리의 기도를 달콤하게 하시고, 향기를 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So don't be afraid to talk to God or to talk about Him.

그러므로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Bring to God what you have, the best you have.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And He will make up the deficiency.

모자라는 것, 부족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He understands what human beings may not understand.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He loves you. He loves to have you with Him.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십니다.

And He took James and John, in spite of their strange and obviously selfish request, and got them ready for the place where they can, not only sit next to Him like they asked, but they are going to sit right in the throne with Him. Isn't that wonderful?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기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저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 양 옆에만 앉을 수 있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Oh, how it must have thrilled John's heart, out there on rocky Patmos, to get the answer of how he was to be so close to His Lord.

아- 바위로 둘러싸인 밧모 섬에서 주님 곁에 가깝게 앉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요청이 수락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가쁘게 뛰었을까요?

He had pressed close to Him, you remember, in those journeys
through Galilee and Judea.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요한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통과할 때 예수님 가
까이 걸었습니다.

He had leaned on His breast at supper time, right next to Him.

마지막 만찬 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고, 예수님 바로 곁에 기대고 앉았
습니다.

Friends, press close to Jesus. He wants you. He loves you.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 가깝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I've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나는 한 친구를 찾았네. 놀라운 친구!

He loved me ere I knew Him;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은 나를 사랑했네.

He drew me with the cords of love,

그분은 사랑의 끈으로 나를 이끌었네.

And thus He bound me to Him.

그리하여 그 끈으로 나를 묶었네.

And 'round my heart still closely twine

그리고 내 마음을 단단히 묶었네.

Those ties which naught can sever,

그 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네.

For I am His, and He is mine,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네.

Forever and forever.

영원히 영원토록.

이 시를 번역한 찬미가 있어 아래 그 가사를 적습니다. (역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둬갔네.

주 나의 안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Yes, He is going to give me a white stone with that new name
which nobody else ever had, and nobody ever will have nor
understand, that pet name, His love word for me through all
eternity.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흰 돌을 주실 것인데, 그 위에 새 이름이 새겨진
돌이요,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가질 수도,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는
이름이요, 영원을 두고 예수님께서 불러줄 사랑의 애칭,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And He is going to invite me to sit with Him on His throne,
right up there next to Him in the throne of the universe, friends.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에, 그분 바로 옆에 앉으라고, 온 우주의 보좌에
앉으라고 나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친구들이시여!

Say, I am glad He is going to be there.

아- 나는 그분께서 그곳에 계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I am glad He is not going to go off and leave me there on the
throne without Him. Aren't you? Oh yes.

주님께서 나만 보좌에 앉혀 놓고 주님 없이 나 혼자만 그곳에 앉아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You know the picture I get.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When my little girl was really little, sometimes I used to take her on my lap and let her hold the wheel in the car.

내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딸을 안고 운전을 하면서 딸의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나와 함께 운전하도록 하곤 했습니다.

She just liked to do that.

내 딸이 나와 함께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Sure.

분명히 그랬습니다.

It is a good thing daddy's hand was on the wheel too, wasn't it? Yes.

아빠의 손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이 천만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And friends, Jesus is going to let me sit in the throne of the universe with Him.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우주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그 옆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He is going to be there too. We will sit there together.

그분이 그곳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But it is going to be more than a child-father relationship.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딸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런 관계 이상이 될 것입니다.

It is going to be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Oh, thank God, friends, we are going to grow up.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be people that God can counsel with, not that we will ever be infinite like He is.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But oh, thank God, we will be able to share His thoughts, His plans, His ideas, and He will love to hear us talk with Him.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분의 이상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대상이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좋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You know, He is going to take us with Him on tours throughout the universe.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우주여행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You remember the fourteenth chapter of Revelation tells about that?

요한 계시록 14장에 이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These are they which follow the Lamb whithersoever he goeth”

Revelation 14:4.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계 14:4)

Yes, as the King goes throughout His vast dominion, we won't have to have any space ships, any rockets, any oxygen tanks, nothing of that awkward bungling nature. No, no.

그렇습니다. 왕께서 그분의 넓은 통치 영역인 우주를 행차하실 것입니다. 우주선이나 로켓을 타거나 또는 산소탱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격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Unfettered by mortality, they wing their tireless flight to worlds afar--worlds that thrilled with sorrow at the spectacle of human woe and rang with songs of gladness at the tidings of a ransomed soul” Great Controversy, page 676.

“죽음이라고 하는 족쇄를 차지 않고, 멀리 있는 세상을 향해 피곤해 하지 않으면서 저들의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인간이 당하는 고뇌를 보면서 슬퍼하던 사람들이 인류의 구속의 복된 소식을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세상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직역(쟁투 676)

On through the universe, and Jesus is going to be so happy having us enjoy meeting the people on the other planets, and talking with them.

우주여행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우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시며 매우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Jesus is going to enjoy listening as we give our testimony.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저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들으시며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You will give your testimony there, and it will not be like any-

body else's.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간증을 그 때 그곳에서 하게 될 것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간증과 다른 간증이 될 것입니다.

Why should it be like somebody else here, then? Oh, no, never try to parrot someone else.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처럼 되려고 안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We are not parrots, nor apes, nor tape recorders.

우리는 앵무새도, 흉내 잘 내는 원숭이도 아닙니다. 또한 카세트테이프도 아닙니다.

No; nothing of the kind.

결코 이런 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We are individuals, each one different.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들입니다.

Each one a rare gem selected by the Creator to shine in His crown forever and forever.

우리 각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독특한 보석으로 그분의 면류관에 달려 영원을 두고 그 독특한 광채를 발하게 될 보기 드문 보석들입니다.

Say folks, if we are going to have those wonderful experiences there, what is the use of waiting until we get there to have them?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늘에 가서 하고자 원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You know, there is no end on the other end. Eternity has no end.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세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The only way to get more of what we are talking about is to start quicker; start sooner; start earlier. And there is no time earlier that you can start than right now.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경험들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면 하루 속히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 보다 더 빠른 시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Behold, now is the accepted time.

“보라. 지금이 받으실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And I am not talking just about living the Christian life.

나는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You know there is many a burdened Christian like a weary Pilgrim walking up the steep road with a heavy load upon his back, seeking to make the top.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피곤한 순례여행을 가는 동안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꼭대기에 가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Well, friends, do you remember - how many of you ever read Bunyan's Pilgrim's Progress?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읽어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지요.

Oh, yes.

그렇지요.

Do you remember that picture of Christian going along with

that heavy load on His back and oh, he wished he could get rid of it, but he never could.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로역정에 나오는 기독교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가 얼마나 그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He tried this and that, and it was still there.

그는 이것저것 다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짐은 그의 등에 있었습니다.

But one day as he was going along the road to the Celestial city he stopped.

그러던 어느 날 천국을 향해 가다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He saw a cross.

그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And as he stopped and looked at that cross, something happened, friends.

가던 길을 멈추고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Bunyan, in describing it says:

번연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e strings that bound that load to him loosened and he saw that load fall off his back and roll and roll and roll until it went into an empty tomb” John Bunyan, Pilgrim’s Progress.

“그의 등에 지고 있는 짐을 단단히 묶었던 줄이 풀리고 그의 등에 있는 짐이 떨어지고 빈 무덤까지 곤두박질을 쳐서 굴러 내려갔습니다.”(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And He says:

“I saw it no more” John Bunyan, Pilgrim’s Progress.

그는 말하기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존 번역의 천로역정.

Then Bunyan says:

번연이 말하기를

“Then was Christian glad and joyful.

“그런 후에 기독교는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He went on his way happy.

그리고 그는 그의 길을 기쁨으로 갔다.

“Thus far did I come laden with my sin,

“거기까지만 나의 죄 짐을 무겁게 지고 갔다.

Nor could ought ease the grief that I was in”

그 누구도 내가 처해 있는 슬픔을 달랠 수 없었다.

(John Bunyan, Pilgrim’s Progress.)

(존 번연의 천로 역정)

And then he says:

그는 말하기를

“Blessed cross, blessed sepulchre, blessed rather be

The man that there was put to shame for me”

“복되도다. 십자가여. 복되도다, 무덤이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그 안에 감금을 당한 자가 복을 받을지어다.”

(John Bunyan, Pilgrim's Progress.)

(존 번연의 천로역정)

Friends, this morning I think we saw Him on the cross, and we saw the empty tomb, didn't we?

오늘 아침에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텅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We heard His words of love both before Calvary and afterward:

갈바리로 가시기 전과 그 후에 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John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Let's enter into the joy of it now. What do you say, friends?

그렇다면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당장 그러한 기쁨에 들어갑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d when Satan comes to bother us with our past sins, let's sing,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들먹이며 우리를 괴롭힐 때 다 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시다.

“My sins are all nailed to the cross. Jesus took them there.”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네. 예수님이 모두 다 십자가로 가져 가셨네.”

He suffered the burden. He carried the burden.

그분이 죄의 고통을 당하셨네. 그 모든 짐들을 지셨네.

He took the load. He doesn't want us to carry it, friends.

그분께서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짐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친구들이시여!

It would crush us. He wants us to enjoy fellowship with Him.

우리가 그 짐을 지면 그 짐은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Now, back again at that third chapter of Revelation:

다시 요한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Revelation 3:20, 2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0,21)

The fellowship doesn't begin up there.

이러한 친교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It begins down here.

그 일은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Notice the One with whom we will sit up there, is the One that wants to sit with us down here.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앉게 될 그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The One who will gird Himself and feed us up there, wants us to feed Him down here.

하늘에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리실 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에게 잡수실 것을 드리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리기를 바라합니다.

The One that will take us on a walk up there, all through the universe, wants to walk with us the dusty paths of daily life.

하늘에서 온 우주를 여행하시며 우리를 데리고 다니실 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지 나는 길을 그분과 함께 걷기를 바라합니다.

The One who is going to talk with us up there, wants us to talk with Him down here, and let Him talk to us.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바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Let me give you what I think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statements on this whole subject. It is found in Ministry of Healing. Listen: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감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Cultivate the habit of talking with the Saviour when you are alone, when you are walking, and when you are busy with your daily labor.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Let the heart be continually uplifted in silent petition for help, for light, for strength, for knowledge.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Let every breath be a prayer” Ministry of Healing, pages 510, 511.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치료봉사 510, 511)

You know, I was asking you in one of the other studies, if I came to your house and knocked at your door and you invited me in for supper, who would you expect to furnish the food?

내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렸고, 여러분이 나를 만찬에 초대했을 경우 누가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What did you tell me? Would you feed me? Will you feed Jesus?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까?

Now I want to ask you another practical question.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uppose Jesus is here now. He is knocking there at the door.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We say, “Come in, dear Jesus. Sit down.”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했습니다.

Listen, would you talk to Him, or would you just sit there?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Or would you go off in another room and just talk to other people and leave Him sitting there?

아니면 다른 방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도록 하겠습니까?

Really, what would you do if He knocked at the door and you invited Him in?

정말로, 만약 예수님께서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셔 들이시겠습니까?

Would you visit with Him? Well, why not do that? Why not make it very practical?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십시오. 좀 더 실제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십시오.

Every morning when you wake up say, "Dear Jesus, I want You to be with me all day today."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 온 종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십시오.

You say, "Well, I do that."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Do you? Do you say anything to Him during the day?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말을 하십니까?

Suppose I came to your house to visit.

내가 여러분 집에 방문했다고 합시다.

You would feed me breakfast. Would you just leave me sitting there all day until evening?

아침을 차려 잘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나 혼

자 앉아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Oh, no, I know you wouldn't.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Do you see what I mean, dear friends?

친구들이시여, 내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Let's be very practical and simple in our faith about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 보다 실제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Let's visit with Jesus all day long.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도록 합시다.

Remember, the relations between God and each soul are as distinct and full as though that one were the only one in all the world (Steps to Christ, page 100).

하나님과 나누는 친교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혼자 밖에 없는 것처럼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100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e wants to be with us. That is what He died for, so He could be with us and we with Him.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말입니다.

And He can't wait until we get up to heaven for it.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오기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습니다.

He comes down here - invisible, true, but none the less real - and walks with us in the daily routine of life.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일과 중에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He who walked the paths from His home to the carpenter's shop and from the carpenter's shop to His home, who walked to church every Sabbath morning, who walked out in the community in missionary work, who walked in chores around His own home, helping father and mother, that same Jesus wants to walk with us as we cheerfully take up the burdens of daily life, and enter into the experiences of serving.

그분은 그분의 집에서 목숫간으로 가셨고, 목숫간에서 집으로 오가셨고, 안식일 아침이면 교회에 가셨고, 동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을 거리들을 다니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도우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을 함께 지시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My dear friends,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나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The sweetest fellowship with Christ we shall ever enjoy is fellowship in working for others.

그리스도와 달콤한 친교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아름다운 친교를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You know that to have fellowship with somebody, you have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ir goals, and share them, more or less.

누구와 함께 친교의 정을 두텁게 하려면 저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들의 취미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누어야 합니다.

What they are interested in has to be something you are interested in.

저들의 관심사가 그대들의 관심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Do you know what Jesus is interested in? He is interested in souls.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He is interested in you, and He is interested in others.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And as you begin to understand more and more what you mean to Him, you will understand what other souls mean to Him, and your heart will be linked with His in a longing that they, too, shall know this fellowship.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저들에 대해 가지기를 원하시는 친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Soul winning - that is the great joy of life.

영혼 구원이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입니다.

Oh, I hope every one of you will dedicate your life to soul winning.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 사업에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For may I tell you, friends. The last opportunity to do this will soon be over.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곧 지나가버릴 것입니다.

In heaven we shall have all these wonderful things we have been talking about tonight, but we sha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to go out and win a soul.

우리가 오늘 연구한 주제들에 대해 하늘에서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Never. All we ever do in that line will be now.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Oh, I am so glad that we can share that fellowship with Christ. What do you say?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 when we kneel down to pray to Jesus, let us share with Him His burden for the lost.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염원을 함께 나누십시오.

I hope you have a prayer list. If you don't, I hope you will start one. I have one.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도의 제목들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I write down the names of people that God especially burdens

me to pray for. Some of them are in this room tonight.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록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Oh, friends, I am glad your name is on Jesus' prayer list.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록 가운데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He is thinking of you every day.

그분은 매일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As you make a little prayer list, remember your prayer list is part of His prayer list.

여러분들이 기도 목록을 만들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목록이 예수님의 기도 목록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his gives you a bond of fellowship with Him.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과의 친교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You and Jesus are agreeing to pray for a certain soul, and this ties you to Him in an intimate way.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 기도하기로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떼어 수 없는 끈으로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You can remember those names on your knees.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s you kneel there with the open Bible and let Jesus talk to you

through His Word, and then you talk to Him in prayer, remember those names and pray for those souls that God has burdened you with.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도록 부담을 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And then do not wait until evening or the next morning to pray again. What did I read here?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저녁이 될 때까지 또는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Cultivate the habit” Ministry of Healing, page 511.

“습관을 기르라!”(치료봉사 511)

What is a habit? Well, that is something you have done so much that it just becomes a habit, it comes naturally: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Cultivate the habit of talking with the Saviour when you are alone” Ministry of Healing, page 511.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치료봉사 511)

How do you cultivate a habit?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습관을 어떻게 기릅니까?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하므로 습관이 형성됩니다.

Now, there is somebody here tonight that will say to me, “Brother Frazee, I would like to do that, but I don’t think about it.”

혹 여러분 가운데 “푸레지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되지 않는데요?”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Listen. Just do it when you do think about it.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될 때 그 일을 하십시오.

That is the only time you can do it, it is when you think about it, isn't it?

그대가 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그대가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nd let me tell you a secret. If you will start doing it when you do think about it, pretty soon you will be thinking about it often.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지요. 그대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내 그 일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Jesus will bring it to your attention.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Just have a little understanding with Christ that when He brings it to your mind, you will talk to Him; audibly, if you are where you can; silently, if it is not appropriate to speak out loud.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주시거든 그대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주님께 소리 내어 말하십시오. 혹 상황이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용히 또는 마음속으로라도 말을 하십시오.

You can have a two way walkie-talkie conversation with your Lord.

여러분들은 위키토기로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Just keep tuned in on heaven's wavelength.

하늘의 주파수에 여러분의 사이클을 맞추어 두십시오.

You can talk to Jesus and Jesus will talk to you.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Thus you can share a fellowship which angels can only admire.

그렇게 할 때 천사들도하기를 갈망하는 예수님과 친교의 정을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y do not envy. They love to bring you and me closer to Christ than they can ever know.

그렇다고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 친교의 정을 두텁게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As they see that love, that sacrificial love that He has shown to us, they know that He would have done the same for them had they needed it.

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그런 희생과 사랑이 필요 되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And they rejoice in the inner circle experience that you and I share.

그리고 저들은 여러분과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내적 친교의 관계를 보면서 하늘에서 매우 기뻐합니다.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ive to eat of the hidden manna, and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eth saving he that receiveth it" Revelation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This little thought, friends. Listen.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If nobody else will know your name there, I mean this special name between you and Jesus, would it be a strange thing if there were some things in your experience here that other people didn't understand?

여러분의 이름을 그곳(하늘)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만 통하는 특별한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경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ould that be a strange thing?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Do you see?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Don't worry if other people do not understand everything in your life.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by the same token, do not think it is strange if there are things in other people's lives you do not understand.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 not let that worry you.

그 일로 인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Do not let it worry you because somebody else can do something that the Holy Spirit won't let you do.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Do not let it worry you because Christ reproves you for things that other people do not seem to be bothered with.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신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Just be thankful that you have a personal, intimate fellowship with Jesus, which nobody else knows or understand.

다른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친교의 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기 바랍니다.

Just enjoy getting in there with Him and having a wonderful feast.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음에 대해 즐기시기 바랍니다.

Sup with Him, and let Him sup with you.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이 여러분과 더불어 잡수시도록 하십시오.

Begin it here. Continue it on through eternity.

바로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give an opportunity this evening, for somebody that would like to speak.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This may be the last opportunity we will have in this series for somebody to say a word, so if you would like to speak to the glory of God, somebody that hasn't spoken yet at all - I think we will give you opportunity first.

오늘 저녁에 드리는 간증 기회가 이번 주에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말씀이라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You who haven't spoken at all in the meeting, just come right up, if you would like to, and bear your testimony and then others, perhaps who have spoken, if you want to give a word.

아직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그 후에 이미 말씀하신 분이라도 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And thus we will make the heart of Jesus glad with our witness and our praise tonight.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밤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A testimony service follows.]

간증 집회가 계속됨.



7. Abraham - God's Friend

7. 하나님의 친구(벗) 아브라함

Study given by W. D. Frazee - May 4, 1972

1972년 5월 4일 푸레지 목사 설교

In the second chapter of James' epistle we will have our opening text for our study tonight. James 2:23:

오늘 저녁에 먼저 야고보서 2장 23절을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impu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James 2:23.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 2:23)

What was Abraham called? The friend of God.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렸다고요? 하나님의 친구(벗)라고 했습니다.

Notice it doesn't say that God was Abraham's friend. Doubtless He was.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였음은 틀림없지요.

But this says that Abraham was God's friend. What a title - the friend of God!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칭호 입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If I should tell you tonight that I was the friend of the governor of the state, you would say, "Well, I wonder how that came about."

오늘 저녁에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나는 주 정부 지사의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와- 굉장하신데요.' 라고 할 것입니다.

Suppose I should tell you that I am a personal friend of the president, President Nixon. You would say, "My, he must be somebody."

만약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 닉슨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Abraham was whose friend? God's friend:

아브라함이 누구의 친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James 2:23.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약 2:23)

Let's see who called him that. It says: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 봅시다. 기록되기를,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James 2:23.

하나님에 의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고 했습니다.(약 2:23)

Let's turn over to the book of Isaiah and see if we can find where James got that idea that Abraham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because James is drawing on the Old Testament scripture.

이사야서를 펴서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하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아 기록한 것입니다.

Isaiah 41:8, and we will see who it is that calls Abraham the friend of God. Here God is addressing His people, Israel, and He says:

이사야 41장 8절에서 누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는지 봅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But thou, Israel, art my servant, Jacob whom I have chosen, the seed of Abraham my friend” Isaiah 41:8.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사 41:8)

Who called Abraham God's friend? God did.

누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Do you think God knows who are His friends are? Yes.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친구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And God, looking down at this world says, “There is My friend.”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아- 저기 내 친구가 있구나!”라고 하십니다.

Wouldn't you like to have that experience and that title, to have

Jesus call you His friend?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니까?

Well, I have good news for you: Turn to John 15:15: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Henceforth I call you not servants; for the servant knoweth not what his lord doeth: but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things that I have heard of my Father I have made known unto you”
John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5)

You know it is a wonderful thing to be a servant of Jesus.

예수님의 종만 되어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Paul uses that title often - Paul, a servant of Jesus Christ.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But here the Saviour longs to lift our thinking above that relationship.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신분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하셨습니다.

He is talking to us about something far more wonderful than being servants.

예수님은 우리가 종으로 있는 것 보다 훨씬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하시고자 하셨습니다.

He says, “I am not calling you servants. I am calling you friends.”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노라.”고 하셨습니다.

A servant does not know what his master does.

좋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He just does what he is told.

좋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And it is a good thing to do what our Lord says, isn't it? Yes.

물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We all should be good servants; good soldiers, go where He sends us and do what He tells us.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 예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But He says, “You are a lot more than servants. You are My friends.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종보다 훨씬 더 나은 신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If you were servants, you might do what I told you, but you wouldn't understand.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종들이라면 내가 하라는 대로 일은 하겠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But, oh,” He says, “I want to share with you all that My Father

has shared with Me.”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이야기하고 상의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All things that I have heard of my Father I have made known unto you” John 15:15.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5)

You know I was telling you the other night about how there is something in our human hearts that we long to be needed; we long to fill a place of real need in somebody’s life.

여러분들에게 지난 밤에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 저들의 생애 속에 있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That is what we are to God.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But tonight I would like to have you think of something else that is very human, very natural.

그러나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한 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한 면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And we may not always like to admit it, but then we had just as well, because it is a fact.

혹 우리가 늘 그렇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We like to be on the inside track.

우리는 어떤 테두리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We like to be in the inner circle.

어떤 단체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We like to hear things that are going on, and we like to hear them before everybody else does. Don't we?

우리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As I say, we might not like to admit it.

혹 우리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We might think there is something wrong about it.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You know most things that are wrong, friends, are just a selfish perversion of something that is right. Did you know that?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대부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사실 옳은 것들이 이기적인 동기로 인해 왜곡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There is nothing wrong with wanting to be on the inside track.

어떤 테두리 안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God made us that way.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But friends, what a pity to take that wonderful longing He has put into our hearts, and get bothered because it isn't satisfied by some other poor human being.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러한 놀

라운 갈망을 시시한 인간들이 그 갈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 해하고 불평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That is not the thing that is going to satisfy us.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The thing that is going to satisfy us is to be on the inside track with God; to be close with Him.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있을 때에만 채워 집니다.

Don't you know it made Abraham happy to be the friend of God?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Why, just think of that day when God, the Son, Jesus Christ, with two angels, visited Abraham, had a meal with him.

하나님과 예수님과 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던 일을 상상만 해보십시오.

Abraham did not know who he was entertaining, did He?

아브라함은 그가 접대하는 손님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알았습니까?

But before they left he found out.

그러나 식사를 함께 했던 나그네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And do you remember what Christ said to Abraham, as He introduced the subject?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밝히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Shall I hide from Abraham the thing which I do?” Genesis 18:1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 18:17)

And God talked things over with Abraham.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What was it He came to talk with him about? The destruction of Sodom.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소돔을 멸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Sodom had gotten so wicked.

소돔성이 너무 악하였습니다.

There is a world that is getting wicked like it now, with crime and vice, and immorality of every kind, as bold as ever in the cities of the plain.

지금 이 세상이 소돔처럼 악해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사악한 일들, 각종 부도덕한 일, 백주에 행하는 대담한 범죄들이 평지에 있었던 도시들처럼 만연하고 있습니다.

The time had come to judge Sodom.

소돔을 심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But now notice the God of the universe will not do that without spending some time with His friend, Abraham, who lives near

Sodom. Think of it, friends!

그런데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소돔성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 상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고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Shall I hide from Abraham the thing which I do?” Genesis 18:1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 18:17)

God wanted to counsel with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의하고자 하셨습니다.

And Abraham didn't say, “Oh Lord, I haven't anything to say. You know all about it. You just go ahead and do it.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가셔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And if there is anything you want me to do, tell me. I am Your servant.”

혹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Abraham was properly humble, and we ought to be.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But friends, he did not let his humility lessen his boldness, his confidenc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의 담대함이나 확신을 위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And when God told Abraham that He was going to destroy Sodom because of the terrible sins, Abraham said, “Lord, would you destro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소돔을 멸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하고 간언하셨습니다.

Now, would God do that?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실 것이란 말인가?

And Abraham said, “Lord, suppose there were fifty righteous people in that city.”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만약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칩시다.”

That didn’t sound like very many, and Abraham knew there were not very many down there.

그 큰 성안에 의인 50명이라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성안에 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He said, “Lord would you spare the city for fifty?”

그가 말하기를 “주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And you know what the Lord said? “All right, Abraham. I will accept your counsel.”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좋다. 내가 네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Think of it. A man down here in this world counseling with God.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하찮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하

다니!

He is not just a servant. He is a friend. Do you see?

그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But Abraham was not through. No sooner had God said “I will spare it for fifty,” than he thought, “My, maybe there would not be fifty.”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흥정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생각했습니다. “50명의 의인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So he asked, “What about forty-five? You wouldn’t do it just because there were five missing? You wouldn’t destroy it, would You?”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큰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5명의 의인이 모자란다고 그 성을 멸하시지 않을 것이지요?”하고 물었습니다.

The Lord said, “All right Abraham, I like your thought. We will spare it for forty-five.”

주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좋다. 너의 생각을 내가 존중하지.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마.”라고 하셨습니다.

And that talk between God and Abraham went on until Abraham had things down to where? To ten.

이러한 대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디까지 진행되었었나요? 그 수가 10명에 이르기까지 내려갔습니다.

What an interview! A man, a poor weak man so intimate with God, so close with God, that he can discuss things and God lis-

tens.

얼마나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였던가요!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연약한 인간과 상의하고 흥정을 할 수 있는 관계!

Abraham listens to God. God harkens to Abraham. That is friendship, isn't it? That is fellowship. That is communion.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To such communion God is calling you, my friend.

이러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이 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들이시여!

To such fellowship you are invited.

이러한 친구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What a shame to let what somebody else does, or does not do, keep us from such an invitation.

다른 사람으로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수락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 막게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습니까?

What plain folly it is to say by our actions, if not by our words, "Well, Lord, if you get this one to do that, and if You would get somebody else to do this for me, then I think I might love You a little more, or understand You a bit better, or appreciate You more."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이것만 해 주신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을 텐데요.”라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낸다면 이

얼마나 분명하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Why, friends, what an utter lack of comprehension such an attitude reveals. Do you agree with me? Yes.

친구들이여,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들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The King of the universe wants me to be His friend.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I know He is my friend. He wants me to be His friend.

나는 그분이 나의 친구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Oh, whatever anybody else does, I am going in and be His friend. What do you say?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It will make Him happy. It is what He wants.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Abraham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James 2:23.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약 2:23)

I want to read what I think is one of the most amazing statements in the revelations that have come to this people.

내가 아는 한 인간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It is found in the last message that the Lord's messenger, Ellen G. White, wrote at the end of her long writing of seventy years.

이 말씀은 주의 종 엘렌 지 화잇이 70여 년 동안 집필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The Lord inspired her to write a letter to a discouraged soul.

주께서 좌절하여 낙담한 영혼에게 글을 써서 보내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You will find it now in the book Testimonies to Ministers.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I want to share with you from this last message from the prophet, this wonderful statement:

나는 주의 종이 기록한 마지막 글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It would not satisfy the heart of the infinite One to give those who love His Son a lesser blessing than He gives His Son” Testimonies to Ministers, page 518.

“무한하신 분의 마음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것보다도 못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목사 518)

“무한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을(아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못한 것(더 적은 축복)을 주시고는 만족하실 수가 없다.”(목사 518)-직역

Don't worry if you cannot comprehend that the first time you read it.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You can think on that a million years, and there is a lot more that you have not gotten yet.

백 만년을 두고 생각할 만한 주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Let me read it again: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t would not satisfy the heart of the infinite One to give those who love His Son a lesser blessing than He gives His Son” Testimonies to Ministers, page 518.

“무한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을(아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못한 것(더 적은 축복)을 주시고는 만족하실 수가 없다.”(목사 518)-직역

How much does God want to bless you? As much as He does Jesus.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말입니다.

How much of God’s love does God want you to enjoy? As much as Jesus enjoys.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기뻐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How much does He want you to be accepted? As much as Christ is accepted.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진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십니다.

How much does He want you to feel that you are His special

friend? Just as much as His Son, Jesus Christ, doe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특별한 친구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느끼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친구처럼 지내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If this is not so, friends, then Calvary does not make sense because God gave His Son with the risk of never seeing Him again.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는데, 갈바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Jesus gave Himself at the risk of failure and eternal loss with the hope of getting you and me back into the circle of friendship.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자신과 이러한 친구 관계를 회복하고자 실패할 수도 있고 영원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Are you worth that? He says you are.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십니다.

And if He says I am worth it, who am I to say, "Oh, no Lord, I am not worth it." I am not going to call God a liar, friends.

내가 만약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내가 무슨 권리로 “오- 주님,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In my deepest heart, secretly, this is what would make me happy, anyway, to find out it was true.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찾아낼 때에만 정말 행복

할 것입니다.

Why miss it just because it sounds good? Why turn it down because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그것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에 묵과하시렵니까? 사실이기에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지나치시렵니까?

It is too good not to be true, isn't it?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사실이 아니기에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It would not satisfy the heart of the infinite One to give those who love His Son a lesser blessing than He gives His Son” Testimonies to Ministers, page 518.

“무한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을(아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못한 것(더 적은 축복)을 주시고는 만족하실 수가 없다.”(목사 518)-직역

I want you to notice where the prophet got the thought that is being enlarged here. It is in Ephesians 1:3. This is what is being commented on in this expression: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선지자가 이런 글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주석한 것입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th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Ephesians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엡 1:3)

The margin says in heavenly things.

난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Notice, God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들을 주셨다고 하신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left out.

남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You know when a will is read and a legacy is being given to the heirs, oh, how people listen.

여러분들이시여, 상속자들에게 유언장을 읽으며 유산을 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듣습니까?

I wonder what father left me." "I wonder what Uncle George left for me."

“아버지께서 무엇을 남겨 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큰아버지가 나를 위해 무엇을 남겨 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Well, do you know what the will of the great God is? That you shall have as much as Christ has.

자-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유언장에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만큼 주시겠다고 쓰셨습니다.

I know we can't hold all that.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And this is why God is going to give us eternity to enlarge our capacity.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감당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A million, million, million years from now we will just be entering into the beginning, as it were, of our inheritance.

영원, 영원, 영원을 두고 우리가 받은 유산을 받아 누릴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영원의 시작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But we will be getting a lot more of it then, than we are tonight, because our capacity will increase.

오늘 저녁에 받는 영적 축복보다 그 때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How much can you hold, tonight? What a shame to bring a teaspoon when we could have a quart bucket, or a gallon, or a barrel.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큰 물통(1/4 양동이, 갈론 또는 큰 항아리)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작은 숟가락으로 받아 마시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How much can you hold?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y stand around timidly wondering, if maybe you could get a few more drops?

무엇 때문에 몇 방울 더 맞아볼까 하고 주저하면서 서성거립니까?

Why, friends, God has a universe of blessings that He longs to pour upon us.

왜 그렇게 서 있습니까? 친구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우주만큼이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And one of the greatest of these blessings is the sense of our friendship with the King of the universe.

이러한 축복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우주의 왕이 되신 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Not merely that He is our friend, but that we are His friends.

주님을 우리의 친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Notice, please, Romans 8:16, 17. Well, I think we will begin reading with the fifteenth verse. Listen:

로마서 8장 16,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5절부터 읽어봅시다.

“For y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Romans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롬 8:15)

Oh, it makes God feel sorry when we are afraid of Him.

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Y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e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whereby we cry, Abba, Father. The Spirit itself beareth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And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Romans 8:15-17.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5-17)

What is the next word?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Joint-heirs with Christ” Romans 8:17.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후사(상속자)니.”(롬 8:17)

Well, what is a joint heir? Why, one who gets a share just like the other heirs. Do you see what I read here?

“함께 하는 후사(상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상속을 받는데 상대방과 똑같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읽은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It would not satisfy the heart of the infinite One to give those who love His Son a lesser blessing than He gives His Son” Testimonies to Ministers, page 518.

“무한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들을(아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못한 것(더 적은 축복)을 주시고는 만족하실 수가 없다.”(목사 518)-직역

You see, friends, here in this world we are so inoculated, so saturated with the devil’s idea that the only way I can get more is for somebody else to get less.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 사상으로 세뇌교육 되어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더 적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God never devised any such plan.

하나님은 결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That was Lucifer’s idea.

그것은 루스벨의 생각입니다.

He thought the only way he could get more was to downgrade Christ.

루스벨은 그리스도를 비하시켜야만 그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e wanted to take something from some other Person, Individual, so he could have more.

그는 다른 이가(그리스도)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아야만 그(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Finally he even got the idea of getting above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world.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편만한 사고방식입니다.

This is what is fundamentally, I was going to say wrong, I will say pitiful, about this idea of prizes.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 역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ne of the first prizes I ever won was when I was a little boy, eight years old.

내가 일등상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는 여덟 살 때였습니다.

I was attending a picnic, little bare foot boy.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소풍을 갔었던 때였습니다.

Among the other events of the day, they said there was going to be a race for eight year old boys and the prize was a dish of ice cream.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가운데 여덟 살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등 하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한 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It was a hot summer day near Phoenix, Arizona, and it can get hot there.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이었는데 그 때는 한 여름이었습니다. 한 여름 피닉스 시는 아주 뜨겁습니다.

Well, I lined up with the other little fellows, you know.

여러분이 상상하겠지만 나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기 위해 섰습니다.

And I can still see Brother Fred Owen, as he held up his cap up and he said, "Now, boys, I am going to drop my cap and when it hits the dirt you are off. You run up there to a certain mark and run back.

나는 지금도 푸레드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의 손에 모자를 들고 말하기를 “모자를 내려 땅을 치면 저기 앞에 보이는 목표물을 돌아오는 것이다.

The one who gets back first gets the prize."

맨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일등상을 받는다.”라고 한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Say, we all ran. And I ran with all my heart and strength, and I got it.

우리는 정말 뛰었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뛰어 일등을 했습니다.

I got the prize. Of course, the other little fellows what did they get?

내가 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My friends, I thank the Lord I found long ago that that is not

real satisfaction.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나는 오래 전에 그것이 진정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No. I am not interested in that at all - not a bit of it.

나는 더 이상 그런 상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And I am so glad God didn't wait until I had gray hairs to teach me something better.

나는 내가 늙어 흰머리가 난 후에 그런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어렸을 때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When I was in my teens, God began to teach me that there was something better than grabbing something from somebody else, in order for me to get it, that God wasn't that poor, and I didn't need to be.

내가 십대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기 위해 가로채므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것도 아니고 나 또한 그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My Father is rich, and I am an heir.

하늘 아버지는 부자이시고, 나는 상속자입니다.

He has promised me just as much as Jesus has.

예수님이 받으신 것만큼 나에게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What more could you want?

그 이상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Why go around trying to grab somebody else's position or

money or property or friendship? Why do it?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저들의 돈, 또는 저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겠습니까?

That is why He says there in the tenth commandment:

그렇기 때문에 열 번째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thing that is thy neighbour’s” Exodus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 20:17)

It is not only bad, wicked, but it’s foolish.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고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It doesn’t make sense, friend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Why on earth covet something that belongs to somebody else, when you have more than you can ever get around, in all eternity that is already yours, bought and paid for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Why not start in to enjoy that?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귀한 보혈을 지불해서 마련해 놓은 엄청난 선물들을 영원을 두고 여러분이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받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고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아 즐기는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Some of you have heard the story of the little dog that was trot-

ting along home, very contented and happy, anticipating what he was going to enjoy as soon as he got home, for he was carrying a bone in his mouth.

여러분 가운데 아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입에 먹음직한 뼈다귀를 물고 가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As he was trotting along he came to a little foot bridge across a stream.

그 강아지가 맛있는 뼈다귀를 물고 집에 가는 길에 징검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As he passed over, he chanced to look in the water and there he saw another dog with another bone - reflection, of course.

징검다리를 건너가면서 물속을 내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맛있는 뼈다귀를 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물속에 보이는 강아지는 물에 비치는 강아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And he grabbed for it. But, of course, in the process you know what happened, don't you?

그래서 물에 보이는 강아지의 입에 있는 뼈다귀를 재빠르게 빼앗고자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He lost his own bone. And of course, he didn't get the other one, either.

그 자신의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물론 물속에 있는 다른 강아지의 입에 있는 뼈다귀도 빼앗지도 못했습니다.

Ah, friends, think of it! Have you ever tried to grab what somebody else has?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Why not enter into the glorious heritage that belongs to us by the purchase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Why try to edge in and get somebody else's love, somebody else's friendship, worry whether we have as much honor as somebody else, or the position that somebody else has, or the money that somebody else has?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 다른 사람의 우정, 다른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직위 또는 저들의 돈이나 재물을 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Friends, there is something sweeter, better, higher, deeper, broader, grander, than anything of that kind.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이보다 훨씬 달콤하고, 더 좋고, 높고, 깊고, 넓고, 크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It is to be the friend of God; for God to invite you into His inner counsel and talk with you and let you talk with Him.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팔이 미치는 범위 안으로 들어와 그분과 친교의 정을 나누면서 대화하자고 초청하십니다.

I know this is so, friends.

친구들이시여,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And I can say honestly from my heart tonight, this satisfies the longing of the soul.

나는 솔직하게 이것만이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만족케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 covet no man's position.

나는 다른 사람의 직위를 탐내지 않습니다.

I covet no man's property or wealth.

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부를 탐하지 않습니다.

I have a gold mine, infinite in value.

나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금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God, the God of the universe, has called me His friend.

하나님,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He loves me. He loves to have me with Him.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He loves to talk to me and let me talk to Him.

그분은 나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고 내가 그분과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Oh, friends, I feel so little at it, and probably I always will.

오- 친구 여러분,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늘 그럴지도 모릅니다.

He is infinite. I am finite.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구요.

But do you know, friends, even a little bucket can hold the same kind of water that a great big lake does?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릇이지만 커다란 호수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What is it they call this lake over here the other side of the

Rockies? Grand lake?

록기산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랜드 레이크-큰 호수라고 하던가요?

Well, it is grand, isn't it? Yes.

예, 정말 엄청나게 큰 호수이더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And it supplies water for quite a bit.

그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꽤 넓은 지역에 공급되더군요.

Aren't we getting it in the canal here? Yes. You drank some, when you turned the faucet on.

이곳도 그곳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쓰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를 틀면 그 물을 마시는 것 아닙니까?

And friends, it is a great big lake, and if all you can hold is a bucket full, you can take your bucket down there and get it full, but there is plenty left.

그 호수가 정말 큰 호수이지요. 여러분들이 큰 물통에 그 물을 채운다 해도 그 큰 호수의 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grab somebody else's bucket, turn their bucket over and spill half of it trying to get their bucket in your's.

다른 사람이 담은 물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통의 물을 빼앗아 당신의 그릇에 쏟으려 하면서 절반의 물을 땅에 쏟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No, no. There is plenty in the lake.

그럴 필요가 없지요. 호수에 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God wants you to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샘에서 채움 받기를 바라십니다.

Yes, there is quite a difference between being a servant and being a friend.

종의 신분과 친구의 신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Let's turn now to John 8 and we will notice another wonderful thing about this relationship: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언급된 놀라운 관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And the servant abideth not in the house for ever: but the Son abideth ever” John 8: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요 8:35)

The life and the service of the servant may be transient, uncertain.

종들의 삶과 저들이 하는 일은 일시적이에요, 늘 불확실합니다.

I go over here to a big factory and I say to a man,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이 근처에 있는 큰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얼마나 오래 동안 일하셨습니다까?” 하고 물어 봅니다.

“Well, I have been working here ten years.”

“한 십년 정도 일했습니다.”

“Are you sure you are going to work here the rest of your life?”

“이 공장에서 평생 동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h, no.”

“아- 그렇지 않습니다.”

“Could they fire you?”

“주인이 해고도 시킬 수 있습니까?”

“Oh, yes. They could fire me.”

“물론 해고 시킬 수도 있지요.”

“Your tenure is uncertain.”

“여러분의 장래가 불확실하군요.”

And I want to tell you, friends,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with God on that sort of a basi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y feel insecure. Even if they think they are in today, they wonder whether they might get kicked out tomorrow.

저들은 불안해 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내어침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God longs to have you be a friend, a son, instead of just a servant.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The Son abideth ever” John 8:35.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요 8:35)

You know, here in this group tonight, many of us are interested in certain branches of the Lord’s work.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야의 주님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We call those branches self-supporting work.

이 사업을 우리는 자급 선교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I would like to have you think of it this way, friends.

친구들이시여,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Whether we are working in what is called the conference work or self-supporting work, we need to know why we are working.

우리가 합회에서 일하든지 자급 선교사업을 하든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If we are working as servants, we can draw our pay whether it comes in dollars or tens or hundreds or thousands, but we will never know this other relationship.

우리가 종으로 일을 한다면, 주급이나 월급으로 정해진 액수의 돈을 받겠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Just get this picture and you will see what I mean.

내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상상하면서 내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uppose here is a farm over here in the next valley.

산 넘어 계곡에 농장 있다고 생각합시다.

There is a man who has a number of hired hands.

농장 주인이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He has a great big ranch.

아주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ut he has a son, also.

그런데 농장 주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That son has been on that farm ever since he was born.

그가 태어날 때부터 농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He knows all the broad acres.

그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the cattle. He knows the horses. He knows the tractors.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도 잘 압니다. 말이 몇 마리가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트랙터가 몇 대가 있는지도 압니다.

And one day a neighbor sees this son as he is handling some of the farm machinery. He sees him on the tractor.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아들이 농장기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트랙터를 고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He stops him as he makes a round and he talks to him over the fence.

산책을 하던 길을 멈추고 울타리 너머에 있는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He says, "Harry, what are you making here on this farm with your father? How much is he paying you?"

“헤리야,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돈을 받느냐?”하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봉급을 얼마나 주시니?”

Harry, come and work for me and I will pay you twice as much.”

“헤리야, 네가 만약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면 네 아버지가 주는 봉급의 두 배를 주마.”하고 말했습니다.

Will he go?

그가 그곳으로 갈까요?

Well, that depends on whether he is a servant or a son. Am I right? That is right. That is what it depends on.

그가 종인지 아들인지에 따라 사태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iends. If there is any amount of money that would get you to move from the job you have, to some other job, then you are missing half your lif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더 준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아 간다면 그대의 삶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In fact, you are missing more than that.

사실 절반 이상 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Well, I won't try to express it mathematically, how much of your life you are missing.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속에서 어떤 수학적인 숫자로 얼마를 상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Oh, listen. There is something more wonderful to work for than a servant's wage.

잘 들으십시오! 종이 받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It is the fellowship of a son with his father, a friend with a friend.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But you know, the son has to take the consequence of that, because come a bad year, the crops aren't quite so plentiful, the

servants have to be paid just as much as if there was a good crop, don't they?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들이라면 그가 하는 일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데, 어떤 해는 수확이 많지만 어떤 해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확이 없는 해에도 좋은 값을 받아야만 합니다.

But the son and the father have to tighten the belt a bit, right?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And does the son go to bed and think, "I don't know. I think I'll get moving. I know where I can get a lot more money than I am getting here."

이럴 때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자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봐. 다른 곳으로 가면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Why, sure that's no problem."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Oh, I repeat, it is a wonderful thing to be a son, to be a friend.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Is that your experience?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If you have it, there is nothing that can bribe you, nothing that can entice you, nothing that can allure you.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꺾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And when I say that, I do not mean, and of course, you know I

don't mean that a man is to stay in one bit of geography all his life.

그렇다고 어떤 한 곳에 꼭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That is not the point.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Wherever God sends me, that is where I want to go.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Wherever God places me, that is where I want to be.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곳에 있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My point is, money has nothing to do with it.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Remuneration has nothing to do with it, if I am a son.

내가 아들이라면 어떤 품삯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If I am a servant, yes.

내가 종이라면 물론 다르지요.

I will sell my talents, my time, to the highest bidder.

내가 가진 재능, 내가 바치는 시간을 가장 높은 값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Why shouldn't I?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If what I want is ten thousand dollars a year, and if somebody will pay it to me, why not go there?

1년에 10만 불(1억 2천만 원)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만큼 돈을 준다면 그곳에 가서 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And when I have been there a little while, if somebody else offers me twenty thousand, why not go on where the pastures are greener?

그곳에서 한동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일 년에 20만 불(2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너편 초장이 더 푸르러 보이는데 그곳으로 왜 가지 않겠습니까?

Doesn't that add up? Doesn't that make sense? Sure.

봉급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고 말고요.

But if that isn't what I am interested in, if I have a father that loves me and that I love, and I am filling a place on his team that nobody else can fill, and shall I put it very simply, he just can't get along without me, I am not going to let him down.

그러나 내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내가 없이는 도무지 그 모든 일을 해낼 수 없다면, 아버지의 이런 기대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Would you? Oh, no, I am not going to let Him down.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그(하나님)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He wants me. He needs me. He needs my counsel. That is what He says.

그분이 나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의견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He needs my love, that is what He needs.

그분은 나의 애정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It isn't my wisdom. Oh, no.

그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But He needs my love, my understanding, my appreciation.

그분은 나의 사랑, 나의 이해, 나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Abraham believed God. Do you believe God?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When God tells you that He loves you, do you say, "Oh, Lord, I believe You, I know You love me," or do you say, "Oh, I wish I could feel it?"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렇게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하고 말하니까?

Feel it. What does feeling have to do with it, friends? It is a fact.

느껴보십시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친구가 되는 것하고 느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현실입니다.

Bless the Lord, Jesus is your elder Brother.

예수님이 여러분의 맏형님이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His Father is your Father. He is your friend.

그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You can be His friend.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Will you do it? Will you enter into that fellowship with Jesus?
How is it done?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이런 친구 관계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Well, as we studied yesterday morning; with Enoch walking with God.

우리가 어제 아침에 연구한 것과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The first thing is to make the contact. The second thing is to keep it.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만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하는 일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That is all there is to it. Make the contact and keep it.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의 일입니다.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In the language of our lesson tonight, it is this: acknowledge the relationship that God has made possible through the gift and sacrifice of Jesus, and keep acknowledging it.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마련하신 선물을 알고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Keep believing what God says, that He is your friend, and that

you are His. Talk to Him as a friend.

하나님께서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신 것,
여러분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믿는 일입니다.

Now I wish we could turn in our hymnals to 531. See if you don't
like this one:

영문 찬미가 531장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이 찬미를 좋아하지 않나 보십시오.
한글 찬미가 147장입니다.(원문을 직역합니다.)

I've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He loved me ere I knew Him:

한 친구, 놀라운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네.

He drew me with the cords of love,

And thus He bound me to Him.

사랑의 끈으로 이끄시고
나를 묶으셨네.

And 'round my heart still closely twine

Those ties which naught can sever,

For I am His, and He is mine,

Forever and forever

내 마음을 더 단단히 묶는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네.
이는 영원히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

Note that second stanza:

2절을 살펴봅시다.

I've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He bled, He died to save me.

한 친구, 놀라운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해 죽으셨네.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e are my friends. ... Henceforth I call you
not servants [but friends]" John 15:13-15.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 너희를 친구
라 하였노니." (요 15:13-15)

Oh, what a friend He is, to lay down His life for us! What do you
say? Oh, let's sing it with new meaning and new appreciation.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 얼마나 놀라운 친구이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시 한 번 그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미를 부릅시다.

I've found a Friend; oh, such a Friend!
He bled, He died to save me;

내가 한 친구, 놀라운 친구를 알게 됐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 피 흘려 목숨 버리셨네.

And not alone the gift of life,
But His own self He gave me.

생명의 선물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나를 위해 주셨데.

Naught that I have my own I call,
I hold it for the Giver;

내 것이라고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주신 분을 위해 단지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일세.

*My heart, my strength, my life, my all
Are His, and His forever.*

나의 마음,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영원토록 그분의 것이네.



8. Moses - God's Friend, Too

8.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였음

Study given by W. D. Frazee - May 4, 1972

1972년 5월 4일 W. D. 푸레지 목사 설교

This evening, let's begin with Revelation 15:2, 3. Here is the song of victory up in heaven when the battle is all over, the victory won:

오늘 저녁시간에는 계시록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구합시다. 여기에 모든 싸움을 이긴 자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얻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And I saw as it wer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em that had gotten the victory over the beast, and over his image, and over his mark, and over the number of his name, stand on the sea of glass, having the harps of God. And they sing the song of Moses the servant of God, and the song of the Lamb, saying, Great and marvelous are thy works, Lord God Almighty; just and true are thy ways, thou King of saints” Revelation 15:2, 3.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Notice that the redeemed are going to join in singing the song of victory, spoken of here as the song of Moses and the song of the Lamb.

구속을 받은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한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It is especially the last generation that get the victory over the beast, the image, and the mark. It is to them, especially, that this song relates.

특히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이 짐승과 그 형상과 표와 더불어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부를 특별한 노래입니다.

And I thought, dear friends, if you and I are going to sing the song of Moses, it would be a good thing to learn something about it. What do you think?

혹 여러분과 제 자신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suppose Moses will be there to help us sing it.

모세가 그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But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iends, in heaven the songs we sing will be the songs of our experience. Concerning this same group notice Revelation 14:3:

그러나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늘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경험의 노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 요한 계시록 14장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And they sung as it were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beasts, and the elders: and no man could learn that song but the hundred and forty and four thousand, which were redeemed from the earth” Revelation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14:3)

You know, here men write songs.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합니다.

They may be from their experience.

저들의 노래는 어쩌면 저들의 경험에서 나온 노래일 것입니다.

Somebody else can learn that song and memorize the words and music, and get up and sing it.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배우고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They may know nothing about it.

저들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But in heaven the songs we will sing will be the songs of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s we are going to sing out of and from, will be the experiences we have had here.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우리가 한 경험의 노래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을 노래할 것입니다.

And those who sing the song of Moses will have some experiences such as he had.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비슷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I want to go to Exodus 33 and notice something beautiful in the life of Moses. You will see as soon as we get to this text why I like it:

나는 출애굽기 33장을 읽으면서 모세의 삶에서 아름다운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eth unto his friend” Exodus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출33:11)

Somebody says, “Brother Frazee, it looks like you are back on the same subject.”

혹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푸레지 목사님, 똑같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Yes, we are right back on it.

맞습니다.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ou know, I was telling somebody once, if somebody would give me a dollar bill and I would turn it over and lo, it would be a ten dollar bill, and then I would turn it over again and it was a hundred dollar bill, do you know what I think I would do?

누군가가 나에게 1불짜리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한 번 뒤집으니 10불이 되고, 다시 뒤집으니 100불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내가 어떻게 할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would you do? Wouldn't you turn it over again? Sure. It is bigger every time.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시 돈을 뒤집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한 번 뒤집을 때마다 액수가 점점 커지는데 그렇게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What does this say about Moses?

이 성경절에서 모세에 대해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eth unto his friend” Exodus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11절)

Notice, this does not indicate so much that God was Moses' friend, but Moses was God's friend.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친구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Of course, both are true, but as you have heard me say already in these studies, it is natural to think of what God can do for us, but few people realize how much God needs them.

물론 어떻게 말하든지 둘 다 사실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합니다.

It is easy to think, “Oh, how wonderful it is to have God for a friend,” but what about you being a friend to God?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h, He doesn’t need me.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What would He do with me? I need Him.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I need Him badly.

내가 그분을 절실히 필요하지요.

But does He need Me?

그런데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No, He doesn’t need me.”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나같은 사람을 필요하실 리가 없지요.”

I tell you, you will never know the sweets, the extra special sweets of Christian experience until you understand how necessary you are to God, how much He values you, your friendship, your fellowship.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친교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에 대해 깨닫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달콤하고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He looks forward to the time when you can talk to Him and He can talk to you.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He gets lonesome if other things keep you busy and you forget Him.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다른 일로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소홀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정말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Yes, He gets lonesome.

하나님이 외로워하십니다.

Wouldn't you, if you had a close friend, and you just enjoyed fellowship with that friend, and something happened and they got so busy with something and largely ignored you, wouldn't you feel it just a little?

여러분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 우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을 소홀히 하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Well, thank God, Moses did not treat God like that.

감사한 일은 모세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In fact, we are told in Hebrews 11, that Moses endured as seeing Him who is invisible.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참았다고 했습니다.

How do you see an invisible thing? Well, by faith.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지요.

That is what faith is for.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In the last war, World War II, they came out with this radar invention.

세계 2차 대전 당시 레이더라는 것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It is quite a thing. A ship can go right through the fog.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면 배가 안개가 끼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향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With that radar they can see ships out there that you can't see with your naked eye at all.

그대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레이더를 통해서 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How foolish a man would be, looking at the radar screen to say, "Well, I know the screen says that, but I can't see it looking out through the window, so I don't know whether it is there or not."

혹 누군가가 “레이더에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물체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It could run into it and find out that way. That has been done, hasn't it?

그래서 레이더를 무시하고 질주했다가 그만 충돌된 후에야 레이더가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We are talking tonight not about seeing something dangerous.

오늘 저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어떤 것을 본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We are talking about seeing something beautiful and wonderful and sweet and precious, and that is our Lord.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답고 달콤하고 멋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He is our friend, but oh, He wants you for a friend.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고자 하십니다.

And Moses knew that. He learned that in those forty years out in Midian herding sheep.

모세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런 사실을 배웠습니다.

And if the only way you and I can learn it is to go out somewhere in the mountains and herd sheep, we had better get going.

만약 여러분과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산간 어디에 가서 양을 쳐야만 배울 수 있다면 그런 곳으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I don't say that is the only way to learn it, but I say it would be better to learn it that way than not learn it. What do you say?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비결을 배울 수 없다면 배우지 않고 있는 것 보다 그런 길로 가서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d may I say right on that point, it is so easy to suppose that our first job is to make a living, and do several other things that people think have to be done to keep up with the Jones, and then sigh and wish for the time when we will have time to get with God.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웃집에 사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것저것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숨만 쉬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But the Master says: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Matthew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But it is not alone in periods of devotion, as we speak of it, that we are to get acquainted with God.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We were studying not long ago in this series about Enoch.

얼마 전에 우리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He was a friend of God, too.

에녹 역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Enoch did what? Walked with God.

성경은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And God is walking, not merely to church on Sabbath.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했다고 했는데, 안식일에 교회에 갈 때만 동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He is walking to work on Tuesday morning, and Wednesday and Thursday and all the other six working days.

그는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일주일 6일 동안 내내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했습니다.

He is going to work.

그가 일하러 갑니다.

And if we will get in step with Him and go to work with Him, friends, we can have a fellowship with Him.

우리가 만약 일하러 갈 때 그분과 함께 간다면,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그분과 진정한 친교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It is not just in prayer that we are to have that fellowship.

하나님과 함께 사귀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Thank God, dear ones, we are to have a fellowship with God in everyday labor.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친교의 정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And in order that we might sense that and know that it is possible, Jesus, God's Son, came down to this world, two thousand years ago and tabernacled among us.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Most of the time He spent in this world He spent as a carpenter working for His daily living.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살기위해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Imagine we see Him some weekday morning.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중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There He is in the early morning. He has had His breakfast and He is on His way to work.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갑니다.

Who is that young man, eighteen years old, twenty-four years, twenty-seven? Who is He?

저 청년, 18세, 24세, 27세가 되는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구지?

Well, that is Jesus.

글쎄, 예수라는 청년이지 뭐.

But did the people recognize Him as God's Son? No, they thought He was just another man there.

그 당시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나요?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평범한 또 다른 한 청년으로만 보았습니다.

Well, what is He doing? He is going to the carpenter shop.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수 간에 일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And suppose that I know that He is God's Son, and I say, "What in the world is He doing?"

혹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What is He doing out there, working with a hammer and a saw and a plane?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다니!

God's Son doing that? Yes.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What for? To show us how to live, my friends.

왜 그런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To show us how God can get right down to the common things of life.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Oh, that we may have a walk with God, as Enoch did, every day of the week.

우리들이 에noch처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Oh, that we may live the life of heaven on earth, as Jesus did in Nazareth, in the common things of life.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는 보통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사셨습니다.

We read that Enoch walked with God.

우리는 에noch이 하나님과 동했다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Here we see that Moses talked with God.

그런데 여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This is fellowship, friends - walking with God, talking with God.

이것이 바로 친교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Notice how does it says that God spoke to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eth unto his friend.” That means understanding.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다는 의미
입니다.

That means fellowship. That means joy. That means satisfaction.

이것이 친교의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
다. 마음의 만족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Oh, to be a friend of God.

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But do you know what it takes to be a friend to anyone? It takes
time to get acquainted.

여러분 누군가와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서로
가 알기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Some of the very best friends I have, twenty years ago I didn't
even know the names.

내가 사귀고 있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20년 전에는 저들의 이름조
차도 몰랐습니다.

But oh, how much their friendship means to me now.

그러나 저들과 함께 나누는 친교의 정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What happened? Well, I got acquainted.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서로 친숙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That took time talking back and forth, sharing problems, sharing joys, sharing sorrows, sharing opportunities.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회들을 함께 나눕니다.

This is the way Moses and God did.

바로 이런 일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They shared the problems of a great movement, a great mass of people, for forty years.

모세와 하나님은 위대한 운동, 백성들의 문제들을 40년 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But before that, God and Moses had shared the problems of a flock of sheep, out there in the desert in Midian.

그런 일이 있기 이전 모세와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의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God is interested in your problems.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You ladies, with your dish washing and your sewing, and your cooking, the training of your children, God is interested in all that.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설거지, 재봉, 요리, 자녀 교육문제 등등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He likes to have you talk to Him about it. He likes to talk to you about it.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러 오기

를 기대하십니다.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He wants it to be a friendship, a fellowship that brings joy and satisfaction to the soul.

그런 과정을 통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우정, 친교의 정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May I be very practical with this, men, women, and children?

여기에 계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면을 말씀드려 볼까요?

You know one of the things I found that helps me to sense the presence of God and get help in my periods of devotion?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과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It is just to get down on my knees with the open Bible, and close my eyes, and say (not necessarily these words, but this is the thought), “Dear Lord, speak to my heart through these pages. Help me to get the message You put into this Book for me.”

무릎 꿇고 성경을 펴서 들고 눈을 감은 채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물론 내가 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경 가운데 나를 위해 기록해 두신 기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Then I open my eyes and read, maybe a verse, maybe two or three verses.

이런 기도를 드린 후 눈을 뜨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한 절 또는 두 서너 절을 읽습니다.

Then I close my eyes and think about that and talk to God about what I have been reading.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And then when I have said what I want to say to Him about it, that may lead me into some things I want to ask Him about.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한 후에 혹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It may lead me into the names of people that I am praying for; people whose names I carry before the Lord, trusting that they will surrender their hearts to Jesus.

혹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들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It may be the names of fellow workers that I am praying for, that God will help them in bearing their burdens.

혹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견뎌야 할 짐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왔을 수 있습니다.

Well, then I come back to this Book and read again some words, close my eyes and pray again.

그런 후에 다시 성경 말씀을 펴서 몇 구절을 더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Thus, you see, it is a dialogue, not a monologue.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God is speaking to me through His Word, and I am speaking to Him in prayer.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써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There is usually more friendship in two people talking together than in one doing all the talking, whichever way it is, isn't it friends? Yes.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우정이 더 깊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Now, it is all right to just sit in your easy chair and read the Bible chapter after chapter, nothing wrong with that.

물론 안락의자에 앉아 성경을 계속 읽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I do it at times. I enjoy it.

저도 때때로 그렇게 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But for a close fellowship, I like this mixture of prayer and Bible study.

그러나 친밀한 친교를 위해서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병행합니다.

I do the same with Steps to Christ or The Desire of Ages, or some other inspired book, where Jesus is speaking to my heart,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isn't it? (See Revelation 19:10.)

나는 정로의 계단이나 시대의 소망 또는 다른 영감의 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언의 영은 예수님의 증거이지요. 그렇습니까? (계시록 19장 10절을 참고하십시오.)

This fellowship with Jesus, of God talking to us and we talking

to God, this, I repeat, is what Moses experienced.

예수님과 가지는 이러한 친교의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After he had forty years of it there in Midian, he had forty more years of it in the exodus movement.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친교의 관계를 가졌으며 출애굽 운동을 하는 40년 동안 동일한 친교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Now, once Moses lost sight of God's face.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Do you remember that?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Do you know what caused him to do it?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Do you want me to be honest with you, and tell you what happened?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를 바라십니까?

He got the feeling sorry for himself. That's right.

그는 그 자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Now, the people were not any meaner that day, than they had been forty years before, but Moses was tired.

그렇다고 그날따라 사람들이 40년 전보다 더 악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세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Maybe he needed some sleep. I don't know.

혹 모세가 잠이 필요했었는지도 모릅니다.

But he was not as close to God as he had been.

그러나 그는 전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nd as the people murmured and complained, and complained and murmured, just as they had over and over again, this time Moses just felt sorry for himself.

그리고 사람들이 저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반복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때 모세가 이 때 그 자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And he thought, "Oh, my, do I have to listen to this again?"

그리고 모세가 “세상에 내가 이런 불평불만을 또다시 들어야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He called those people rebels, which they were, no question about it.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악당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심할것 없이 저들이 악당들이었지요.

But he showed irritation. Just once in forty years, friends.

그래서 그만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이시여, 40년 동안 단 한번 그랬습니다.

That is one time too many.

그 한 번이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And for that one failure he lost the opportunity to lead Israel into the promised land, and he would have been translated.

바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Now, he repented right away, and God forgave him, thank the Lord.

그런데, 그는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He got into heaven. He had to go the grave route instead of translation.

그는 하늘에 갔습니다. 그가 승천하기 전에 무덤이라는 곳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God loved that man.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friends, it hurt Moses when he couldn't go into the promised land, but it hurt God a lot wors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In fact, it hurt God so bad that He said, "Moses, don't pray anymore to me about this matter."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하셨던지 모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If I were speaking of it in the language of men, I would say, God was afraid He would yield, if Moses kept pleading with Him.

내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만약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탄원을 계속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자신이 그 요구에 굴하고 말까봐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Now, you notice, I say if I were speaking in the language of men.

내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그렇다고 한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My point is, friends, God has a heart for those that He loves and that love Him.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God hated to disappoint Moses.

하나님은 모세를 실망시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But God had a beautiful plan up His sleeve, as we would say.

그러나 하나님의 수중에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He didn't tell Moses about it.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That would have spoiled it.

그 사실을 말했다면 그를 망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But my, Moses was not there in the grave very long until Jesus came down with the angels.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에게 오기까지 무덤 속에 그리 오랜 시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And brushing aside the challenge of Satan, He brought Moses from the grave, the first one to come from a dusty bed.

사단의 주장을 따돌리고 그분께서 모세를 무덤 속에서 불러내셨는데, 티끌 가운데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And away they went to glory, and he has been there ever since,

friends.

친구들이시여, 저들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갔는데 모세는 그 이후 계속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And do you know something wonderful?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When Christ was here on earth and He was approaching the hour of greatest sorrow in Gethsemane, and that tragedy of the judgment hall, the suffering of Calvary, as He went up there on the mountain at His Father's command, heaven sent two messengers to talk with Jesus.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의 생애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을 때, 심판정의 두렵고 괴로운 시간, 갈바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바로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작은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기별자를 예수님께 보내셨습니다.

Do you know who one of them was? Moses. And who was the other one? Elijah.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I am sure both of them comforted Jesus.

두 사람이 예수님을 위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if I may just say, I rather think that Moses could have given Him some special comfort.

그러나 나는 모세가 아마도 더 많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see, Moses had been through the grave.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세는 무덤을 통과했습니다.

Elijah never had.

엘리아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Moses could say, "Be of good cheer, Jesus. You are going to die, but I have died, and I have been raised and You are going to be raised."

모세는 “예수님, 용기를 가지십시오. 죽으실 것입니다. 나도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분명 일어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Oh, friends, it is a wonderful thing to have this fellowship with God.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친교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What do you say? Now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else about Moses, and this will help us to understand why God appreciated him so much, as a friend.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에 대해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를 좋아하며 사랑하고 감사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You remember that the Lord came down there on Mount Sinai and gave His law.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promised to be faithful and keep the commandments.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Then Moses was called up into the mountain again, to get the instructions for the sanctuary that was going to be built.

그런 후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And while He was up there, during those forty days, the camp of Israel got filled with restlessness, and finally you remember the multitude came up to Aaron, who had been left in charge and said what?

그가 그곳에서 40일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때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진영을 책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Make us gods to go before us.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Moses.

저들은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Maybe that cloud has swallowed him up.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Maybe the fire has consumed him.

어떤 불이 살라버렸는지도 모릅니다.

At least here the weeks have gone by and we have not seen or heard from him.

벌써 여러 주일이 지났는데 모세로부터 아무런 전갈을 받지도, 모세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Who knows whether he will ever come back?

그가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We have to get going. We have to do something."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And so Aaron yielded to their demands, and you remember pretty soon they had a golden calf, and they were dancing around it with few clothes and less modesty, entering into all the terrible experiences of music and dancing and gluttony and immorality that were characteristic of the Egyptian pagan worship.

그래서 아론은 저들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주위에서 옷도 거의 입지 않고 춤을 추며,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폭식에 빠지고 부도덕한 일들을 행했는데 바로 애굽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했던 것 같은 일을 했습니다.

And, of course, Moses on the mount,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물론 모세는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He was up there having a wonderful time with God. He and God were in fellowship.

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And finally God broke the news to Moses.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Moses,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Those people down there that you brought out of the land of Egypt have corrupted themselves.

네가 애굽에서 불러 낸 백성들이 저들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되었단다.

Quickly they have gone out of the way.

저들은 신속하게 저들의 정로를 떠났단다.

They have made a golden calf and are down there, this minute, dancing around it saying, 'These be thy gods, Israel.'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이 순간에도 노래하며 춤추면서 '이스라엘의 신이여,' 라고 한단다.

Imagine a piece of gold bringing them out of Egypt.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덩어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Moses, I have decided what to do.

"모세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마.

These people are rebels.

저들은 반역자들이다.

They are hopeless, and in order to carry out the plan, the plan that you and I have talked over many times, there is just one thing to do.

너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 했던 계획을 밀고 나가기에는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렸고, 내가 할 일이란 단 한 가지 밖에 없다.

I am going to destroy these people and their heathen idolatry.

저들을 완전히 멸하고 저들의 우상도 완전히 멸하려고 한다.

And I am going to take you, I can count on you, and I am going

to make of you a great nation.”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This is God talking to Moses. What would you have said?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표한 중대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Now, notice it was not the devil that said this to Moses.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계획을 마귀가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It wasn't Moses that said this to himself. God said this to Moses.

모세 자신이 혼자 중얼거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There is many a man that would have said, “Well, Lord, that is too bad, but if that is what You say, probably that is the best thing to do.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그것 참 안됐네요. 하지만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최선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So, I will be willing to accept the assignment of being made a great nation.”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But, friends, God knew who He was talking to.

그런데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God and Moses were like this, heart to heart.

하나님과 모세는 바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친구, 마음과 마음이 통

하는 친구였습니다.

God was testing Moses, His friend, as He had tested Abraham, his friend, centuries before - in a different way.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 아브라함을 수 세기 전에 좀 다른 방법으로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But as that great test that came to Abraham's heart brought him into a close fellowship with God, I want you to notice how this test brought Moses into a great fellowship with God.

그러나 그 엄청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후에 그는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게 됐으며, 이러한 시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떤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했는지에 대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What did Moses say?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At once he fell down on his face before the Lord.

즉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Read it here in the thirty-third chapter of Exodus.

출애굽기 33장을 읽으십시오.

He fell down on his face and started to plead with God for Israel.

그는 얼굴을 땅에 대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Oh, Lord,” he said, “We cannot do that. You must not do that.” And he began to marshal the arguments as Abraham had plead for the righteous that might be in Sodom, and prayed that Sodom might be spared.

“주님이시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선 안 됩니다.”라고 하

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흥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So Moses becomes a pleading intercessor, and with tears and supplication he pours out his heart to God.

모세는 탄원하고 중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He reminds God of His promise to Abraham, Isaac, and Jacob.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켰습니다.

He reminds God that if Israel is destroyed, the heathen will all say God couldn't carry out His promise to take them from Egypt to Canaan, so He just destroyed them.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면 이방 우상 숭배하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긴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중도에 멸하셨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nd what will happen to Your name?” Moses thought of every argument he could get.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모세는 그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And He pled with God. Finally, (And don't miss this!) Exodus 32:31, 32:

그는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의 말씀을 결코 묵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nd Moses returned unto the Lord, and said, Oh, this people have sinned a great sin, and have made them gods of gold. Yet now, if thou wilt forgive their sin—; and if not, blot me, I pray

thee, out of thy book which thou hast written” Exodus 32:31, 32.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 31,32)

Oh, what a fellowship that a man, a mere man could talk to God in such a close way, and offer his own life to be blotted out, rather than Israel should be blotted out.

아- 사람이 하나님과 이토록 친근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사정을 할 수 있을까요?

In fact, he said, “Lord, unless You cannot find some way to save Israel, if You are going to blot them out, blot me out, too.”

사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도 함께 멸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And so as you read on in the thirty-third chapter, you see God’s response as He offers to pardon the people and entrust Moses once again with leading them from Egypt to Canaan.

여러분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탄원하고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를 수락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세가 다시 한 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게 됩니다.

And it is in that setting that this text that we have read is: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배경이 그러 했습니다.

“And the LORD spake unto Moses face to face, as a man speaketh unto his friend” Exodus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출 33:11)

Oh, dear ones, if we will enter into a fellowship with God as Moses did, we will have a love for the church, God's people, such as Moses had.

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구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들 또한 모세처럼 교회를 위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nd one of the greatest experiences we can have, of fellowship with God, is in intercession for the church.

우리가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친교의 경험은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This is what Daniel did in Babylon.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This is what Moses did there on the mountain.

모세도 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This is what Jesus did in Gethsemane.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Those who triumph with the remnant will sing the song of Moses and the song of the Lamb.

남은 무리와 함께 승리한 사람들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They will love God so much, and love His church so much, that they cannot bear the thought of being saved without the church

- impossible.

저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With one hand on the throne of God and the other on the church they will draw together what the devil is trying to separate.

한 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교회를 붙잡고 마귀가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연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These are the remnant that sing the song of triumph.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남은 무리입니다.

I want you to go from these early beginnings of the scriptures to the very last book.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Let's go to Revelation 3. You know this book of Revelation is selected by God Himself to be the capstone of the scripture.

요한 계시록 3장을 펴십시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 자신이 지정하신 관석(冠石-머리돌)입니다.

Of the sixty-six books, it is placed at the end because here is the focal point of all the messages of the Bible.

성경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두셨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fourteenth chapter (we are going to the third now) we have God's three-fold message which His people are to give to the world.

요한 계시록 14장은 세상에 보내시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3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But in the third chapter of Revelation, we have Christ's special message to His people, to His remnant church.

그러나 요한 계시록 3장에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남은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What is the name of the last church? The Laodicean church. That is right.

그 마지막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And it is Jesus talking to him because you notice the fourteenth verse says:

14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And un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write; These things saith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Revelation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계 3:14)

(That is the one who makes or begins)

여기에 언급된 분이 무엇인가를 만드신 분이요, 시작하신 분입니다.

“The creation of God” Revelation 3:14.

“하나님의 창조”(계 3:14)

So it is Jesus who is speaking.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I want you to notice verses twenty and twenty-one. Here is the climax of the last message to the last church:

나는 여러분들이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의 절정이 있습니다.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even as I also overcame, and am set down with my Father in his throne” Revelation 3:20, 21.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22)

Who is this? Jesus.

여기에 서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Where does He want us? He wants us with Him up there.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Why does He want us up there with Him? Because He loves us. He likes our fellowship.

왜 그분께서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But meanwhile, before we can be up there with Him, He wants us to let Him be down here with us.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하늘에 있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Before we eat with Him, He wants to eat with us.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먹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싶어 하십니다.

Before we sit with Him, He wants to sit with us.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 곁에 앉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앉고 싶어 하십니다.

Before we go in that door, He wants to come in our door.

우리가 하늘에 있는 문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 마음 문에 먼저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And so in this picture we see Him standing where? At the door.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문 앞이에요.

And doing what? Knocking.

문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Revelation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Do what?

무엇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Sup with him, and he with me” Revelation 3:20.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Now I want to ask you something, friends. Let's see if we can

make it really practical.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면을 살펴봅시다.

Suppose I came to your door tomorrow evening along about five or five thirty.

내일 저녁 5시나 5시 30분경에 여러분의 문 앞에 왔다고 합시다.

You hear a knock.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You look out the window and say, "Well, there is Brother Frazee.

그리고 창문을 통해 보고서는 "야- 푸레지 목사님 오셨잖아?

We are just going to have supper.

이제 막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I wonder if he would like to have supper with us?"

혹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으시려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Tell me, if you asked me in for supper, who do you think would furnish the supper?

만약 여러분이 나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권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면, 누가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ome, now.

대답해 보십시오.

Would you furnish it or would you expect me to furnish it?

여러분들이 음식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기를 바라시겠습니까?

Some good friends invited me to dinner today, but I didn't bring a thing, except a good appetite.

오늘 여기에 계신 친구 한 분이 점심에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린 배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식욕 외에는 아무 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었습니다.

I enjoyed it.

저들이 마련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They said they did.

저들 역시 나와 함께 점심을 잘 먹었다고 했습니다.

You know, food and fellowship are a wonderful combination, aren't they friends?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식탁에 둘러 앉아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친교의 정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Jesus wants to come and sup with you.

예수님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음식을 함께 먹고자 하십니다.

That means eat and drink with you, in fellowship.

여러분과 친교의 정을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싶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Who is going to furnish the supper?

누가 먹을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까?

"Oh," you say, "I haven't anything to feed Him. I haven't a thing in the house."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드릴 음식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우리 집에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떡하죠?"하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Well, what do you suppose He came for, then?

글쎄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He has got plenty to eat up in heaven, of food and fellowship both, hasn't He?

하늘에 먹을 음식도 많고 친교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here is no one starving up there.

하늘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here is plenty to eat.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And I repeat, plenty of fellowship.

다시 반복하지만 친교의 정을 나눌 동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What on earth is He doing down here walking from door to door in Laodicea, poor, sleepy, lackadaisical Laodicea?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졸고 있는 감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집을 배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What is Jesus knocking at the door for?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까?

Why, my dear friends, He is hungry for something.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왜 그러시냐고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굶주려 허덕이고 있습니다.

You say, "What is that?"

혹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데요?"하고 물을 것입니다.

I am going to read it to you from this wonderful book, Desire of Ages. Listen.

시대의 소망에 있는 놀라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And this isn't hyperbole. It isn't exaggeration.

이 말씀은 과장된 이야기도 부풀려서 한 말도 아닙니다.

It is just plain fact:

꾸밈없는 사실입니다.

“Our Redeemer thirsts for recognition.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기를 인정해주시기를 갈망하신다.

He hungers for the sympathy and love of those whom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The Desire of Ages, page 191.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주리고 계시다.”(소망 191)

Jesus hungry? Yes.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What for?

무엇에 배고프시다고요?

Your love; your recognition, your friendship, your telling Him that you love Him, that you like the way He does things; your thanksgiving and praise -just to talk with Him and tell Him what He means to you.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의 우정,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대의 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 그냥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갈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Friends, He is hungry for that.

친구들이시여, 그분은 바로 이런 것들에 굶주려 있습니다.

That is what He says.

바로 그렇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And that is why He has left heaven and come down here.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And it isn't that they do not treat Him well up there.

하늘에서 그분을 잘 대접해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They treat Him fine.

그곳에 있는 거민들이 그분을 잘 대우해줍니다.

They tell Him how much they appreciate Him.

저들은 저들이 그분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But friends, do you know what I have noticed as the years go by and I get acquainted with life?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Here a father and mother can have three or four, six or eight, ten or a dozen children.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데 자녀들을 셋, 넷, 여섯 아니면 여덟 또는 열둘을 가진 부모들이 있습니다.

I visited a family, not long ago, that had a dozen children.

내가 얼마 전에 방문한 가정에는 1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Quite a number, isn't it?

자녀들이 꽤나 많지요? 그렇습니까?

But do you know what I found?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Whether people have a small family or a big family, if there is one child in that family that is what people call a black sheep, a wanderer, the father and mother do not say, "Oh well, we have eleven left.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든지 아니면 적은 가정이든지, 소위 말해서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가정에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 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른 열 한 아이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And really, according to the law of averages, that is better than our share, so we ought to be thankful."

"그리고 실제로 평균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지 않은가? 그러므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say that, do they?

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Why, no, not if they are a real father and mother.

그렇지 않지요. 저들이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말입니다.

What do they do?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Why, friends, they spend more time thinking about that black sheep than they do the rest, don't they?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잘 하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말썽꾸러기 아이를 돌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What is the matter with them?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Well, there is just one thing the matter with them.

그렇게 하는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hat is love.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That is the way love is.

그것이 사랑입니다.

People may think it is crazy.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People that think it is crazy don't know what it is, that is why.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People that know what love is, do not think it is crazy.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저들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hey think it is just the thing.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f the other brothers and sisters know what love is, they do not get jealous.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질투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say, "What in the world is the matter with dad and mom, anyway?"

저들은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All the rest of us behave ourselves and they don't pay much attention to us; but there is that rascal that is making all kinds of trouble, and they just think about him and pray about him and weep over him, and act like he was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family.”

“우리한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말썽꾸러기한테만 온 정열을 다 쏟고 울고불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서 그 애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가봐!”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The other brothers and sisters don't get jealous about that if they know what love is.

저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그렇게 시샘하지 않을 것입니다.

If they do get jealous, they don't understand love. Am I correct?

만약 질투한다면 저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Now do you begin to see what is the matter with Jesus, as He stands at the door and knocks in Laodicea?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지 이해가 갑니까?

He is hungry for love, for fellowship, for understanding.

그분은 사랑과 친교와 이해를 갈망하여 굶주려 있습니다.

His heart goes out to those that have gotten occupied with other things, busy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Jesus has been largely shut out, largely forgotten.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일로 바쁜 사람들, 다른 일들로 정신이 없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들, 아예 예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나가 십니다.

Why, my dear friends, we have come to a time when there are multitudes of people who claim to be expecting Jesus in just a little while in the clouds of heaven, who don't even have time in the morning to stop and visit with Him, between the time they wake up and the time they go to work.

오- 여러분들이시여, 잠시 잠깐 후에 구름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른 아침 일어나 일하러 가는 시간까지 잠시 멈추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here are multitudes of others who have found out how to crowd it in, so they snatch a morning watch verse and family worship and the blessing for food, all wrapped up in one package in about three minutes. That is efficiency, isn't it?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침 조력자에 나와 있는 기억절만 읽으므로 아침 예배를 대신하고, 기도할 때 음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3분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Well, I say that is better than nothing, wouldn't you?

그것도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있으니 그 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I suppose Jesus thinks it is better than nothing.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And yet, I am sure that there must be times when it only makes Him more lonesome than ever.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하는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f there was somebody you loved so much, you were just hungry for a visit with them, and you couldn't see them at all, that would be one thing.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싶고, 함께 만나 대화하고 싶은데, 저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But if you got a chance to see them and they would visit with you three minutes, and then run off to look after something else, might it not make you a little more lonesome than you were before? Might it not?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한 3분쯤 만나고 다른 일을 하기에 바쁘다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느끼지 않겠습니까?

Do you see what I mean, friends?

친구들이시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Oh, the thing that made Moses such a friend of God was this: he took time to visit with God.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He took time to talk things over with God.

그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He took God into his daily work, his daily problems.

그는 일상생활에서 그가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And when the problems flooded in on him, he cried to God and God answered him.

그리고 문제가 산적해 올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Friends, let's let Jesus in. What do you say?

오-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을 모셔 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d let's not wait until we get everything cleaned up and supper on the table.

우리가 방 청소를 마치고 음식이 식탁에 다 차려지기까지 미루지 맙시다.

He might even have a few suggestions of what to have for supper, if we would ask Him in.

우리가 그분을 모셔 들이면, 저녁만찬을 위해 무엇을 먹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One way or another, let's get Him in and let's feed Him. What do you say?

어찌하든지 그분을 모셔 들이고 잡수실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t might be all right to just ask Him what He would like for supper.

예수님께서 잡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What do you think? Wouldn't that be a nice thing to do?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And I will tell you what He will say. I'll read it here: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지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He hungers for the sympathy and love of those whom He has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Desire of Ages, page 191.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주리고 계시다.”(소망 191)

Our sister sang a sweet song to open the meeting.

집회를 시작할 때 한 자매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I didn't know she was going to sing to open, so I asked her to sing this for me to close.

나는 그 자매가 그 노래를 부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매에게 이 집회를 마치면서 그 노래를 다시 한 번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nd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이 노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You can see why, in the light of what we have just been reading in Revelation 3:20.

그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그 노랫말이 우리가 읽은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The Savior Is Waiting

구주가 기다리심

The Savior is waiting to enter your heart,

구주께서 그대의 마음에 들어가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데

Why don't you let Him come in?

왜 그분을 모셔 들이지 않는가?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o keep you apart,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대를 갈라놓을 수 없네.

What is your answer to Him?

그분께 드리는 그대의 대답이 무엇인가?

Time after time He has waited before,

전에도 수많은 시간 그분은 기다리셨네.

And now He is waiting again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네.

To see if you're willing to open the door:

혹시라도 그대가 기꺼이 문을 열어줄까 하고.

O how He wants to come in.

그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가?

If you'll take one step toward the Savior, my friend,

친구여, 만약 그대가 구주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다면

You'll find His arms open wide;

활짝 벌리고 계신 그분의 팔을 발견할 것이네.

Receive Him, and all of your darkness will end,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대의 모든 어두움이 끝날 것이네.

Within your heart He'll abide.

그대의 마음에 그분께서 거하실 것이네.

Time after time He has waited before,

전에도 수많은 시간 그분은 기다리셨네.

And now He is waiting again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네.

To see if you're willing to open the door:

혹시라도 그대가 기꺼이 문을 열어줄까 하고.

O how He wants to come in.

그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가?

(이상은 영어 원문을 직역한 것임)